평신도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연구

ㅡ 평신도의 자기 소명 발견을 중심으로

A study of Church Revitalization through Layman - centered by those who discovered their calling and ministry.

By

Chung, Joseph Yosu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outhampton, New Jer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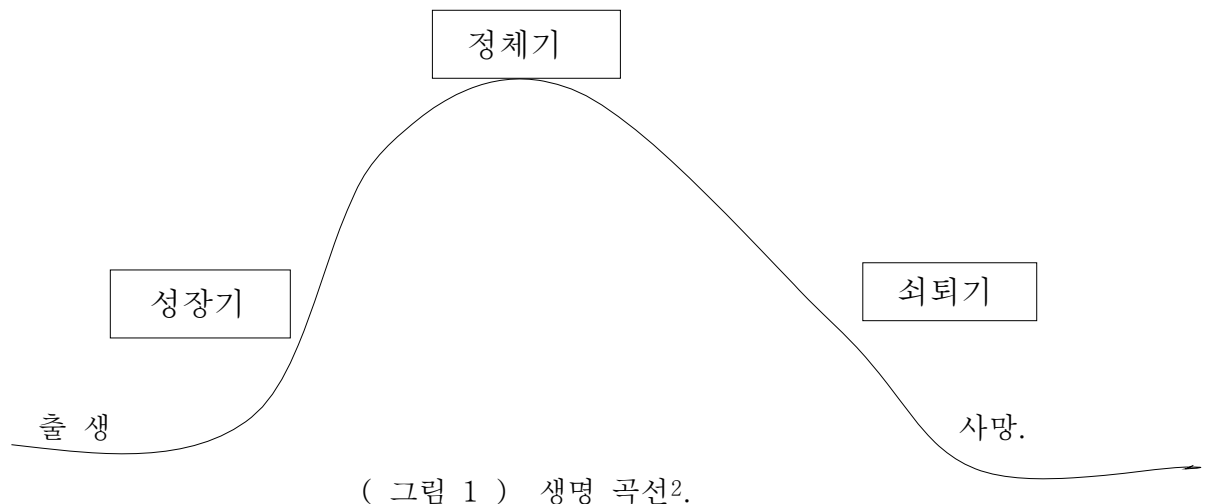
2011.

목 차.

1장 서론.

1. 우리 교회도 사멸해야 되는가?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나 교회 까지도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생명주기란 탄생,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종결을 말한다. 그렇다면 교회 조차도, 탄생하고 성장기를 거쳐 정체기에서 쇠퇴기를 지나 사멸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1] 역사를 통해서 모든 강력하고 위대한 국가들도 이 생명주기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논의는 물론 지상적인 교회에 대한 것이지 우주적이고 완전한 교회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그림 1) 생명 곡선[2].

[1]Kenneth Priddy & Patrick Bragg, Jr.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교회 활성화 사역,* 전지현, 박동건 역 (서울 : CRM KOREA 2008) 21-28.

[2]Ibid., 14.

본 연구자의 자리가 한인 이민교회라는 위치에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태어나고, 소멸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생명주기는 아주 짧을 수 있다. 출생 후 성장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원하는 성장기를 거쳐 정체기에 이르렀다고 하자. 정체기는 어떤 상태인가? 교인들도 많고, 교회 건물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바라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 재도약하지 않으면 결국 쇠퇴기를 거쳐 사망에 이를 것이다.

안주란 죄의 속성이며 죽음을 의미한다.[3]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교회의 모습이 정체기의 모습일까? 또한 이미 정체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들은 다른 소망은 없는 것인가? 그대로 있다가 소멸의 단계로 나가야만 하는가?[4] 여기서 각 단계별 생명곡선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 장 기	정 체 기	쇠 퇴 기
미래 지향적	현재 지향적	과거 지향적
비전에 이끌림	프로그램에 이끌림	구조 중심
지역 사회에 초점	교인들에 초점	기득권 교인에 초점
혁신적	일상적	자기 만족
높은 위험 부담의 믿음	낮은 위험부담의 믿음	위험 부담 없음
믿음에 근거한 결정	자원에 근거한 결정	우유부단
은사에 의한 봉사	빈자리 메우기 식 봉사	형편대로(메우지 않음)
돈 = 투자	돈 = 필요공급을 위해	돈 = 현재 보존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 발굴	확인된 지도자 사용	현재의 지도자 만으로
회심에 의한 성장	교인 이동에 의한 성장	성장 없음/마이너스 성장

(그림 2) 각 단계별 특성.

---

[3]송기득, *인간: 그리스도교 인간관에 대한 인간학적 해석* (한국신학연구소, 1984), 138에서 재인용. 불트만의 말처럼 "세상은 죽음 안에 있다. 왜냐 하면 세상은 결단을 거부하며, 항상 낡은 것에 집착해 있으며, 전혀 미래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4]Kenneth Priddy & Patrick Bragg,Jr. 24−28. 교회의 생명주기는 각 단계별로 추진력이나 초점, 태도, 믿음, 의사결정 방식, 봉사의 방법, 재정의 사용, 지도자 활용, 성장의 방법등이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요약해 그림 2. 의 도표를 작성했다.

위의 도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교회가 계속해서 성장기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 Hans Küng의 말처럼 교회는 불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건전하고 유익한 불안으로 만들어야 한다.[5]

대부분의 교회는 정체기의 모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이민교회가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곧이어 쇠퇴기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건물이 있어도 결국은 쇠퇴기를 거쳐, 역사 속에서나 이름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장기의 살아있는 비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체기에서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계속 젊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교회를 새로운 비젼을 불어넣어 청년과 같은 생동감으로 뛰게 할 수는 없는가?

한인 이민교회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있다. 대도시라 할지라도 한인끼리 관계의 폭이 넓지 못하다. 자신들의 사업장과 그 주변의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기에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도 다음 날을 위한 물건을 사던지, 매상을 계산하고 나면 밤이 늦은 시간이 된다.[6]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하러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되고 나면 후유증이 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결국 교회는 고립되는 느낌을 갖게 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

[5]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대구 : 분도 출판사, 1994), 15-16. 한스 큉이 말한 교회의 과제들은 전통과 형식에 매여 생기를 잃고 경화된 뱅성을 쇄신, 규합, 소생시켜야 하고, 한 때 그리스도교화 했다가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를 멀리하는 지식인, 노동자, 농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며, 갈라진 그리스도 신자들, 그리스도 교회들의 재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즘을 추진해야 하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비그리스도교와 더불어 세계통일의 전망 아래 허심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등 세계가 직면한 거창한 문제해결에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속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6]민병갑 외 9인, *미국 속의 한국인* (서울 : 유림문화사, 1991), 61-81.

계속해서 동일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므로 분위기는 침체한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도를 하려해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교회는 활력을 잃고 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2. 배경소개.

남부 뉴져지 Burlington County의 Eastampton에 위치한 성림교회는 1997년 3월에 시작되었다. 현 담임목사인 정 요석 목사가 13년 전에 다른 교인들 없이 오직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다.

1) 지리적 환경.

성림교회가 자리한 Eastampton 지역은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Mt. Holly 지역으로 통한다. Mt. Holly란 도시가 200년의 역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Mt. Holly 지역은 한인 이민의 역사가 오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astampton과 Mt. Holly는 서로 붙어있기에 우리도 본 교회가 Mt. Holly에 있다고 말한다. Mt. Holly 주변에 한인들이 모여 살게된 이유는 이곳에서 15분만 동쪽으로 가면 미 육군 훈련소였던 Fort Dix가 있으며, 공군 기지인 McGuire 부대가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군인들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과 그들이 초청한 가족들이 주변에 살게 되었다. Mt. Holly에서 4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Philadelphia가 있다. 한인들의 상권은 Philadelphia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직장이나 가게가 Philadelphia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한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면서, 군부대를 축소시켰다. 그러므로 많은 한인 여성들은 군인 남편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또한 군인 가족들도 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많이 떠났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옛날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림교회 주변은 한인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Mt. Holly 남쪽에는 Cherry Hill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한인들이 상당수 밀집해서 살고 있다. 그러나 Cherry Hill은 Camden County에 속해 있어서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느낌이 든다. 북쪽으로는 New Jersey의 수도인 Trenton이 있다. 그러나 Trenton은 한인들의 사업체가 별로 없는 곳이다. Trenton에도 약간의 한인들이 살고 있으나 다 흩어져서 살고 있기에 쉽게 발견할 수 없다. Mt. Holly 지역은 뉴져지의 남부에 해당하여 북부의 수많은 한인들이 있는 곳과는 대조가 되는 곳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산이 없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다.

Cherry Hill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뉴져지 지역 안에 한인 인구는 약 5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넓은 것에 비하면 한인 인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림교회는 Trenton과 Cherry Hill지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Census 2000의 자료에 의하면 성림교회가 있는 Burlington County의 한인인구는 3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한다.

2) 교회의 역사.

성림교회는 처음부터 ABC교단에 속한 Mt.Holly First Baptist Church의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했다. 본 연구자는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친구 목회자의 부탁을 받아 미국교회를 빌릴 곳을 함께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곳을 발견치 못하고, 한 미국교회 목회자에게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후 Mt. Holly First Baptist 교회에서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여기에 와서 한인교회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군부대 주변에 한인 가족들이 상당 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빌릴 교회를 찾던 친구 목회자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이 미국교회는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을 하며, 빨리 한인 교회를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

다고 믿고, 아무런 개척의 동역자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성림교회는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 속했고 한국 말로는 '북미주 개혁 장로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장로교의 신앙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한다. 이런 본인의 성향과 Calvin이 직접 목회와 정치를 했던 지역에서 Calvin의 신앙을 전수받은 교단이라는 것이 좋았다. 교단은 그러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선 그들의 문제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단이다. CRC가 규모가 큰 교단이 아니지만, 세계 구제부는 해마다 700-800만 달러를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좋아서 이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성림교회는 개척 초창기에 빠른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 목회자 부부가 길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고, 불신자들을 만나 가정에서 성경공부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년 만에 성인 교인 30명 이상이 되면서 약간의 재정도 모여 있었다.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었으나, 그것은 그동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본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가 생기므로 친한 사람들 끼리 기존 교회를 피해서 모여든 경우였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민자로서의 경제적 성공과 자랑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도 그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성격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과 충돌을 만들어낸다.

성림교회가 계속 발전하는 중에 7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 담임목사와 갈등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내면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 남은 교인들은 20명 정도 였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본인이 전도해서 데려온 초신자들 이었다. 교회 분열이후 6년이 흘

렀으며, 그 동안 전도는 되지 않고, 병으로 사망하는 교인들과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교인들만 있었다.

본 연구자도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와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할 목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성도들은 내가 직접 전도해서 결신하게 만든 사람들이며, 그들은 본인이 계속 자신들과 함께 목회하기를 원했다. 노인들은 본 연구자와 함께 살다가 장례를 받기를 원했고, 상당 수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림교회가 비록 숫자적으로 급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 해도, 교회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여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다. 작은 교회도 행복해 질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자,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도 이러한 발견의 한 과정이다.

현재 있는 교인들은 80%가 40대 초반이며 20%가 60대이다. 학력은 거의가 고졸이며 한 두 명만이 대학을 다녔다. 이민 시기는 대부분 15년 이상 이며, 자기 사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미국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나 Professional 한 직업이 아니라,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일들을 한다. 경제적으로 대부분 가난한 편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 미국의 금융위기와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작지만, 계속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민자들의 삶을 잘 반영하는 모습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본 연구자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상처를 딛고 회복되고 있다. 이 회복은 가정의 회복도 있고, 경제적, 영적 회복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늘 외로워 보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가정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기쁨 중 하나이다.

3) 미래의 전망.

성림교회 주변에 비신자들이 있으나 과거에 교회에 출석한 경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기에 교회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어 교회를 떠났다든지, 교인들끼리 이혼이나 결혼관계로 교회를 떠났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한, 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변에 흩어져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관계들이 해결될 수 없는 상태로 얽혀있기에 전도를 하기도 쉽지 않고, 전도에 의해 급성장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성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잔잔한 감동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성림의 작은 공동체가 보여주는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의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는 다시 활성화되어, 낙망하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교회 자체의 자원도 한정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본 연구자가 이 논문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과제인 것이다.   이 연구가 실행되어졌을 때, 성림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형제 자매로의 의식 전환 : 직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둘 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세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경건생활을 수행하게 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묵상을 매일 혼자서 하는 것.

셋 째,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주신 독특한 삶과 성품을 통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사역을 발견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책임과 사역이 있으며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교회에서 드리는 일요일의 예배만이 아닌, 직장과 세상에서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와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계

속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

넷 째,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봉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해 나의 시간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민자들이라서 그런지, 끝없이 자신에 대한 관심만 있고, 전혀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계속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중심의 이동이 있는 삶을 사는 것.

다섯 째, 선교에 대한 참여가 더욱 일어나기를 바란다. 성림교회는 설립하면서부터 선교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이제는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스스로 선교지역이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방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할 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간다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향과 범위.

이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성귀가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4:11,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는 말씀과 베드로 전서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다. 교회 안에는 모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뿐이다. 직분은 목사와 장로, 집사가 있지만, 직분은 일시적이며 신분은 영원하다.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직분이 요청될 때만 그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교회를 떠나거나, 그 직분이 필요 없을 때, 직분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민교회는 일시적인 직분을 신분과 동일시

한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자신의 신분의 상승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직분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 이것은 이민 사회에서 마땅히 발전할 사회적 신분이 없다는 것이 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는 그저 예배의 구경꾼이며 교회를 이루는 작은 부속에 불과한 것 같은 인식을 가진 목회자들에 의해 평신도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이 중지되기도 한다. 목회는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없으며, 혼자 해서도 안된다.[7] 교회는 수많은 벽돌이 서로 연결되므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목회자 혼자서 모든 벽돌이 될 수 없다. 목회자는 하나의 벽돌일 뿐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존재한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발견하여,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될 때, 신분과 직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혼란스러운 이민 교회의 현장을 보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야 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같이 느껴져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며, 한편으로 배우려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고착화된 성도들의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위해 2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없으며 교회 안에는 오직 성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다.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은 성도였음을 드러내려 하였다. 구약의 족장이나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왕과 제사장이 성도였으며 신약의 사도들 역시 성도였다는 것을 밝히려 하였다. 사도들이 평신도 였기에 오늘날에도 사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도적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

---

[7]Leonardo Boff,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11. Boff는 그의 책 제목을 Ecclesiogenesis 라고 하며 교회라는 Ecclesia와 창세기의 Genesis를 합성하면서 성무일과와 교회 제도를 축으로 하는 기존 교회 체제에서 '말씀과 평신도'를 축으로 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의 이동이 Ecclesiogenesis 라고 한다. 즉 평신도들이 복음의 대의를 진전시키며 교회 현실이 지향할 방향과 결정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교회 존재형태의 출현이라고 한다.

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핵심을 섬김으로 보았다(막10:45).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안수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가 어떻게 조직(Organ)에서 조직체(Institution)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런 구조들이 헬라적 이원론에 의한 것임을 밝히려 하였다.

4장에서는 현실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라는 구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그 뿌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심화되면서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남성과 여성, 자유인과 노예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분의 구분은 계급 구조를 발전시키고, 경제구조를 만들며 노예제도를 정당화 시킨다.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나, 성직자와 성도의 차별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교회가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제도로서 자본주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대형화, 물량주의, 배금주의, 몇몇 지도자들의 특권화 같은 것들은 모습만 바꾼 중세의 봉건주의와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영향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차별과 계급구조를 가진 한국교회 모습과 그 안에 있는 여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나의 몸이라고 하실 때, 교회를 향한 마음과 기대를 채워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제시해보려 노력했다.

5장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이 차별을 가져왔고, 이러한 계급구조와 계층화 현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소외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차별은 소외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 그들도 결국 소외된다. 현대사회는 계층화하고 있으며 기술사회로 들어가면서 더욱 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대인들은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며, 이것이 죄악인 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심리학과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특별히 교회안에 자리잡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진단해 봄으로, 우리가 얼마나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젖어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 평신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자신들의

사역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의식화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들을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성림교회의 현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론으로서 Preire의 의식화 교육, Knowles의 성인교육방법론, Clinebell의 환경교육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며, 교회이고, 세상의 자신의 일터에 존재하는 유일한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갈 사도의 직무를 맡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있다. 성경공부는 일방적 공부가 아닌 발견학습에 의해서 진행하며 서로가 가르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공부하며, 우리가 살고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care(돌봄)하라고 주신 곳임을 알게 하고 있다.

7장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 받은 자이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여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교회 활성화 세미나와 초점이 맞춰진 삶 세미나를 통하여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세미나의 결과로 교회에 일어난 변화들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성경공부와 설교, 변화에 대한 소개는 부록에서 보여주고 있다.

8장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본 연구자에 대한 연구반원들의 평가를 실었으며 9장에서는 결론과 연구 반원들에 대한 소개를 실었다.

2장 성경에 나타난 평신도의 의미.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존재한다. 또한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다. 이것이 단순히 직분으로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직분이 신분으로 인식되어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민자들이 성취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교회는 마치 계급을 상승하기 위해, 귀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드는 전쟁터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 목사와 평신도가 갈등하고, 많은 교회의 분리의 원인이 대부분 자신에게 어떤 직분을 주지 않았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8]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목사와 평신도가 있고, 장로와 집사 그 외에 평신도가 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누가 그들을 불렀고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단어에 대한 연구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아보려 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그 단어의 본래적 목적대로 사용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

[8]실제로 몇 년 전에 Philadelphia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직분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직분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자리였다. 이런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누가 이겼느냐, 누가 망신을 당했느냐에 대한 관심이었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1. 부르심에 대한 일치.

Markus Barth는 "교회 전체, 즉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성직자이다"라고 했다.[9]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독특한 개성이다. J.C. Hoekendijk는 그의 책 「The Church Inside Out」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평등한 부르심이 있다고 했다.[10]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인(saints)이 되라는 것이다.

1)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이나 소명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발견한 신분에 걸맞게 어떤 것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명은 부르심의 목적, 곧 "한 소망"이다.(엡4:4) 근본적으로 성직과 평교인의 신분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11]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자기 종교 속에서 소외되고 메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대와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전인간(全人間)으로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일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의 사상에 근거를 두며, 신약으로 넘어가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교회'로 발전된 사상이다.[12]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친교라고 우리에게 말해 줄 것이다.

---

[9]Markus Barth., *Ephesians*,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Chapters 4-6, vol. 34A, *The Anchor Bible* (New York : Doubleday, 1981), 479.

[10]Mark Gibbs & T. Ralph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16.

[11]R.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39.

[12]Mark Gibbs & T. Ralph Morton, Ibid., 13.

교회의 신비는 단순히 교회가 민중들이라는 것이다.[13] 교회는 신성한 사회인데, 그 이유는 무오한 교리나 불후의 조직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에 세속적인(Lay) 사회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세속적이라 함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세속적인 것은 이 세대에 오늘의 세상 속으로 기독교가 보내어지기 때문이다.[14]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심은 구약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불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존재해야 한다. 이 부르심이 개인적이었고, 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할 정도가 되었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족장들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부르신다. 그는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시142:4) 라고 한 시편기자의 탄식과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내 양을 볼보라(요21:6)”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고기를 잡는 옛 직업으로 되돌아 갔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라”(벧전5:2)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유를 들은 장로들 역시 어떤 공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도(Saints)들에게” 라

---

[13]Ibid.., 28. 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75-177. Hans Küng은 여기에서 부르심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14]Ibid., 28.

고 쓸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목회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들은 교사인 목사에 의해 지도되고 강화되었다.[15]

2)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구약에서는 *'Kahal'*과 *'Edah'*가 교회를 가리켜 사용되었다. *Kahal*은 '집회' 혹은 '회중'을 의미하며 '여호와의 총회' 또는 '하나님의 총회'로 번역된다.[16] *Edah*는 지정된 때와 처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여 역시 집회나 회중을(an assembly, congregation)의미한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신약으로 오면서 *Ecclesia*로 번역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는 자들에게 *Ecclesia*를 세우겠다고 하셨다.[17] *Ecclesia*의 용례는 다양하나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자들'을 의미한다 는 데는 일치한다. *Ecclesia*의 사용법은 지교회(local church)를 말하기도 한다. 가정교회(house church)에 사용하기도 하고 보편적 유형교회(universal visible church)와 보편적 무형교회(universal invisible church)에다가 사용한다.[18]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르심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옛 계약의 소명사

---

[15]Melvin J. Steinbron,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 서병채, 김종태 역 (서울: 평신도 목회자 연구소, 2002), 52. Melvin은 엡 4:7-12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목사의 지도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의 일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16]신31 : 30 (이스라엘 총회) , 민16 : 3 (여호와의 총회), 느 13 : 1 (하나님의 총회).

[17]마 16 : 18 (내 교회), 18 : 17 (교회).

[18]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17-20. 지교회-행5:11, 고전11:18, 살전2:14. 가정교회- 롬16:5, 고전16:19, 골4:15, 빌레몬2절. 보편적 유형교회-고전10:32, 11:22, 엡4:11-16. 보편적 무형교회-엡1:22, 3:10, 골1:18.

를 살펴볼 때 명백해진다. 예언자들의 소명 이야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예언자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호세아와 아모스처럼 간략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 같은 족장, 모세,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의 소명 이야기와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왕 등의 소명 이야기들은 모두 소명이 한 개인에 대한 특별 대우나 특권이 아님을 밝혀준다. 소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전체로서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다(벧전 2:9) '부름 받은 거룩한 자'(고전1:2)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 사랑 안에서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이러한 부르심의 빛에서 이해되어야 한다.[19]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은 교회를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러나며, 2차 바티칸 회의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도 '교회의 계층구조'같은 말들보다 '신비'나 '하나님의 백성들'같은 말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계층구조는 2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20]

3)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로써, 교회의 성직자주의는 배제된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Ecclesia*, 믿는 자 전체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므로 성직자들이 따로 교회가 될 자리가 없다.

믿는자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교회의 사유화는 배제된다. 개개 신자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게되면 교회는 개인들의 응집체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개인은 교회의 지체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개인

---

[19]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서울: 한들출판사, 2007), 171-173.

[20]Leonard Doohan, *평신도 중심의 교회,* 심광섭 역 (서울: 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35.

의 총계 이상이며, 종교적 공동체의 산물 이상의 것이다.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립자가 물러나곤 하는 인간적인 기관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한 제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제도'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적 백성이다.[21] 이로써 교회에 대한 관념화는 배제된다. 교회는 이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항상 새롭게 모이며 시간 속을 순례하는 살아있는 백성이다. 교회는 옛 계약 백성의 역사를 받아들여 이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계약 속에서 성취시킨다. 교회는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변화 속에 존재한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서, 세속과 오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실제로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관념론적 오해인 것이다. 관념적인 교회는 오류가 없고, 그러므로 회개나 회심이 필요없다. 이런 관념적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서의 교회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항상 새롭게 용서를 구하는 백성이다. 교회는 거부와 실패의 어둠 속을 방황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 전체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22]

2. 평신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인들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은 다음의 한 문장에 압축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해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온 뒤, 자신들을 민족적이며 종교적 통일체로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된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 그 자체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한 의미이다.[23]

---

[21]Hans Küng, 177.

[22]Ibid.., 178. Hans Küng은 이 부분에서 교회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서, 성도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직자 주의나 교회의 사유화, 관념화를 반대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초인격적인 중재 기관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3]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1992), 34,35.
Hans Küng. 156, 157.

출애굽기 6장6-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고백은 시내 산에서 맺은 계약의 의미이기도 하다.[24]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와 시편을 걸쳐 예언서로 이어진다.

1)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라는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왕과 심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방패와 피난처, 반석이 되신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와 그의 부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유로운 행동으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 하나로 결합된다. 구약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통일은 결코 자연적인 필연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통일성은 오히려 당신의 백성의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역사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과 은혜,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25]

예언자들의 선포는 현재보다 미래, 즉 여호와의 새로운 종말적 행위를 기다리는 미래를 강조하게 되었다.[26]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도 커져갔다. 과거에는 현재적인 소유로 찬미되었던 것이 지금은 – 언약 백성의 불복종 이후에 –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열망되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론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

[24]출6:6-7.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25]Hans Küng, 157.

[26]Ibid., 160.

계신 하나님의 자녀"(호세아1:10)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이사야 61:6)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희망에 가득찬 종말론적 기다림은 민족적 편협성을 무너뜨린다. 이방인의 멸망과 정죄 사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보복을 시도하려는 생각 없이 이방인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희망이 대두된다.[27] 하나님의 종의 과제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사야42, 49장)으로 섬기는데 있다. 종말론적인 모든 희망은 메시야, 축복받은 민족을 다스리실 기름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는데서 절정을 이룬다.[28]

따라서 후기 유대교에서 나타난 모든(민족주의적, 랍비적, 헬레니즘적, 그리고 묵시사상적)오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구약성서의 하나님 백성 개념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교회 즉, 예수를 메시야로 믿는 종말론적 구원의 공동체는 메시야 예수에 대한 신앙 속에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또한 자신을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 즉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특징짓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옛 이름(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제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주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도 공동체 밖에서 불려진 이름이었다. *Ecclesia* 라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했다.[29] 일반적으로 신약성서는 Septuagint 와 마찬가지로 *Laos*라는 개념을 민족, 국가, 민중, 군중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특수하게는 이방백성(*Ethne*)과 대립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즉 라오스는 신

---

[27]슥 2 : 10-11, 사 19 : 21-25, 25장, 42장, 55장, 66장. 특별히 이사야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예언하고 있다. 종말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이방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이다.

[28]Hans Küng. 160.

[29]*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신성종 역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9), 251-252. Hans Kung.. Ibid., 159-160. 칠십인역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Laos*이며 이방인은 *Ethnos* 구분되어 표현된다.

약성서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에 의해 ‘그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해 주고 있다.[30]

2) 신약성서와 *Laos.*

신약성서는 Septuagint를 넘어서서 ***Laos***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이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밖의 신약 성서 문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한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하나님 백성 사상사를 돌이켜 볼 때 참으로 혁명적인 것이다. 초대 교회가 망설이지 않고 구약성서의 근본 개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 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31]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교회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잘못된 발전과 오해에 직면해 교회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주의자들에 맞서고, 고린도서에서는 열광주의자에 맞서서 교회 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중심을 차지한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와 구약성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성서에 의존하면서 교회와 회당을 극적으로 대립시킨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짓는 것은 혈연관계의 연속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유대교는 혈통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축복받았다고 선포한다(갈 3:8). 따라서 율법의 공동체

---

[30]Ibid.., 160,161.

[31]Leonard Doohan, 29. 그는 여기서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아니라, 그들이 곧 교회라고 한다. Hans Küng., 161,162.

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다.

고린도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새 백성도 옛 백성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고전10:1-3). 이로써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옛 백성 사이에 연속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고전6:18)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전6:17).

히브리서는 구약성서의 유형론적 형상에 근거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32]으로 말하고 있다. 새 계약이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사상이 교회에 이양되었다.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계약 백성의 유형론적 원형과 대조형상이 된다.[33] 이로써 도래하는 계약의 그림자와 비유의 역할을 감당했던 옛 계약은 참됨을 입증받는 동시에 지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천상의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백성을 대변하시는 참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된다.(4:14-5:10, 7:1-10:18) 따라서 구원의 주와 형제들, 아들과 아들들, 계약의 중재자와 계약 백성, 무죄한 대제사장과 죄 많은 백성은 하나가 된다.[34]

그 외의 다른 책,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 백성 신학의 고전이 된 구절(벧전2:9-10)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구약성서의 존칭들(특히 출애굽기19:6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사야43:20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호세아2:23의 내 백성)이 이방인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 이방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상과 같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고 동일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평신도와 분리시키는

---

[32]히 4:9 (하나님의 백성), 참조 히2:17 (백성), 11:25, 13:12.

[33]Hans Küng, 166. 참조 고전 3:7-4:13.

[34]Ibid., 167.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Laos*는 언제나 기독교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35] 평신도는 교회 자체이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단순히 성도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다. 성도라는 단어 안에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성도는 교회를 의미하며, 교회 안에 평신도의 교회와 성직자의 교회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3. 평신도와 사도성.

평신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음성들 중의 가장 강력한 것은 평신도의 사도직에 대한 외침이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돌연 그 과제의 거대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신도를 향하여 하나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곧 증인이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다.[36]

우리는 어디서, 어떤 한도 내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우주적인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가? 평신도가 교회 자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평신도가 사도적인 교회와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가? 평신도가 참된 교회라면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어야 한다. 과연 평신도가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는가?

1)사도성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형용사 '사도적'이라는 말은 기독교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37] 기독교의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했던 12제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열두 제자의 이름은 성서마다 일정하지 않다.[38] 막2:14에서 열두 제자가 아직

---

[35]Ibid., 170.

[36]Hendrik Kraemer,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4), 49.

[37]Hans Küng, 493.

[38]사도들의 상이한 이름에 대해 막 3:16-19, 마10:2-4, 눅6:13-16, 행1:13 비교.

사도로 불리고 있지 않다. 막6:30에서는 70명이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자리이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도가 항구적 칭호가 아니라 단지 그 때마다의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가장 오래 된 신약성서가 열두 제자가 아닌 자를 '사도'로 부르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바울 외에도 유대 기독교인인 로마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나바, 실루아노, 주의 형제 야고보 등이 사도로 불리고 있다.[39]

바울이 말하는 사도란 공동체의 사신(고후8:23 빌2:25)뿐 아니라 거의 모든 편지의 서두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말한다. 사도란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사도는 부활하신 분의 증인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그에게 자신을 살아계신 주로 계시하셨다. 둘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선교와 복음의 선포를 위임받은 자다. 복음서는 부활 이전의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마19:28)과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세우는 이야기(행1:15-26)가 있다.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이후 새로운 사도를 세우지 않고 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 17년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있었다(갈1:18-19). 그때 베드로도 보지 못하고 오직 야고보만 보았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왜 예수님은 12사도를 뽑았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선택은 예수의 종말론적 선포의 빛에서 이해될 수 있다. 12이란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속에서 새로워질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다(마19:28, 계21:24). 열둘이라는 숫자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들은 옛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면, 후대에 알려진 자들이 거의 없다. 사도행전에서 열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일곱 봉사자를 선택하면서 사도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사도 회의'의 맥락에서도 '사도'[40] 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후로는 역사의 어둠 속

---

[39]Hans Küng, 497.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롬16:7), 바나바(고전9:5이하,갈2:9, 행14:4,14절, 실루아노(살전1:1, 2:1,7절) 주의 형제 야고보(고전15:7, 갈1:19, 2:9)도 사도로 불리고 있다.

[40]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을 사도라고 말한다. 행15:2, 4, 6, 22이하, 16:4.

으로 사라져 갔음을 알 수 있다(행 16:4 이후에는 ‘사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열두 명의 동료들은 죽고 말았지만—어떠한 경우에도 열두 명의 제자에 한정되지 않는—사도직은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41]

2) 사도적 봉사.

누가복음은 최초로 사도라는 이름을 예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함으로써, 사도 개념을 그의 신학 중심에 위치시켰다. 또한 바울은 사도가 교회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부각시켜 놓았다. 사도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42]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기(마10:40, 요13:20) 때문에, 교회 ‘위에’ 존재한다. 사도는 교회의 심판에 종속되지 않는다(갈1:1, 고전4:3).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모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전15:6에 의하면 “오백 여 형제에게” 주님이 나타났다고 한다). 주님에 의해 파송되고 전권을 부여받은 자라야 사도로 불릴 수 있다. 물론 사도가 예수님과 동일한 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도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 이 전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의 인격이 고상해 진다든지, 영웅이나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배를 그의 세상적인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 뿐이며(고후4:7)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다(요15:5).

사도들의 과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고전1:17). 사도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살전2:13, 고후5:20). 사도는 지속적인 인내를 통해, 그리고 표징과 기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면서,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롬15:15이하, 빌2:17)과 하나님의 동역자(살전3:2)가 된다. 또한 신자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하며[43] 교회를 양육할 전권을 부여받는

---

[41]Ibid., 502.

[42]사도직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짐. 갈1:15, 행9:27, 막3:4, 마28:19.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교회는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면, 공동체 지체간의 송사문제에 대해, 결혼과 독신, 과부들의 생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 예배 순서, 은사 받은 자들의 봉사, 선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등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44]

사도는 교회에 대해 권위와 자유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 그 또한 주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며(고전4:4)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공동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전14:37). 그러나 동시에 항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살전2:7). 사도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롬12:7). 그의 사도직은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을 감추어야 하며(고후8:23)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고전4:8-13) 봉사직이다(롬11:13).[45]

3) 사도적인 교회.

교회는 사도의 증언과 봉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도성에서 중요한 것이 특수한 파송에 근거한 봉사라면, 사도 직무에 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직은 반복되거나 계속될 수 없다. 그러나 사도의 과제만은 계속될 수 있다. 이 과제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도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적 파송은 존재한다.[46] 사도적 파송은 주님에 의해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도적 파송에 근거한 사도적 봉사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도적 봉사는 사도적 파송에 근거하면서

[43]사도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할 권리가 있다. 고후10:13-16, 13:10, 고전11:34, 살후3:4 사도들의 교회의 양육권 고전5:3-5, 딤전1:20.

[44]Ibid., 505.

[45]사도는 공동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고후10:18, 롬15:18, 사도는 교회의 종이다. 고전9:19, 막10:44, 마24:45-51. 사도는 멸시를 받는다. 고후4:8-11, 6:3-10, 11:16-33. 사도는 봉사직이다. 롬12:7, 행20:24.

[46]Ibid., 508.

사도의 후계자들, 즉 복종하는 사도의 후계자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누가 사도의 후계자들인가? 대답은 교회밖에 없다. 전 교회가 사도의 후계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모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 안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47] 사도의 전권적인 파송이 사도들이 불러 모은 교회로 이양되는 것처럼, 사도의 전권적인 봉사도 이 사도들이 섬겼던 교회로 이양된다. 교회는 복종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후계자가 된다.

사도성은 은사인 동시에 과제이다.[48] 교회는 그의 모든 지체들 속에서 사도의 증언뿐 아니라 사도의 봉사와도 지속적인 일치를 보존할 때에만 사도를 따르는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역을 이어받아서 교역하는 동시에 교회를 연속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은 교역과 교회의 연속의 책임을 감당하므로써 사도의 전통의 계승자가 되고, 교회의 연속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성은 거듭 새롭게 발생해야 하며, 교회와 사도 사이에서, 교회의 선포와 사도적 증언 사이에서, 교회의 봉사와 사도의 명령 사이에서 수행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49]

하나님의 새 백성인 평신도는 사도로 부름 받고 있고, 지금도 사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봉사와 과제들은 몇몇의 목회자 그룹이나, 성직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하고 있을 때만이 사도의 신앙과 고백을 따르는 교회, 즉 성도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세계의 넓은 땅에 심겨진 하

---

[47]Hendrik Kraemer, 147.

[48]이장식. *평신도는 누구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9.

[49]Hans Küng., 513.

나님 나라의 자녀"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50]

4. 평신도와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당시에 만인 제사론에 대한 주장은 교직자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에 대한 반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금욕적 완전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강조하여 '전 교회의 사제성'이라는 성서적인 개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만인 제사론'이 성서적인 교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인 제사론'이 평신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명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자신들이 제사장이라면 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종교개혁시대의 만인 제사론은 평신도의 종교 또는 평신도의 혁명을 위한 근거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가족'(엡2:19)으로서의 교회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하였다. 문제는 평신도와 교직자가 다 같이 교회의 본질과 소명,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51]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라면 공동체가 교회 직무보다 선행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52] 교회론을 일종의 계급론으로 변질시킨 중세의 교회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중세 교회론의 근본적 오류는 모든 직무의 담당자가 직무의 담당자 이전에 믿는 자요 신앙공동체의 지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 있다. 모든 성직자 그룹은 먼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

1)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

[50]J.C. Hoekenkijk, *흩어지는 교회,* 김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56.

[51]Hendrik Kreamer, 102,103.

[52]Ibid., 97.

현대어로 사제는 영어 Priest, 이탈리아어 Prete, 스페인어 Priester 등으로 연장자 또는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헬라어 *presbyteros*에서 파생한 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현재적 내용은 *presbyteros*의 본래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대의 사제라는 말의 개념은 히에레우스(*hiereus*) 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 주요 과제인 종교사적 의미의 사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는 사제(*hiereus*)란 말이 교회의 직무 담당자에게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53] 유대교 또는 이방 종교에서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제'(대제사장)로 불리운다. 예수님의 선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제상이나 제의라는 개념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언자 사상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을 사제로 부른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교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정이다.[54] 직무와 공동체(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사제직, 중재직, 직무 등의 개념을 그리스도로부터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나 이방 종교들의 관점으로부터 해석할 위험이 상존한다.

신약성서는 사제와 중보자를 이렇게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사제가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 복종하는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희생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이런 사상은 신약의 봉사를 구약성서 사제직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사제직을 성취시켰으며, 이로써 폐지 시켰다.[55]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회적이며, 궁극적이고, 반복될 수 없으며, 종결적인 한 분으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희생이 충족되었으며 이로써 지양되었

[53]Hans Küng., 519.

[54]Hendrik Creamer, Ibid., 132.

[55]Hans Küng, 520.

다. 그는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유일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는 유일한 대리자, 중보자이시다.

중보자에 대한 설명은 신약의 다른 책에서 보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심적인 3구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3구절 모두 다 계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56]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항상 자신과 자신의 기관을 중보자로 생각하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물론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많은 기관들에 관해 말한다.(천사, 사도, 예언자 등등) 그러나 그들을 중보자로 부르지는 않는다.

2)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지성소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히10:19-23)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과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예수로 말미암아"(히13:15)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자신의 힘에 의한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한 제물이며, 희생 제물이 아니라(그리스도의 희생은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물이다.[57] 그러므로 믿는자가 바쳐야 할 제물은 구체적인 증언과 고백, 사랑의 봉사이다(히13:15-16). 이러한 제물이 바로 제사장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모든 믿는자 즉 평신도들이 제사장적인 과제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58] 한 분 새 대제사장의 제사직으로 말미암아 특별

---

[56]히8:6, 9:15, 12:22-24. 세 구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밝히고 있다.

[57]Ibid., 527.

[58]Leonard Doohan, 37.

한 사제 계급은 사라지고, 믿는 자 모두가 만인 사제직으로 대두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동체내의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이 교회일 수 없다. 교회는 '선택된 자들' '거룩한 자들' '제자들' '형제들'이다. 이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출19:6에서 약속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61:6)의 약속이 초대교회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신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백성들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들 모두는 근본적인 평등 속에서 서로 다른 과제와 위엄을 갖는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들 모두는 상호적인 동정과 기쁨, 도움의 행위 속에서 서로 서로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집이다. 구약처럼 선택된 몇몇 중보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엘2:28 이하) 성령이 백성 모두의 마음에 주어질 것(사44:3, 63:14, 겔36:27, 슥4:6)이라고 약속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에 따라 산다. 이것이 바로 옛 계약과의 차이이다. 성령은 단지 몇몇 예언자와 왕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 공동체에게 선사되었다.[59]

3)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들.

교회의 모든 평신도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가져온다. 이방인의 제의나, 유대교에서는 사제만이 사원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렸다.(롬5:2, 엡3:12, 히10:22)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자들에게 열렸

---

[59]오우성, "신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78.

다.(히10:22) 성령 안에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엡2:18). 믿음과 세례, 성령 받음은 하나됨 속에서 만인 사제직의 토대를 형성한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세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고 타자와 함께 하는 인간이며 타자를 위한 인간으로서 그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60]

둘째로 영적 희생이 요청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벧전2:5)이며,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롬12:1)를 드려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선포가 제사장으로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함께 바치는 봉사로 이해한다.(롬15:16, 빌2:17) 모든 기독교인은 옛 사제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러한 헌신은 자신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믿는자 누구나 사제가 된다는 것은 종교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제사장주의는 오히려 거룩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즉 세속적인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요청한다고 말할 수 있다.[61]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헌신. 이것이 신약성서의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희생제물이다. 마치 살리아흐(*Shaliach*)처럼 자신을 보내시는 왕을 위한 섬김만이 있는 것이다.[62] 그가 왕의 대표가 되었을 때, 개인적이든, 대

---

[60]J.C. Hokendijk, 168.

[61]Hans Küng., 534.

[62]R.Paul Stevens &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207. 살리아흐는 "무명"의 사신으로 대국의 왕을 대신하여 이웃 나라에 있는 속국에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는 혼자서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살리아흐는 이웃나라에 갈 때 마치 왕이 온것 처럼 대접을 받는다. 또한 대국에게 불만을 품은 왕은 살리아흐를 죽여서 보내기도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표적이든, 그는 언제나 왕의 대표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셋째로 말씀의 선포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히브리서 13:15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2:9은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라고 한다. 선포는 선한 행실만이 아니라(벧전2:12)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벧전3:15)에서 처럼, 메시지의 선포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당부하신 사명이다.[63] 따라서 신약성서에서 설교와 선포를 묘사하는 말이 – 선포하다, 선언하다, 설교하다, 가르치다, 설명하다, 공포하다, 담론하다, 진술하다, 증언하다, 확증하다, 고백하다, 인도하다, 경고하다, 꾸짖다 등 – 서른 가지도 넘는다.[64]

초대교회는 말씀 전파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외부 세계를 향해 퍼져갔다. 사도와 전도자뿐 아니라, 상인, 군인, 선원들도 복음을 전했다. 행4:31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한 교회의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말씀을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뿐 아니라 각처에 전파했다(살전1:8). 베드로는 여성들에게도 그들 자신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벧전3:1). 히브리서5:12은 모든 기독교인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선생이 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자가 – 엄격한 의미의 – 설교나 신학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영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선사된 설교의 은사라도 먼저 인정을 받은 후에 섬겨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위임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공적으로 설교할 수 없다.[65]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카리스마의 남용으

---

[63]막1:35-38, 16:15, 마28:18-20, 행1:8, 고전1:17.

[64]Hans Küng., 535.

로 설교를 특정한 직무 수행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세례와 성만찬, 죄의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66]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의해 해석되고 규정됨으로써 효율적인 선포의 행위가 되는 특정한 행위들과 결합된다. 전 교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독교인 또한 세례를 베풀 권한 그리고 가르칠 권한도 있다. 죄 용서의 권한도 – 마태복음18:18에서 암시하듯이– 모든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원래는 12 제자 사이에서 거행되었던 성만찬 축제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는 명령도 모든 교회에 위임되었다.[67]

이 말이 오늘날의 교회제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며,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2천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실행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의 법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고전10:23,24). 물론 원칙과 원리를 벗어난 전통과 교회법을 따를 수는 없다. 전통과 교회법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서 검증된 것이라면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성직자에게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도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세워져야 하며, 선교의 상황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68]

---

[65]Leonard Doohan, 63. 평신도들이 영적쇄신을 위해 많이 헌신한 교회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평신도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강력한 영적 부흥운동들은 이단운동으로 막을 내렸었다. 베긴회 수녀운동, 공동체 형제운동(the Brithren of the Common life) 그리고 피터 발도의 제자운동 등이 그랬었다. 목회자에 의해 훈련받지 않은 운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Hans Küng, 537.

[66]Hans Küng, 542,543.

[67]Melvin J. Steinbron, 40. 종교개혁의 “신자의 제사장 직” 선언은 400년 이상 단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16세기의 종교개혁시대에 교회는 평신도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현대의 종교개혁은 평신도에게 목회사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적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만인제사장 직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적 희생, 말씀의 선포와 세례, 성만찬, 죄 용서의 선포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믿는 자 상호간의 봉사와 세계에 대한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믿는 자 모두는 중보자의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든 기독교인은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69]

따라서 만인 제사장 직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증언하고, 세계에 대해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라는 믿음의 소명 속에서 본래적인 목적을 갖는다. 만인 제사장 직의 예배는 공동체 내의 예배에서, 세계의 일상생활에서의 예배가 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으며, 오직 성도만이 존재한다.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들도 다 성도 중의 하나였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에까지 이르나 모든 백성은 성인이 되도록, 목사와 예언자와 행정가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의 화신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아무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롬12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이 주신 각기 다른 선물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다.[70]

---

[68]Hendrik Kraemer. 134.

[69]"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정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2:15, 참조 살전5:5).

[70]Mark Gibbs & T. Ralph Morton, 23.

3장 신분과 직분으로서의 *Diakonia*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분석.

교회가 신학적으로 적절하게 평신도를 고찰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 평신도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교회론을 요구하는 것이다.[71]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72] 교회는 하나의 제도로서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공동체로서 들어온 것이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73] 세계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교회의 모든 표현속에 나타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어디에서 왔으며, 서로 다른 직분이나 섬김의 한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1. 교회안의 권력과 계급.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추구했다. *Ecclesia reformanda semper reforma*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교회 역시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권력과 구조 속에 안주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물론 지금도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원초적인 생명을

---

[71]Hendrik Kraemer, 51.

[72]Ibid., 93

[73]W.C.C Report, *세계를 위한 교회,*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9), 23.

꽃피우는 선교지들도 있으나, 처음 기독교의 불꽃이 타올랐던 유럽과 북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자본주의와 엘리트 그룹의[74] 구조 안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2원론적 계급을 형성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1) 교회에 주어진 과제들.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수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즉 자신이 정당화시킨 이론과 표상 그리고 자신의 형식과 법에 사로잡힌 교회를 벗어나야 한다. 교회가 주께 사로잡힌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항상 새로운 인류의 요구와 곤궁과 희망에 자신을 개방하므로 이러한 과제를 직시할 수 있으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75]

교회라는 개념은 주로 교회가 처한 시대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사, 교회사, 신학사적인 조류와 반류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하는 역사적 교회상들 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와 전망은 교회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본질(Wesen)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항상 변하는 것 속에서만 나타나며, 연속성은 항상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고, 항구적인 것은 항상 변하는 현상 속에서만 나타난다.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는 신학적 이론의 추상성이 그려내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세계와 세계사 한가운데 존재하는 실제적인 교회다.[76]

교회 개혁은 교회의 존재론적인 질문과 재검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신앙의 원초적 증언"에서 찾아야 하며 과거의

---

[74]Anthony Giddens, *선진 사회의 계급적 구조,* 장정수 역 (서울: 종로서적, 1986), 125. 요즘 유행하는 제자훈련이나 가정교회가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몇몇의 엘리트를 키워 그들을 통한 다수의 관리를 원하는 새로운 계급적 목회구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정으로 각자 각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독특한 소명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75]Hans Küng, 4-5.

[76]Ibid, 5-6.

교회를 회상하며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상의 설계가 있어야 한다. 교회의 근원적인 형태는 어떤 신조, 조직, 기구, 교파 또는 회원의 숫자가 아닌,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77]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 라는 이원론적 계급구조와 사치스러운 교회 건축 풍조로 소비주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 과거 봉건주의로의 회귀와 자본주의 상업이론에 물들어 있다. 게다가 거대하고 강력한 교회 조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관료주의적이고 교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가 지배체제로 변질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유교전통을 복음적 요소로 이해한 많은 한국교회는 아직도 남녀의 성차별을 하나님의 언명처럼 수용함으로써 복음의 내용을 오도하고 있기에, 여성신학적 해방이 요구된다. 동시에 대형 교회의 그늘 아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낙오된 농어촌 교회와 도시 개척교회의 소외와 주변화 현상은 교회의 복음적 해방을 요구한다.

2) 기구(organization)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서 떠날 때, 교회는 기관화(institutionalize)되어 간다는 것이다. 기관이란 단순히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실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영성”[78] 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하며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권위와 계급구조는 이 시대의 물질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Walter Wink가 그의 책 Naming the Power에서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모든 기구(organization)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지만 결국 기관(institution)이란 인간으로부터 초인간적인 자격을 부여받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되어 보이는 실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요소, 곧 제도의 영성으로 인간을 지배하며 노예화한다. 이것이 기관의 영성(the spirit of institutions)이며 그 영은 지배욕

---

[77]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대구: 분도출판사, 1978), 28-31.

[78]Walter Wink, *Naming the Pow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3), 135.

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다.

오늘날의 권력구조는 오랜 전통을 가진 패턴들에 힘입고 있는데, 하나는 로마의 권력에 대한 경험과 유산에서, 또 하나는 봉건적 구조에서 따른 것이다.[79] 교회는 이들로부터 관습, 명칭, 표현, 상징, 제도 등을 빌려왔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성직자들은 특권계급이 되었다. 로마의 귀족들이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평신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므로 더욱 멸시를 받았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직 제도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성직자 집단으로 변신했다.[80] 교회 자체가 제도와 조직인 것처럼 교회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81] 이렇게 기관화된 교회는 성직자와 교회를 동일시하게 되었고 사회적 권력을 향유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적 요소를 압도해 버렸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명시적 상징)이며 도구(매개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취적이고 성례적인 실현이다.[82]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군중(mass)이나 단순히 나(I) 혹은 우리(we)의 집합체가 아니다. Töennies가 분류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서 교회는 당연히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는 자연적이며 전통적이고 나면서부터 권위와 불평등 까지도 이의 없이 자연의 질서인 양 받아들인다. 자신의 개성이나 나(I)보다 우리(we)를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 사람들은 하나의 비젼과 공통된 종교에 의해 결속된다.

그러나 이익사회는 개인이 집단에 선행한다. 자유로운 자기 선택에 따라 합

---

[79]Hemut Gollwiter, *자본주의 혁명,* 윤응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74,75.

[80]Hendrik Kraemer, 70.

[81]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75.

[82]Leonardo Boff, *교회 : 카리스마와 권력,* 김쾌상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12.

리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이다. 권력과 명성에 있어서 경쟁, 시기와 투쟁이 생겨난다. 자신의 성공과 승진, 출세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결속은 순전히 법적이며 계약적인 것일 뿐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수량화되고 신뢰와 상호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83] 이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이익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사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배우지 못한 평신도들이 주변화되고 잊혀질 수 밖에 없다. Robert C. Linthicum은 도시 목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목회로서 다음 3가지 유형의 교회를 제시한다.[84] 그가 언급하는 도시 혹은 사회(society)란 공동체와 같은 뜻이다. 첫째 유형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the community)이다. 이런 교회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동체 안에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스스로 고립된 교회이다. 둘째는 공동체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교회(the church to the community)이다. 이런 교회는 도시나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그러나 모든 결정권은 교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임한다. 셋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the church with the community)이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교회 스스로가 공동체에 성육신한 교회로 믿고 공동체의 요구를 교회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기관화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국가일 것이다. 국가는 정치적인 단체만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국가는 교육, 예술, 종교, 경제, 방위, 행정, 법률 그리고 그 밖의 문화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방향 짓는 중심이며 Hegel이 말한 것처럼 "신적 존재"[85]가 되어 있다. 국가들은 애국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말한다. 이는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

[83]Gregory Baum, *Religion and Alination* (New York : St. Paulist Press, 1975), 61-75.

[84]Robert C. Lithicum, *Empowering the Poor* (Monrovia, California : MARC press, 1991), 21-26.

[85]Paul Tillich,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59.

이다. 결국 국가 숭배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관의 영성이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영성이며 수많은 국가들 속에서, 역사적으로는 근대국가들의 식민주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구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그리고 현재의 각 나라의 군사 독재주의 등이 바로 사탄의 영성이며, 기관화의 영성이다. 이들은 이런 여러 국가들 속에서 정교하고 화려하게 자기 은폐를 통해 공동체 속에 기생하고 있다. 교회도 힘이 생기고, 기관화 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가 힘없는 회중을 무시하게 되면, 엘리트 중심의 교회로 변질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일반 대중에 대한 목회적 접근은 그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다.[86] 이러한 교회는 왕과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고 독재자와 함께 조찬에 참석하여 권력의 지지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때 기독교 왕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폭력, 즉 전쟁을 신성시하였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종족과 문화를 정복하고 파괴하는데 영웅적 역할을 담당했다. 교회법 및 군사법에 의하여 부과된 교회의 권위, 종교재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투적 용어까지도 승리감에 도취된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교회는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승리감에 도취된 전투적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생산된 예수의 초상화는 가시 면류관 대신에 열두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을 썼고, 홍포는 황제의 갑옷으로, 갈대 지팡이는 황금 홀로 바뀌었으며, 원수의 목을 밟고 서 있는 예수 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은 식민지 정복과 함께 선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교회는 교리와 신조에 충성하도록 묶여졌고,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이중구조,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틀 속에 억류되었다. 이러한 분파주의적 사고는 "지배를 쟁취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사고"[87] 이다. Augustine과 Luther가 주장한 두 왕국 신학은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두 왕국, 곧 세속 왕국과 영적 왕국에서 세속 왕국은 법과 검으로 다스려지고 영적인 왕국은 복음과 성령에 의하여 다스

---

[86]Jos Miguez Bonino, *Toward a Christian Political Eth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74.

[87]Helmut Gollwitzer, 21.

려진다는 이론이다. 그 결과 소위 두 왕국 사상은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성서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교회의 원형을 찾아서.

철저한 인간 해방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한 많은 한국 교회가 소수의 힘이 주도하는 하나의 지배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누구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데 있지 않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실천하는 생활"이다.[88] 그러므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서열의식은 교정되어야 하며, 전권을 한 손에 거머쥔 카리스마적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Anton 경의 말을 기억해야만 한다.[89]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형제자매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초기 공동체에서 나타난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원형을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의 초대교회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도 헬라파니 유대파니 해서 파당이 있었다. 얼마 안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있었다. 박해가 오자 그들의 유무상통하는 생활도 끝나버렸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박해를 통해서 세상 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초대교회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이다. 그 증거로는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제도상의 서열 발달, 교회의 직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 안수식 규정, 후계자 계승 문제, 전통, 그리고 율법 등의 발전이 있었다는

---

[88]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4.

[89]Allan Aubrey Boesak,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김민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56.

것이다. 이것이 초기 카톨릭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90]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나사렛 예수의 공동체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리와 열심당원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며, 정치와 사상과 민족이라는 혈통을 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3:35)는 말씀에서 처럼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그리고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91]

2. 평신도와 성직자 구별에 대한 역사적 소고.

전술한 평신도의 사도성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위치가 고유하며 전혀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단순한 평신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사도들이 선생이신 주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세속적'직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이후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때 유대의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agrammatoi*) 범인(*idiotai*)'(행4:13)이었음을 알고 놀랐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증거와 활동을 통해 시작되었다. 신약성서에서(특히 고전12장) '봉사(디아코니아)'는 대부분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은사)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도들과 예언자, 교사, 전도자 들은 평신도였다는 사실이다. 바울의 친구들의 대부분은 헌신적인 평신도들이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는 무식한 자나 약한 자, 천한 자들을 빼고서 쓴 것이 아니라 전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또한 이러한 평신도의 일꾼들이었던 것이다.[92]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

---

[90]Carl E. Braaten, 198-199.

[91]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30.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인가?

1) 헬라적 이중 구조.

헬라적인 이원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먼저 언어와 호칭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라이코스(*Laikos*)는 신약성경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Laos*)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 1세기 말부터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라이코스(*Laikos*)가 교회 속에 갖혀진 신분으로서의 조직화되고 정식으로 임명된 교직자라는 것이 '라오스' 즉 일반 회중과 대립된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93]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경건과 활동을 가진 거대한 조직체가 되었다. 이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교직자를 두었고, 결국 평신도와 교직자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는 헬라적인 2원론이 반영된 것이다. 헬라의 도시국가들은 도시 행정체제에서 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클레로스(*Klelos*) 즉 장관이라는 것과 라오스(*Laos*) 즉 시민이라는 것이다.

이 '*Klelos*'라는 말이 Clergy(목사)라는 말의 어원이다. 또한 '*Klelos*'는 구약성서에서 레위나 제사장들에 대해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배당된 분깃'(민수기18 : 20)이라고 표현한 의미와 결부되어 있다.[94] 이런 이유로 교회 집회의 중심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직'이 최고의 지위로 발전하게 되었고, 교회는 성찬식을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점진적으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례전의 은총을 기르는 것이 영생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 구조를 더욱 2중적으로 만드는 것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안에는 *Klelos*

---

[92]Hendrik Kraemer, 19,20. 행18:26, 21:9, 롬16장 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성들이 사도로 불리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3]Paul Stevens, 30.

[94]Hendrik Kraemer, 54.

(목사)와 *Laos*(평신도)라는 말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말이다.[95]

헬레니즘에 바탕을 둔 서구 사상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객 도식의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론의 구조는 한결같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리고 귀족과 천민, 남성과 여성을 우열의 틀로 구성했다. Augustine의 철학을 그대로 섭렵한 Thomas Aquinas는 여자의 창조된 목적을 생식 능력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의 열등함을 확고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러한 이원론의 구도는 기독교 성서해석에 기본 틀이 되었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신학 사상이 복음인양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힘을 가진 남성과 힘없는 여성, 힘을 가진 엘리트 그룹과 힘이 없는 평신도와 같은 분리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는 이원론에 의한 은폐되고 잘못되어 온, 성직자와 평신도, 거룩한 남자와 복종해야만 하는 여자 와 같은 이원론을 깨트리고 교회를 해방시킬 책임이 있다.[96]

그동안 교회가 이원론적 사상의 근거를 성서에다 두고 성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착화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성서신학의 발달로 그동안 교단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사용해 왔던 성경구절들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지면서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전11장 2-12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이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나, 고전14장 34-35절에서 여자는 허락없이 회중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 또한 엡5장 21-33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골3:18,19). 딤전2장 9-15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라는 구절을 들어 교회안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로마서 16장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여성의 지도력 논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26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95]Ibid., 55.

[96]Leonardo Boff, 66,67.

안부를 전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기간 로마서의 진정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본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16장이 진정한 로마서의 부분인 것이 증명되었다.[97] 뵈뵈는 교회의 지도자이며 사도들의 후견인, 보호자로 인정된다. 자매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불리어지며, 유니아는 그의 남편과 함께 여 사도로 인정받는다. 교회안의 이원론이 남녀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한 남녀가 구별을 넘어 차별로 나아가게 되었다. 남녀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그의 대원칙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11절(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과 같은 원리 아래서 해석할 때 올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성경의 본래적 의도를 성경학자 김세윤은 바울의 사상을 설명하고, 사본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98]

성경은 결코 성직자나 평신도, 남자나 여자를 거룩과 세속으로,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로 나누는 이원론적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된다.

2) 초대교부 시대의 교회.

초대 교부들은 종종 모든 그리스도교 성도들이 사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초기 4세기 동안에는 많은 지방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새 감독을 선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 현저한 예로서 Augustine이 있다. 그는 일반 회중에 의하여 감독의 자리에 취임하도록 강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사는 보다 '제도적인 교회'로 흘러갔다. **Origen**이야말로 *Charisma*(영적은사)적이며, 제도에서 벗어난 마지막 스승이었다. 니케아 회의는 교회질서를 말하면서, 성직의 질서를 규

[97]장동수, "여성 논쟁 본문의 사본학적 탐구," *목회와 신학,* 2004년 9월호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4), 207. 예일 대학의 Harry Gamble은 1970에 발표한 논문에서 초기의 사본들을 다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이 로마서 16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98]Ibid., 204-207. 김세윤 교수는 그의 책,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에서 한국교회가 성경의 사상이 아닌 기존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운영함으로 이원론적 사상이 더욱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며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하나님의 위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정했고, 성직자는 '영적' 인간으로서 모든 사물을 심판할 수 있으나, 그들 자신은 아무에게도 심판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로마 교회의 지도를 받은 서방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계급에는 둘이 있다"고 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함한 성직자와 평신도 라는 분명한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하는 한계선은 '안수' 라는 것으로 형성되었다.[99]

동방교회는 어느 정도 서방 교회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를 '성례전적인 사랑의 통일체'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방교회의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훌륭한 평신도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성례전에 대한 깊은 경외감에서 동방교회 역시 '거룩한 신비'를 다루도록 부름 받은 성직자의 지위를 강조하게 되었다. 결국 예기치 못한 결과로 평신도의 지위는 낮아지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대립이 거룩과 세속의 대립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결국 성직자는 성례전의 집행과 가르침, 지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평신도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교훈과 지도를 받는 순종자로서만 규정되게 되었다.[100]

결론적으로 이런 계급적 교회 형성은 세속에 대한 신성한 것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또한 평신도는 세속적인 이 세상 질서에 속해 있으며,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직업, 이 세계와 자연적인 인간관계 같은 것들의 가치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 되었다. 물론 수도원 운동이나 탁발 수도회, 방랑 설교자, 앗시스의 프란시스 같은 평신도 운동이 있었으나, 너무나 미약한 운동들로 끝났다.

3)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종교 개혁자 Calvin은[101]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가장 저명한 자력으로 유명

[99]Paul Stevens, 30. Paul은 구약의 제사장 지도 체제를 신약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경건주의 자들의 영향으로 성례주의(Sacramentalism)가 더욱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생겨났다고 본다.

[100]Hendrik Kraemer, 58.

[101]Ibid., .25,26. 칼빈은 그의 편지에서 "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바와 같은 보통 평신도(laicus)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라고 했다. 그는 M.A.(문학석사)이며 Lic. of Law(법학사)였다. 그는 신학적으로 전혀 독학을 한 평신도 신학자였으며 교부들에 관한 그의 넓고 정확한 지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제네

해진 평신도 신학자의 한 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저작 '기독교 강요'는 잊을 수 없는 평신도의 저작이며 결코 직업적인 신학자나 교직자의 작품이 아니었다.

Luther의 교회 개념은, 특히 그의 초기 저작에서 교회의 계급적 개념에 대해 정면으로 공박했다. 그는 '크리스챤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사제(성직자)이며 사무에 관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 하등의 구별도 없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제 또는 감독, 교황으로 성별될 수 있다"고 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만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에 의해 '교역자'(minister)로 선정될 것이다. 그들은 문화적인 의미의 사제도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역자'(ministry)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무 –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다루는 것, 죄를 매고 푸는 것, 중재하는 것, 교리를 판단하고 영들을 판단하는 것 등은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102]

로마 카톨릭은 니케아(Nicaea) 회의 이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성직의 질서를 규정(법령 5와 18)하는 법령을 규정함으로써[103] 우월한 계급으로서의 성직자와 열등한 계급으로서의 평신도라는 구분을 교회 법으로 정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계급적인 조직이나 성직자들(Clergy) 자체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을 철폐한다는 원리를 주장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성직자 제도를 다시 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104] 로마 카톨릭은 봉건적, 귀족적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루터파는 봉건 영주 제도, 칼빈주의는 시민적 도시 사회에 의하여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105]

바에서 설교자로 취임하게 될 때 안수 받지 않고 그 지위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신기한 일이다.

[102]Paul Stevens., 105.

[103]Hendrik Kraemer, 57.

[104]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30,31.

[105]Hendrik Kraemer, 72.

Calvin의 개혁도 교회를 또 다른 기관과 구조 속에 넣고 말았으며, 힘이 없는 회중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교회로 방향을 바꾸었다. 칼빈주의와 장로교 역시 상류층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종교로 변했다. 상층 구조를 지지하는 이들은 불의와 불평등을 만드는 구조 악들에서의 해방보다는 사치와 방종, 그리고 정욕과 향략으로부터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106]

3. 세례와 안수.

오순절 이후에 시작된 교회에서는 사도들 역시 성도 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았고 '세례'이외에 어떤 특별한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제도에 의해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또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사역 즉 목회를 한 것이다. 그 사역은 설교자로서,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사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가로서 또한 섬기는 자로서 봉사(*diakonia*)를 한 것이다.[107]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봉사'의 인침을 받도록 세례를 받았다면 목회자의 직무나 평신도의 직무나 다 같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재료인 것이다. *diakonia*(봉사)는 여러 가지 형태와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소명과 분야가 있는 것이다. 권리와 지위라는 문제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될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권리와 지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봉사와 사귐(*koinonia*)속에 궁극적인 근거를 가질 때만 적절한 위치를 갖는 것이다.[108]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초대교회의 교역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기록은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의 교역자의 종류와 교역자의 자격과 신분을 잘

---

[106]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 Row, 1975), 41.

[107]이장식, *평신도는 누구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8.

[108]Hendrik Kraemer, 171.

설명하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교역의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다(임명).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으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따로 세워서 선교를 하게 했다(행13:1-3). 이때 바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예언자들과 교사들도 다 평신도들이었다.[109]

1) 세례의 기원과 의미.

세례의 뿌리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찾을 수 있다.[110] 복음서들도 요한의 세례를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세례의 동인은 세례 요한의 세례 속에서는 종말론적 기대에서 시작한다. 요한에게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세례는 한 번 주어지는 것이며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종파를 설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백성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례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례는 지금도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이해되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행2:36)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의 전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회개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헌신하고 부활하신 주께 자신을 맡기며, 그의 지배와 보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권위와 위임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111]

위와 같은 세례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유유상종하는 인간들의 자연적 군집욕

---

[109]이장식, 29.

[110]Hans Küng., *교회.* 289.

[111]W. G. Kümmer, *주요 증인들에 따른 신약 성서신학.* 박창건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3,34.

구와 협동욕구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개인의 결단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계시되며, 인간들은 모두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선다. 낮고 천한 사람들, 높은 자나 낮은 자,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할례라는 옛 계약의 표지가 아니라, 세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골2:11)가 되었다. 이렇게 세례는 주의 몸의 지체가 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112]

세례 받는 자는 주의 이름 안으로 '잠기어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향해 '세례받게'된다.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었고, 주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지배를 위한 신앙의 결단으로 부르는 음성이 다가오며, 주의 이름 안에서 모든 율법성에 맞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그의 뜻을 이루라는 요청이 인간에게 들려진다. 따라서 주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세례 형식의 의미이다.[113]

세례는 단순히 교회 가입식의 절차가 아니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아 살겠다는 선서식이며 동시에 성도에 대한 교역자로서의 안수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안수식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임명식이며 안수식이다.[114]

2) 세례와 신앙의 관계.

세례는 회개와 신앙으로 부르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전체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

112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 200.

113Hans Küng, 293.

114이장식, 32.

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와 회심, 세례와 신앙은 통일을 이룬다. 또한 세례는 신앙을 입증해 주는 고백의 징표 이상의 것이다. 세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와 신뢰, 헌신과 고백에 대한 개인적이며 가시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시적인 은혜의 징표, 즉 믿는 자에게 선포되고 선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화되는 것이다.[115] 따라서 기독교 세례는 신앙하고 고백하는 인간의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데 있다. 로마서6:3-6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의 신학적 해석은 새로운 생명은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현재화되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가 신앙에 의한 현재화가 없이 마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주술적 행위로 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광신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이름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하고 말았던 광야 세대를 환기시키며(고전10:1-10)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라고 하며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고후5:17)이다.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하여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그는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성자 예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예수의 소유로 봉인됨으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례에 의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상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심화시키고 있다.[116]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이것은 자연적인 모든 차이를 지양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117] 또한 갈라디아 3:28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표현보다 세례 받은 자들의 결합과 통일을

[115]Hans Küng., 295.

[116]G. W. Kummel, 253.

[117]Hans Küng., 297.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가시적인 교회가 출발되어졌으므로, 모든 교회는 각각 다른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을 하는 경계선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성직자나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타종교와 성경의 안수.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가르는 벽으로 안수가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소명예식으로 보았지만, 점점 평신도와 성직자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안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 종교들이 안수(ordination)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 힌두교나 불교, 중국의 도교, 일본의 신도에도 안수가 있다. 그들의 안수에 대한 해석은 거의 비슷하다.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사람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되든지, 특별한 힘과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안수를 받아서 악귀를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믿었다.[118]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안수는 이런 의미와는 다르다. 성서에서는 안수에 대해 ordain과 ord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은 '질서를 만들다, 정렬하다'의 뜻이다.[119]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11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21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 성서에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안수가 행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안수의 사용법이 있다. 희생 제사 절차의 관계에서 동물을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였다(출29:10). 형벌의 관계에서는 신성모독자를 백성이 돌로 치기 전에 증인들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레24:14). 축복과 관련해서는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했고(창48:14)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했다(마19:15). 치유와 관련해서는 예수님도 행했고

---

[118]Mircea Eliade(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McMillan & Free Press. 1987), 97-107.

[119]*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Ⅳ (Chicago: The Howard Severance Co., 1950), 2199-2200.

제자들에게도 위임했다(막5:23). 또한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확인하였다.(행8:18) 마지막으로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했다.[120]

4) 기독교 안수의 의미.

기독교의 안수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직책을 위임하는 유대적 개념에서 나왔다. 이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승되고 열두 사도들과 70인에게 전수되었으며, 전체 교회로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안수가 목회 사역에 대한 절대 불가결한 은혜의 통로가 아니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연대성의 표상이며, 중재 기도의 상징적 제공과 외부적 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의 기능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회중의 모든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고 봉사적 기능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세례는 성도라는 신분을 인식시키는 수단이었으며, 안수 역시 다양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다.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므로 세례가 성도 사이에 특별한 위치에 세우는 예식이 아닌 것처럼, 안수 역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예식이 아니다. 그러나 안수가 교회 안에서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가 되거나 엘리트 그룹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교회 안에서 소외와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안수의식은 필요하다고 본다.[121]

안수는 수천 년 동안의 유대전통과 그리스도교에서 지켜 온 전통의 전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일시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귀중한 유산과 전통을 항상 새롭게 이해하고 목회 사역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22] 물론

---

[120]정인찬 편저, *성서 대백과, Vol. 7* (기독지혜사, 1980), 114-115. 민27:18, 신34:9(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 행6:6(사도들이 7집사들에게 안수 함), 딤전4:14(디모데가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음) 딤후1:6(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함)

[121]*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Ⅳ.(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542-543.

[122]R. Paul Stevens, 24.

본고에서 '전통'을 말하는 것이 교회 존립의 근거를 교회 전통에서 찾거나 또한 전통으로 환원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전체 계시를 두 가지 자원으로 보며 하나는 성서요 또 다른 하나를 전통속에 계승되어 있다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이 가진 모든 전통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단절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Gerhart Ebeling과 Ernst Käsemann의 주장과 같이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의 연속성을 단절해 버리려 시도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의 제도적인 전통이 복음을 압도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시정하려고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3]

기독교의 전통은 안수 예배(an ordination service)를 교회의 사역과 일반 예배에 앞서 하나의 영감적인 교회의 본성(nature)으로 보았다.[124] 그러므로 이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인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목회에 권위를 주고 훈련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소명에 대하여 확인하는 교회의 본성이다.

또한 안수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증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계약행위이다.[125] 그러므로 안수 받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자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복종이 전제되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안수는 본인과 공동체의 관계성을 일깨워주는 각성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징표가 된다.[126] 안수 받고 하는 사역과 안수 받지 않고 하는 사역의 차이는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안수 받은 사람의 준비 과정과 책임, 그리고 기능의 구별을 보여준다. 목사 안수 만이 아니라, 장로, 집사의 안수도 그 직분과 기능에 상응하는 자기 소명과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안수는 준비 과정을 마친 사람이 직무를 수행

---

[123]Carl E. Braaten, *역사와 해석학,* 채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194-195.

[124]Richard Stoll Armstrong, *The Pastor-Evangelist in Worship*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6), 77.

[125]Everett F. Harrison,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508,509.

[126]안종철, *열린 목회와 예수 공동체* (서울: 쿰란출판사, 1997), 196.

하기 위한 하나의 확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안수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교회는 *Diakonia* 이다.

세계의 구원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역사 전체를 정당하게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교회의 모든 표현 속에 나타나 있어야만 할 것이다.[127]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유'라는 것은 자기 관심과 자기 중심주의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자기 중심주의야말로 근본적인 죄이며 인간생활의 모든 타락의 뿌리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세계 중심적인' 존재가 됨으로써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128]

1) 부름 받은 자로서 성도의 위치와 소명.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창조한 자기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근본 모습은 선교적이요, 목회적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소명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평신도는 교회와 세계 안에서의 참된 위치와 소명을 자각하고 교회의 선교적 존재와 사명의 중요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잠재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선교이다 라는 것과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다른 것처럼, 교회는 섬김(*diakonia*)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교회는 섬김(*diakonia*)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129]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적, 사도적 면모

[127]Leonardo Boff,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109.

[128]Hendrik Kraemer, 144.

는 이런 의미에서 봉사(*diakonia*)적이다. 그 이유는 신약성서를 통하여 *diakonia*(봉사, 교직, 섬김)가 중심 사랑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전체의 관계 때문이다.

*Diakonia*는 본래 식탁에서 급사로서 일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내의 정신과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말로 만들었다. 우리 삶의 전체가 디아코니아의 원칙 밑에 놓여있다. '*diakonia*'는 흔히 'ministry'로 번역되고 있으나, ministry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또는 종교적 연상을 피하기 위해, 봉사 정신(servantship)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공동 사회 형성에 공헌하는 모든 활동과 기능을 '디아코니아'의 규범 밑에 다루고 있다.[130]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자들(*diakonoi*)이며,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minister' 들이다(엡4:11-12 참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이에 구두점이 없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어, 봉사(*diakonia*)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은 성도를 말한다.[131]

사도 바울은 고전12:4-30에서 영적인 능력과 은사의 표현을 '여러 가지 디아코니아'로 보고 있다. 바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의 역사는 '화해의 직무'이며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diakonoi*'(종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diakonoi*이다.[132]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diakonoi*' 또는 교직자(minister)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성도'(즉 교회의 회원)라고 불리움으로써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의하면 성별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전체는 *diakonia* (ministry)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봉사적 직무(*diakonia*)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봉사적 직무

[129]Ibid., 151.

[130]J. C. Hoekendijk, 167.

[131]Paul Stevense, 22.

[132]Hendrik Kraemer, 155.

(ministry-*diakonia*)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목사의 직무와 평신도의 직무는 각기 다른 분야와 소명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같은 '*diakonia*'의 두 면에 불과한 것이다.[133]

2) 그리스도의 *diakonia*와 성도의 *diakonia*.

그리스도의 봉사(*diakonia*)는 그 자체로서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고' 상호간에 또 이 세계에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Ministry)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의 '명예'와 '영광'은 이 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세가지 직무' 라는 교리가 있다. 즉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며 교회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기능들은 그리스도의 직무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교회와 세계와의 연대 관계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를 신약성서의 빛 가운데서 해석해야 한다. 복음서는 예수를 선지자나 제사장, 왕이라기보다 분명히 '*diakonos*'(종) 라는 사실에 근본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의 명칭도 '*diakonos*'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귀들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이러한 기능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은 *diakonia*라는 관점에서만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134]

그리스도의 존재와 의미를 반영하는 구절들은 이것을 분명히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diakonos*)함이라"(마20:28)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doulos*)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단언한다. "나는 섬기는 자(*diakonos*) 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22:27). 가장 인상적인 증거로

---

[133]Ibid., 157,158.

[134]김흡영, "평신도 신학의 과제"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한국 교회의 미래와 평신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83.

요1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그러므로 '*diakonia*'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도 물론 *diakonia*이어야 할 것이다.[135]

3) 구원과 디아코니아.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응답이며 이것은 곧 종교적 고백인 동시에 윤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디아코노스 곧 종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 안에서의 주인이시다. 그가 또한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의 디아코니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는 이 세계 안에 확립되었으며 또한 활동하고 있다.[136] 전술한 마태복음 20장28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diakonia*)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섬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노예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죄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하나님과 투쟁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외적인 부당한 힘에 속박된 노예 상태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힘들'로 부터의 해방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하고 그리함으로써 인간의 개인 생활이나 집단 생활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생활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봉사(diakonia)와 직무(ministry)에 관련되어 디아코니아요 미니스트리인 교회는 그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증거하도록 명령 받고 있으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137]

---

[135]Hendrik Kraemer, 162.

[136]김흡영, 281.

[137]Hendrik Kraemer, 166.

5. 구원과 프락시스의 2원론.

영지주의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또는 초대교회와 영지주의자들과 어떤 긴장관계에 있는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긴장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영과 육,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등.[138] 이러한 2원론적 구분은 당시의 세계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1) 다양한 세계관들.

고대인들은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성서의 기자들에 의하여 묘사된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모라, 이집트,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천상적인 것들과 대응하고, 천상에 있는 것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대응물이 된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지키는 천사들이 땅에 개입하게 된다.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연결된 세계관이다.

또한 영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인간의 실존은 영과 육으로 이분된다고 본다. 이런 표현에서 창조된 질서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세상의 삶이란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그리고 불안정한 것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인간의 육체란 형벌과 포로 생활이요, 오염과 유혹의 세상이다. 이런 사상을 따르는 분파가 영지주의, 말키온주의, 신플라토니즘, 그리고 성(sex)을 보는 입장에서는 청교도주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39] 영지주의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관을 따르면서 대부분 세

---

[138]요일4:1-3, 고전8:1, 13:18, 딤전6:20, 딛1:14.

[139]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3-6. 이 외에도 물질적 세계관, 신학적 세계관, 통합적 세계관이 있는데 계몽기에 나타난 무신론적 세계관과 물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신학적 세계관,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나, 과정철학, 새로운 물리학의 반영으로서의 통합적 세계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상에서의 의무 즉, 결혼이나 자녀출산 같은 것을 거부하는 분파들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친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한복음과 영지주의의 특별한 관계는 요한복음의 반영지주의적 신학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요한의 공동체는 이 세상이 이원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40]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2세기 이후에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 이원론이 교회의 신학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영지주의 이원론과 교회의 이원론이 동질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고의 틀은 같은 것이다. 이원론은 분명히 유대적이거나 성서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헬라철학의 플라토니즘에 근거한 것이다.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은 헬라 사상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2)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원론.

Augustine의 기독교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은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왜곡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교회 조직과 구조 역시 Augustine의 이원론적 신 플라토니즘에 근거하고 있다. 성과 속,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영과 육,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같은 분리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관의 혼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분리한 교회의 계급적 정치체제는 비성서적이며 헬라 철학의 소산물이다. 서구 신학의 이원론은 교회의 이데올로기[141]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출발점은 황제 콘스탄틴이 죽은 후 제국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분할

. [140]Rudolf Bultmann, *The Gospel of John.* trans. G. R. Beasley-Murry, R.W. N. Hoare and J. K. Riche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1), 7-9.

[141]Gregory Baum, 34-37.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진리에 대한 곡해이며 지배 집단들이 권력과 특권을 정당화시키고 권력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관된 사회악을 수용하게 하는 정신의 한 상징적 구조이다. 즉 정부가 통치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일련의 상징적인 장치가 된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문화는 물론 넓게는 종교 그리고 지배 철학까지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데올로기란 지배적인 가치를 승인하고 사회에서 권력의 자리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의 폭로를 신학의 과제로 생각하고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나의 것과 다른 어떤 의견이라는 반대 의견을 함축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계승되었으며, 이들과 감독들 사이에 힘을 장악하기 위한 암투와 긴장이 계속되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기독론 논쟁은 황제들의 지지와 반대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성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는 얼마 전까지 핍박자였던 황제의 손에 의해 다시 합법적으로 조종되고 있다.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자 기독교는 낡은 사회 관습의 개선과 사회적 불의에 도전하는 것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노예제도, 불의, 부의 불균형, 전쟁 등을 인간의 죄악상태에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자연법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회는 현존의 제도와 교회의 이상 사이에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수용하였다."[142]

이렇게 제도화한 종교에서는 고착적인 승리주의(Static triumphalism)에 빠져 "예언자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다.[143]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하나의 제도이기보다는 운동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제국의 법률, 관구와 교구 조직, 관료적 중앙 집중화, 직위 및 호칭의 상속자가 되어버렸다. 교회는 권력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교회는 권력 없는 공동체(평신도)와 함께 권력을 가진 공동체(성직 계급)의 이원론적 구조로 이해되었다. 교회가 행사하는 권력은 제국이 수여한 권력이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교권주의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실망시켰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의 정신이 역사의 뒷전으로 숨겨지고 말았다.[144]

3) 오늘에 주어진 신학의 과제.

이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학을 한다는 것이 실제와 이론을 나누는

[142]Reinhlod Niebuhr,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병섭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2), 93.

[143]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6-18.

[144]Reinhold Niebuhr, 89.

이원론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자신을 합리와 또는 이데올로기화하는 것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자기 만족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과 계급을 위해 힘의 의지로 사용했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 터 위에서 역사적 사건을 현재화하는 작업을 요청한다. 신학의 현재화는 단지 현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고통에 대한 참여와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한 항의"[145]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신학은 상황과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가 되는 실제적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제국의 이데올로기화 했을 때, 신앙과 삶은 이원론으로 분화되어갔다. 구원은 죄를 전제로 한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 성서가 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죄의 현실성이 입증된다. 성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은 온 인류에게 퍼졌다(롬5:12)고 말한다. 개인적인 죄는 집단적인 죄를 초래했다. 이처럼 죄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적이며 더 나아가 죄가 집단 행동의 논리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적이다.

Costas가 "성문 밖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우주적이다. 그러므로 순전히 개인적인 구원, 또는 단순하게 사회적인 구원만을 주장할 수 없다.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롬8:22)에게 구원이 이르러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義)의 실현과 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와 해방의 능력은 개인과 사회를 모두 변화시킨다.[146]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상숭배, 불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회 스스로가 "복음에 자신을 맡기며"[147]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

[145]Jürgen Moltman,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차옥승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9.

[146]Orlando E. Costas, *성문 밖의 그리스도*, 김승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70.

[147]Ibid., 75.

길을 따라야 한다는 프락시스(praxis)[148]의 요청이다.

프락시스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된 행위이며, 인간들의 관계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타인 앞에 존재하는 현실적 방법이다. 히브리인-기독교인들의 전통에서 프락시스는 대면 관계(face-to-face)로 표현된다.(출33:11, 신34:10, 고전13:12)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실천적 관계로 마주 대하는 실천(praxis)의 현존 안에 있을 때, 그(he, she)는 나를 위한 인간이 되며, 나는 그(he, she)를 위한 인간이 된다.[149] 바로 이와 같은 관계속에 있는 공동체가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4) 신학적 사유화(privatization)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 공동체 자체와 그 공동체 생활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이렇게 계속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세상에 보여진다. 그러므로 프락시스는 신학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다. "참된 가르침은 참된 실천으로부터 나오고 결정되기 때문이다."[150] 이런 이유로 신학의 해방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평신도의 생활경험과 신앙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조가 계급 의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낡은 틀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평신도를 중심한 민중,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 뿌리를 둔 새로운 공동체, 공동 책임의 수평적 관계와 형제자매 공동체로 출발해야 한다. 교회의 성육신의 길은 가난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연대적 삶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은 세계에 대한 지배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151] 교회의 참 모습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성도의 진실한 교제

---

[148]Enrique Dussel, *Ethics and Community*, trans. Robert R. Barr (Orbis Books, 1988), 9.

[149]Martin Buber, *나와 너*. 남정길 역 (서울: 전망사, 1980), 75.

[150]Ibid,, 225-226.

[151]Joachim George Piepke, *브라질 바닥 공동체,*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90.

와 상호 지원, 복음이 전하는 해방의 환희를 소유하고 "구성원들의 평등성"[152]을 실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서가 우선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것은 애굽의 압제라는 역사적 체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사로 볼 수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 이니라"(출22:21). 학대하다(*yanah*)라는 동사는 강자가 약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약자들이란 고아와 과부, 이민자와 극빈자, 병자와 노예들, 한마디로 민초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실현화(praxis)하는" 것이다.[153]

기독교의 구원에는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 영적 구원이나 육적 구원 같은 이원론은 있을 수 없다. 죄의 본성을 개인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로 엄격하게 갈라놓을 수 없듯이 구원 역시 전 인간적인, 전 사회적인 것이지 결코 부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됨과 신학, 그리고 기독교의 참된 구원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Praxis에 두어야 한다. 신학은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은 인간의 삶속에 그 틀을 갖는다. 신앙이란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참여하는 종교 전통과 신앙 공동체의 활동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가장 중대한 왜곡은 복음의 사유화였다.[154] 이렇게 사유화된 기독교는 복음을 과도하게 개인적으로 해석했고, 인간의 사회 질서와 경제 조직을 '세분화(atomization)'하였다.[155] 예수님은 구령사업만을 위해 이 땅에

---

[152]Leonardo Boff, *새로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17.

[153]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대구: 분도출판사, 1979), 70-71.

[154]Gregory Baum, 24,25.

[155]Ibid., 196.

오지 않았다. 예수의 구원은 인간 생활의 구조와 근본적인 가치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신학이란 기독교인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교회의 신앙 고백이 사회와 함께 구체적인 사회 실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돕는 일이다. 따라서 신학은 '프락시스의 반영'이다.[156]

지금까지의 신학이 계시와 전통만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가야 할 것이다. 신학과 신앙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의 장소로서 그때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사명을 갖는다. 세상과 소원해진 신학은 삶과 현실의 소원(疏遠)을 뜻하며 역사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역사적 인간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학과 신앙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자율적 임무를 갖는다.

[156]Ibid, .195.

4장. 평신도와 성직자의 계급구조에 대한 정치, 경제적 분석.

초대교회가 지나고 4세기부터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생기면서 계급과 차별이 생겨난 것을 살펴보았다. 서구의 역사에서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그 영향은 정치와 경제, 사회구조에까지 퍼져나갔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별은 당시의 귀족정치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의 반영이었다[157]. 이렇게 종교가 소수의 기득권자와 귀족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특별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의해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화하면서, 수많은 착취와 학대가 세상에 편만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은 여러 나라에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서 자본주의가 사용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적 구조와 차별이 있는 곳에는 착취와 학대,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만일에 그가 불경죄(blasphemy)와 같은 종교적인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했다. 그들의 예수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58]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사61:1,2절로 요약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 눈먼 자에게 다시 보

---

[157]Ulrich Duchrow, *하나님의 경제와 민중운동,* 강원돈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42.

[158]대천덕,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서울: 도서출판 CUP, 1998), 8-9.

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Jubilee)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나라였다. 그러나 포로기를 거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은 사라졌고, 이방의 정치, 경제제도가 주도하게 되었다. 더 이상 희년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한번 땅을 소유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까지 계속 자신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경제 질서가 가나안의 방식으로, 로마의 방식으로 대치되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지주로서, 정치, 종교적인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오해한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세우려 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1. 교회와 계급구조.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서 물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159] 제자들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신학은 풍요와 부유함은 곧 축복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지배체제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너무 깊이 내면화되어 있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2등 시민이며, 지도층과 같이 부유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인줄 알았다. 제자들은 경제적인 계층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줄 알았던 것 같다.

1)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의 특권화.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성전 당국자들에게 매

[159]공관복음서는 이것을 다 기록한다. 마10:28-, 막10:25-, 눅18:25- .

우 비판적이었으며,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160]. 예수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민중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성전의 수입원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지불하는 성전세 외에도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돈을 바쳐야 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방문객(순례자)에게 예루살렘은 착취의 도시였다.[161]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5,000명 가량이었지만, 순례자들의 축제가 있는 기간에는 180,000명까지 불어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제사용 동물을 판 이익금, 환전에서 들어오는 이익금, 서원을 취소할 때 바치는 돈(행21:24), 성전 사유지로부터의 수입, 성전 헌금궤의 수입(막12:41-44)등은 성전의 수입원이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성전 당국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친 예수의 행위는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162]

예수 그리스도 당시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던 시대였다. 특권층에 있는 자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여 동포를 억압하고 축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백성들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구조 속에서 체념 상태에 있었다. 아무도 감히 성전 당국과 백성의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시대였다.

Linthicum은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3가지로 말한다.[163] 첫째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체계가 백성의 압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 둘째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백성의 착취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강요하여 도시에 부를 집중시키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백성을 억압할 수 있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선언했을 때, 예수의 복음은 경제적 평등도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지배와 억압의 기

---

[160]이것에 대해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 (요2:13-22, 마21:12-13, 막11:15-17, 눅19:45-46).

[161]Joachim Jeremias,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69), 63.

[162]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대구: 분도출판사, 1979), 43.

[163]Robert C. Linthicum, 14,15.

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정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로마의 정치, 경제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권력구조에서 희년의 선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선포는 기득권자들에게 너무나 도전적인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삶 속에 적용되었을 때, 그 부수적인 결과의 하나로서 경제의 평등이 자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열, 지배 계급, 그리고 계급주의는 과도한 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축적된 힘에 모든 기초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과 부,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조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복음의 생활화이다.[164] 출애굽 사건은 학대를 받던 약자들이 강자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경제적 약자와 함께 나누고 도움을 베푸는 것은 곧 애굽의 해방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요 형제애의 실현(praxis)이다.

2)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한 시기는 이미 계급구조가 분명한 시대였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급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회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다. 특히 콘스탄틴 이후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 지배적인 종교와 문화를 규정하는 종교로 바뀌면서 교회 안의 직책까지도 상류층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교회의 교권 지배 체제 수립과 사회의 봉건제도 수립이 병행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수도원 제도와 성직자 제도는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으로 부상하는 출세의 가도가 되었다. 물론 초대교회는 계급 사회를 거부해 왔으며 그리스도교인들의 권력 참여는 계급 사회의 변혁, 즉 계급 사회의 극복을 의미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지적대로 콘스탄틴 이후에 "물질적인 지배 세력이 정신적 지배 세력이 되고, 물질적 생산수단을 조종하는 계급이 정신적인 세계까지 지배하게 되었

---

[164]Gregory Baum, *종교와 소외*. 이원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4,25.

다."[165]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 국가 관리를 위한 전문 계층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성서와 신앙 전승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신학자 계층이 형성되었다. 교육에 의해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 소유와 병행하여 상류층에 소속하기 위한 신분적 토대가 되었다. 교회역사에서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가 교리와 권위의 단체로 변했을 뿐 아니라, 한 때, 교회와 신앙의 쇄신의 희망이 되었던 수도원이 사치와 향락의 장소가 됨으로써 고대의 수도원 규칙들인 노동, 청빈, 명상, 자선 같은 것들은 빛을 잃어버렸다.

중세의 서구역사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할 때 당시의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 귀족과 평민, 자유인과 노예를 고착화한 것은 다가오는 세대의 수많은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비극의 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종교개혁이 가져온 성공과 실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교회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한 개혁의 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Peter Waldo파 운동이라든지, John Wyclif, 그리고 John Huss같은 사람들의 개혁운동이 있었다. 또한 당시 평신도들이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나오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염원이 일어났다. 루터는 이러한 기류를 타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으며, 서구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 설은 그의 독창적인 신학의 소리가 아니라 부패한 교회를 향한 당시의 힘없는 대중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였다. 그러나 루터는 후에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반역으로 규정했다. 농민전쟁으로 죽은 농민들과 신앙 양심 때문에 죽은 재세례파의 순교자 수는 로마제국에서 박해로 죽은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교회 사가들은 주장한다.[166] 루터는 농민전쟁을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열광주의에 불을 붙이며, 루터를 비판했던

---

[165]Helmut Gollwitzer, *자본주의 혁명,* 윤응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83.

[166]Justo L. Gonzale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2), 96.

Thomas Müntzer를 죽이고 귀족들의 편에 서서 힘없는 회중을 무시하면서 이 만인 제사장 이론은 일반적인 구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167]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혁에 호의를 가진 정치 권력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힘없는 가난한 민중들의 소리를 듣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종교개혁의 초창기 물결이 지나가고 나자, 인문주의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운동에서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의 반쪽은 중산층의 손에, 나머지는 귀족의 손에 넘어갔다. 칼빈주의는 중산층으로, 루터파는 귀족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결국 종교개혁은 브루즈아와 귀족 계급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은신처를 제공해 주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내쫓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168]

4) 미국에서의 교회와 노예제도.

청교도들과 함께 시작되는 미국의 기독교는 성서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성서 전체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로 관련 시켜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성서를 해석했다. 미국으로 건너온 자신들이야 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 시온성을 건설할 사람으로 생각했다. 제2차 대각성을 주도한 Timothy Dwight는 Jonathan Edward의 손자이며, 그의 작품인 가나안 정복에서(The Conquest of Cannan)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을 미국 독립 전쟁으로, 워싱턴 장군을 모세로, 그리고 미국은 천 년 왕국의 이스라엘로 묘사했다.[169]

칼빈주의를 신봉했던 청교도들은 구 대륙의 귀족정치 체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를 지지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정부에 반대되는 것이라 하여 맹렬하게 적대시하면서 폭도 정치라고 저주했다.[170] 그러므로 이 시대에 기독교인 대부분은 사회의

---

[167]Hans Küng., *교회*, 273-274.

[168]H.Richard Niebuhr, *교회 분열의 사회적 배경,* 노치준 역 (서울: 종로서적, 1991), 89.

. [169] Stephen E. Beker,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년), 310-326.

[170]Ibid., 295.

구조적인 악, 즉 당시의 악습이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미국에서 가장 걸출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Jonathan Edward의 신학도 자신의 삶에 대해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Calvin의 후예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시의 구조악인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신학은 철저하게 백인들의 문화와 정치적 이익에 입각하여 복음을 해석해 왔다"[171]

이들은 소위 구체화된 민주적 신앙(democratic faith)을 다음 3가지 교리로 구성하였다.[172] 첫째, 19세기 미국인들은 사회와 자연 모두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도덕법(fundamental moral law)을 믿었다. 둘째, 미국인들은 자유롭고 책임성있는 개인의 교리를 믿었다. 자유로운 개인이란 자신의 삶을 구성하기 위해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정치적인 생활에서 개인은 국가의 궁극적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힘의 도구로서 총기(무기)휴대를 의미했다. 셋째, 미국의 선교는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국민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기의 미국인으로서의 성공이란 부(富)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성공의 복음(gospel of success) 속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부의 복음은 미국인들의 전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5)미국에서의 자본주의와 계급사회.

미국의 자본주의가 계급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은 공업, 금융업, 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서의 성공이 상류 계급의 형성에 핵심적 요인이 되어왔다.[173] 자본주의는 계급사회를 만들므로 자본주의의 모델이 되는 미국 사회는 계급사회의 모델도 되는 것이다. 봉건적 지배는 출생에 의하여 한정된 상류층의 권위에 바탕을

---

[171]James Cone, *God of the Oppressed* (Harper San Francisco, 1975), 47.

[172]Roger G. Bestworth, *Social Ethics* (Westminster,John Knox, 1990), 56-58.

[173]Anthony Giddens,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임영일, 박노영 역 (서울: 한길사, 1987), 174.

둔 지배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지배는 생산관계들에 기초한 지배요, 시장 독점적 지배 곧 이익 추구 형태의 지배이다. 과거의 모든 국가들처럼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 국가, 즉 지배 계급의 국가이다.[174]

계급이란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분열과 계급 사회를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범죄 이전의 시대는 지배가 없고 정의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였다. 이 공동체는 노동과 생산물이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었다. 이것이 원죄 이전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생산관계에서 볼 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면 그 생산자들 사이에는 지배적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이 관계는 불평등, 범죄, 그리고 지배 관계를 만든다. 지배자는 타인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전체화하면서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범죄가 계급을 정당화하고 존재하게 한다. 만일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범죄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 안에 있는 계급을 부정한다면 지배신학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급에 의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일어나 자기 권리를 요구하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갖게되면 계급 투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억누르려는 지배 계급은 도덕율을 지배 이념으로 내세워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175] Bonhoeffer의 말처럼 공동생활을 깨뜨리는 계급주의는 경건한 모습, 교리, 전통, 문화, 도덕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176]

6)자본주의 사회와 교회의 계급화.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즉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함께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환원하면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복지에 봉사한다. 이렇게 관료

---

[174]Max Weber, *지배의 사회학,* 금종우,남석준 역 (서울: 한길사, 1993), 10.

[175]Enrique Düssel, 135-140.

[176]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42,43.

적 구조는 통치자의 손에 경영 수단을 집중시켜 가면서 계급 사회가 형성된다.[177]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교회 구조는 자본주의 정치 체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회 행정이 당회로의 집중화, 기능화, 전문화하고 있는 현상은 일반 관료직과 대기업체의 조직, 군대의 계급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관료의 직위는 전문직이다. 교회 교역자의 직위도 전문직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의 직분은 비인격화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신성화된 관료적 조직 속에 자리잡고 있다. 관료제는 일단 완전히 실현되기만 하면 파괴하기 가장 어려운 사회 조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권제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형화 또는 정체화된 권력 구조이다.[178]

이러한 계급구조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에 내적인 긴장관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배 계급은 자신을 합법화 내지 정당화 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반전시킴으로써 그 위치를 안정시키려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의 경제-정치적인 지배 위상을 정당화 내지 신성화시켜주고 피지배 계급에게는 그들의 위치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일을 한다.[179] 그러므로 물질적 생산 수단을 지배하는 계급이 정신적 수단도 지배하게 된다. 지금의 자본주의 안에 있는 교회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계급 구조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

2. 한국교회 안의 계급구조와 자본주의.

미국 안에서 자본주의와 계급구조가 형성된 이 시기에 한국 교회는 미국으로부터 복음과 함께 물질주의적인 부의 복음을 부수물로 받게 되었다. 그 영향력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 본질과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산업주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교세의 확장은 항상 성서가

[177]Max Weber, 17.

[178]Ibid., 290.

[179]Anthony Giddens, *선진사회의 계급 구조*, 장정수 역 (서울: 종로서적, 1986), 27.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가상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소유한 물질의 풍요로움이 삶의 풍요로움으로 대치되고 물질은 삶의 궁극적 자원으로 자리잡는다. 이렇게 종교 철학에 기초한 가정(加定)과 궁극적 실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유사종교(quasi-religion)또는 암묵적 종교(a tacit religion)[180] 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진정한 허위성은 하나님을 보이게 또는 만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오류 속에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물건을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있으며,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이익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본질을 떠난 유사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성장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겪고 있는 침체의 상황은 본질을 떠난 기독교의 모습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본질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는 한, 이러한 모습을 방치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신학이란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181]

1) 초기 한국교회 안에서 미국 교회의 영향.

이렇게 형성된 계급화의 과정은 한국의 개신교 안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의 팽창주의가 한창일 때, 이미 형성된 미국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정복주의와 함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다. 자본주의는 계급사회인 봉건주의의 연장이다. 당시 한국은 이미 계급사회였고, 기존의 의식구조를 이룬 유교에 대한 반항심이 분출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국의 고유 종교 심성이 무엇이냐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무속과 한의 사상이 동학[182]이나

---

[180]Rex Ambler, *Global Theology* (Philadelphia : Trinity Press, 1990), 21.

[181]Jürgen Moltman, 31.

미륵 사상을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상들은 억압받는 민중들이 지배계급을 향해 저항하며, 다가올 피안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장차 올, 그러면서도 이미 이 역사 안에서 개혁과 변혁을 가져오는 현세적인 신앙으로 토착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특이하게 제국주의적인 일본에 의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기에, 근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의 기초위에 세워진 신앙의 선교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다. 양반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학문으로서의 호기심과 또한 일제와 투쟁하는 가운데서 개화와 변혁의 추진력으로 민족 독립의 후견인 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평민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유교의 종적 인간 관계를 개혁하고 새로운 횡적 인간 관계를 주장하는 종교로 비쳐졌다. 그리하여 초기 한국 기독교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상인들과 농민들, 기존 체제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인간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개신교의 변혁적 에너지는 교회를 형성하고, 그것을 인간 공동체의 모델로 삼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가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까지 파급되었다.[183]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초기 개신교 공동체가 근대화와 민족 독립 확보를 위해 사회 및 정치적인 활동(세속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이러한 진보적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기에 진보적 지식인들을 누르고, 선교사들의 의도를 따라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강력한 전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84]

---

[182]황선명 외 5인 공저, *한국 근대 민중종교 사상* (서울: 학민사, 1988), 72-73. 동학의 사상은 고통과 불안에 싸인 선천 시대는 가고, 질병과 인간의 차별이 없는 후천의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후천 개벽설을 가르친다. 새로운 세상 후천이 개벽한다는 것은 하늘, 땅, 사람, 자연의 질서와 협동이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을 회복하여 영성적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동학의 새 하늘이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시작하려는 현세적 사상으로 새로운 사상을 고대하는 피압박자들에게 강한 혁명의식을 고취시켰다.

[183]이계준, *한국 교회와 인간 공동체,* 크리스챤 아카데미 신학연구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331-348

[184]차성환, *한국 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234.

이로써 개신교 공동체 안에 상존하던 영혼의 구원과 사회 변혁이라는 이중과제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진보적 지식인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창조적 비판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한국에 파송된 청교도적이고, 근본주의적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성서의 가르침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책임지려는 국채 보상운동이나, 금주, 금연 운동등이 나타나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지만 역사는 제국주의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185]

2)한국교회의 자본주의화.

일제 강점기와 6.25 사변, 그후 군사독재 정치체제 속에서 한국 민족은 계속해서 억압과 소외의 상황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1960대부터 한국인의 의식과 교회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이었다. 이것은 군사 독재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대 드라마였다. 한국의 근대화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출세해서 힘을 갖는 것이었다. 또한 서양의 기술문명을 빨리 배워서 과학 기술 문화 속에서 살자는 운동이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성장 제일주의, 성공 제일주의, 적응주의, 기회주의를 부추기면서 원리원칙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한탕주의, 공무원의 부정 축재, 땅 투기를 몰고왔다. 국민 전체가 물신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186]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이란 단순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이 있고, 기술의 영성이 있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정신에 대한 연구가 없이 모방만을 하려고 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술 이성이 실천 이성(건전한 도덕 양심)과 더불어 인간 해방을

---

[185]Ibid., 236.

[186]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38.

경험했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오직 경제 발전의 도구로 오해하여 물질 지상주의로 흐른 것이다. 이러한 정신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초기 자본 형성 과정에서 매판, 독점, 관료 자본이 민족 자본을 압도하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정책은 사람을 주체와 목적으로 삼는 정신을 등한히 한 채 국민으로 하여금 돈, 권력, 불의 그리고 폭력이 활보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했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물결을 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획일적인 군사 문화와 인간의 정신을 배제시킨 물질주의와 폭력정치, 그리고 사회적 구조악에 항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하면서 이러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협조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에서는 의무와 미덕으로서의 천직, 그리고 헌신적인 노동 개념이라는 가치 기준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생산 효율의 극대화라는 전략으로 나갔고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의 초기 발전 과정에 나타난 경제적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했다.[187] 소비주의는 현대인의 정신을 사로잡으면서 현대 사회의 유효한 참여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모든 매스컴은 상업주의를 선전하는 데 경쟁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개념은 소비에 대한 개념으로, 마천루는 대 교회당으로, 백만장자는 영웅으로, 중역들은 성인(the Saint)으로, 이념은 종교로 대체되었다.[188]

3) 교회의 자본주의화가 가져온 결과들.

재물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채찍으로 사람을 물질의 노예로 몰아가고 있다. 돈에 예속된 유일한 가치관이 한국 사회의 특성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사람의 물질화이며, 자본의 인격화이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화 하면서, 교회 역시 함께 자본주의화해 가고 있었다. 이제 교회 성장의 의미도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물량주의적 증가나 기구의 팽창을 의미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성

[187]Anthony Giddens,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 이론,* 193-198.

[188]Walter Wink, *Engaging Power,* 54.

장을 추구한다. 퇴보나 제자리걸음은 패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경제를 그들의 운명으로 생각한다.”[189] 자본주의에서 자연과학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 강력한 힘을 제공해 왔고, 경제제일주의는 과학의 전능함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한다. 물론 자본주의가 인류에 기여한 것들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로 인해, 생활이 향상되고, 기근 문제 해결, 전염병 예방,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해도, 끝없이 뻗어나가는 인간의 욕망을 기초로한 경제 제도는 “현금 지불 이외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다른 어떤 유대도 남겨 놓지 않는[190] 비정한 경제 체제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 체제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만일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자본주의의 체제를 받아들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물적인 관계가 된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교인은 수입원이고, 자본[191]이 된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교회 상호간의 형제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질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형제 교회의 교인이라도 끌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며 경쟁 대상으로 간주한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비인격적, 비신앙적, 비인간적 관계가 되며 기계적이고 직업적 관계가 되고 만다.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동기에서 교회를 선택한다.

자본주의에서 이익이란 마치 절대 선처럼 느껴지고, 인간의 본성과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땅에 대해 지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성경은 돈이 돈을 생산하는 것에

---

[189]Hellmut Gollwitzer, *자본주의 혁명,* 윤응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44.

[190]Ibid., 48.

[191]Enrique Dussel, 127-134. 자본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르면 자본은 하나의 현상이다. 자본은 노동없이 존재할 수 없고, 노동도 자본 없이는 존립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은 부(wealth)로 통한다. 그러나 자본이란 본재 지배 사회적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신을 전체화하며, 자신을 유일한 존재로 주장하고 또한 아무에게도 제약받지 않겠다는 우상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무로부터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특성 때문에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해 불의한 것으로 본다(신23:20). 그러나 현대의 교인들은 큰 교회에 가서 사업의 대상도 넓히고, 헌금의 부담도 없는 대형교회를 찾는다. 이런 모든 것이 자본주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며,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 성장의 본질은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엡4:13)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히12:1-2) 그 나라의 나타남이다.[192]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Praxis가 없이 숫자적, 양적 기구의 팽창은 교회가 비대증에 걸려 건강에 위험이 왔다는 신호로 느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고 하셨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랍비로 불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 물질적인 혜택과 종교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질타하셨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런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3. 계급구조에서의 가난과 노예.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죄인들이란 후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노예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즉 매국노로 멸시받는 세리,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 비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창녀, 간음, 살인, 우상숭배자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나환자, 혈류병 환자 등)이었다. 이들 모두는 종교 당국의 기준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며, 물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타적인 성결법전에서 계급구조와 차별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과 진정한 죄인들을 구별하셨다. 이러한 율법 구조에서 나온 성속의 구별은 불평등, 비인간화를 가져왔고, 또한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야

[192]박근원, *교회와 코이노니아*, 288.

한다. 그 구별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나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곳에 항상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있다.

거룩한 교회를 위한 성도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와 일상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사랑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193] 이다. 성도(Saints)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결코 단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각 개인들이 친교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으로 개인들의 연합, 곧 우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 부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1) 예수와 초대교회가 추구한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새로운 세계는 "지배 구조가 아니라 지배를 극복한 하나님의 질서"[194]이다. 예수는 힘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 예수는 탁월함을 거절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사회 밑바닥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결속과 동질성 속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는 영웅주의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역사에서 지배 질서로 나아가려는 경향성에 맞서 평등 관계와 형제애를 추구하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 거듭 상기되어야 한다. 특수한 권리는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들며 힘의 집중화는 불평등을 생산하게 된다. 동시에 특별한 권력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희생시키고 공동체 간의 평화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95] 예수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하며, 지배 조직의 서열, 가치기준, 그리고 권력자들이 지지하는 조직과 기관의 영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그의 행동이 기초를 흔드는 정치적 테러로 보고 죽이려

[193]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156.

[194]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s,* 111.

[195]Reinhold Niebuhr, 35.

했다.[196]

바울은 교회 일체에 위협이 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력, 즉 싸움, 파벌, 자랑, 질투, 부도덕이 교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리스도 자신을 나누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고전1:13) 그러므로 교회가 일치하도록 묶는 힘이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하는 것"(갈5:13)이라 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는 인종적, 사회적, 성적 구별이 철폐되었고 교회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갈3:28)[197] 이러한 선언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바울의 편지 가운데 신분차별이나 성적 차별을 하는 말들이 있으나 그것은 그 교회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제에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 바울의 구원론의 근본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Stammvater*(조상), 즉 연합시키는 한 인물(a corporate personality)로서 그 안에 *Stamm,* 즉 구속받은 인류를 일체화시켜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구속사적 구분 –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사라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종류의 인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원형(Urbild)을 본받음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는 이상적 이스라엘의 내포적 대표자(inclusive representative)인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다.[198]

---

[196]Walter Wink, *Engaging the Power,* 109.

[197]본 연구자는 모든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본 연구자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쉬운 성경 (아가페, 2009)을 인용했다.

[198]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홍성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5), 524-529.

초대교회가 얼마나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극복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인이였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랬동안, 얼마나 넓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2) 초대교회 이후의 사회구조.

Gregory Baum은 그리스도 교회는 초기부터 예수의 비판적인 설교 특히, 위선, 율법주의, 그리고 집단적 보지 못함(collective blindness)에 대한 그의 공격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규정되지 않는 집단에 투사"해 왔다고 주장한다.[199] 마 23:8-11을 예로 들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바리새인에게만 적용하여 유대교 공동체에게 투사함으로써 율법주의, 교권주의,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해왔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는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주변인이 되고, 사회적 추방자로 살게 되었다. 기독교회는 거룩한 메시야적 공동체라고 간주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자체 종교의 모호성, 불신앙, 배신, 율법주의, 위선을 부인하면서 이것들을 유대 민족에게 투사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세계 역사에 대한 교회 중심적 이해와 자기도취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교회도 기관화되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제 신성화 작업을 하게된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부족, 나라, 제국 등의 통치자들을 초월적인

[199]Gregory Baum, 96-104.

실체와 연결하면서 항상 신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신성화의 외적 표현으로서는 건축, 음악, 축제, 장소, 희생제물 등으로 가시화했다.[200] 그러나 우리는 거룩(holy)과 신성(the sacred)을 구분해야 한다. 기독교 신학과 교회 전통에도 비신성화 작업이 요청된다. 비신성화란 하나님으로 행세하는 모든 거짓 신을 구별하고 추방하는 작업이며, 신성으로 위장된 종교성의 추방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거짓 종교성에 흡수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신성하지는 않다"[201] 신성한 종교에서는 신은 사람과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과 삶에 관계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대면하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과 사귐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바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통과 함께 교회 정치 체제와 조직들, 교리와 교회 헌법으로 보장받고 신성시 되고 있는 장치들이 복음의 조명 아래 재해석되고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본주의에 대한 성경적 대안.

대천덕 신부는 신학을 성숙한 신학과 미성숙한 신학으로 나누면서, 미성숙한 신학이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 신학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 한 예로 가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가난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전도'나 '선교'가 우선적인 과제라는 잘못된 개념이 교회안에 퍼져있다고 한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가난한'이라는 중요한 단어와 분리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추 충격적이다 라고 한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마11:5, 눅4:18, 7:22, 계7:16) 오랫동안 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이슬람

---

[200]Thomas Molnar, *Twin Power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88), 7-8.

[201]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18.

이나 공산주의가 번성했고, 소위 ‘기독교’ 국가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지역들에도 현재의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202]

대천덕 신부는 Henry George의 이론을 따르며, 경제 문제의 근본은 토지문제에 있다고 본다. Adam Smith의 국부론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Adam Smith는 영국 상원의 사람들이 다 지주라는 것을 알고, 자본과 노동력만 있으면 모든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아무리 자본과 노동력이 있다 해도, 공장도 지을 수 없고, 어떤 물건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주들은 땅을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계속 이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소득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Henry George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발전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었다.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은 슬럼가가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서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본 것이다. 결국 그것이 토지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203]

성경의 법은 빈익빈 부익부를 차단시키기 위해, 희년 제도가 있다. 땅은 영원히 팔수도, 살수도 없고, 길어야 50년이다. 그러나 바알의 제도는 땅을 영원히 소유하여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대물림하면서 가난을 이어가는 것이다. 가나안의 바알제도가 북아프리카로 전달되었고, 이것이 로마로 이어지면서, 북아프리카는 상아집을 짓고, 로마는 대리석 집을 짓는 대지주들에 의한 봉건제도가 생기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이라 한다. 이 제도가 유럽으로 이어지고, 또 영국으로 갔으며, 미국법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법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204]

성경에서 구속(Redemption)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되무른다, 다시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토지법에서 나온 것이

---

[202]대천덕, 168.

[203]Ibid., 69-71.

[204]Ibid., 83,84.

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돌려받은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학이란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하나로 보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 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그 나머지 문제는 '자비'의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대한 해석이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고, 정의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다. 오직 부자들만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205] 이런 세상에서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와 자비의 두 가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가난과 차별을 가져오는 구조들.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들로서 그들의 게으름, 교육을 받지 않음과 창의성의 결핍,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가난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 자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난이란 재화의 결핍이 아니라 힘의 결핍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힘이란 "어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의 가능성"[206] 의 부재를 말한다. 또한 가난의 진정한 원인은 주변화, 착취, 그리고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의 구조와 체제가 가난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조악에 대해 말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성서의 근본 원리는 고통과 억압, 은혜와 해방, 구원에 대한 풍성한 소망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성서는 부자들과 억압자들까지 포함하며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기득권

[205]Ibid., 60.

[206]Robert Linthicum, 10.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기 때문이다.

Croatto는 “성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소유권 및 성서의 케리그마를 판독함에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타당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207] 이라고 말한다. 초기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동질성은 상징적으로 통치 계급과의 연결 고리를 끊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동질성은 여성, 병자들, 창녀들, 어부와 같은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현장, 곧 소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물론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비인간화하는 구조의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두 얼굴과 같아서 이 둘이 서로 함께 하고 위로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208]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지배 계층의 소수(교권주의자들, 전문적인 신학자와 주석가들, 교육받은 소수)들이 성서를 해석하고 표현하고 조종하고 소유해 왔다. 그러므로 성서해석은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의 편에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이들을 주변화시켰다. 이런 면에서 James Cone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이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초청하시는 프락시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특성”[209]을 담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서해석을 서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백인들의 시각에서, 남성 위주와 기득권자의 편에서 또는 교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인류는 통합된 문화권으로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성서는 인류의 근원과 문화의 뿌리가 하나라고 말한다. 종교의 근원도 창

---

[207]J. Severino Croatto, *Biblical Hermeneutics* (Maryknoll, NY : Orbis Books, 1987), 62-63.

[208]Gregory Baum, 29,30. Baum은 여기에서 Hegel의 말을 인용하며, 잘못된 종교는 3중의 소외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1.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2.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3. 동료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209]James Cone, *God of the oppressed* (Harper SanFransisco, 1975), 8.

조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과 상대방을 사유화하려는 폭력은 분열과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인종차별, 문화적 차별, 성차별과 같은 분리 의식이나 계급 의식은 타락된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이다. 성서해석은 마땅히 이러한 분리주의와 차별을 극복한 시각에서 조명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기 15:11과 예수의 말씀(요12:8)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 가난이란 종말까지 인류와 함께 존재할 대상인지도 모른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억압도 있다는 말과 같다. 사실상 이 땅 위에서 지배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 묶인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눅4:18-19)라는 "사회 집단"[210] 이 예수의 확고한 연민과 관심 대상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중세에는 제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며 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재화를 넉넉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죄 혹은 범죄자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란 "지배 관계에 있어서는 지배당하는 사람, 도구화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다.[211] 체제 밖으로 밀려난 사람, 강자에게 예속된 사람, 그리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의무는 구체적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말것(신23:19-20), 이들의 빚을 정기적으로 탕감할 것(신15:1-6), 해방된 종에 대한 관용(신15:12-18),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 두는 것(신24:17-22)등이다.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난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막10:17-22) 마가는 마태처럼 가난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화하지도 않는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은 자비의 대상임을

---

[210]Richard J. Cassidy, *예수, 정치, 사회.* 한완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36-38.

[211]Enrique Dussel, 22-23.

말한다”[212]

마태의 경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마5:3)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치된 견해는 없다. Cramer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기가 죽어 움츠러든 사람, 심히 겁에 질려 있는 사람으로서 이는 내적 불안이나, 외적 두려움에서 발견되는 현상”[213] 이라고 말한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보다는 후기의 작품인 마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도 적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심령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마태 역시 복음서 전체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육체적, 사회적, 신분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밀려난 모든 소외된 계층을 말한다. 옛날 랍비의 말 가운데 ‘땅의 사람들(*am-ha-arretz* :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다.[214] 또한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이 실제로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소외와 착취의 장본인인 부자와 권력자는 맛볼 수 없는 곳이라는 뜻도 포함된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결국 가난을 종식시킬 것이요,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징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막10:21).

누가는 가난이라는 용어를 물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가

---

[212]Leslie J. Hoppe, *성서에 나타난 가난,* 라요섭 역 (서울: 나눔서원, 1992), 181.

[213]Raymond L. Cramer,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 건강,*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21.

[214]송기득, 257.

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215] 복음서는 예수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분”(마8:20, 눅9:58)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성서에서 가난한 자들의 행위는 칭송을 받지만, 가난한 상태를 이상화하거나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4. 교회 안에서의 여성차별과 여성신학.

오늘날 지구상에서 노예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노예제도와 비슷한 상태는 지구 여러 곳에 아직도 살아있다. 다만 지배자들의 힘에 의하여 민주주의, 평화, 정의, 인권, 국가 안보, 애국, 원조들의 이름으로 교묘히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과학적, 기술적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형태로 지구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인들의 생활방식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라는 단순한 관념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로써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생활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서구인들이 구가했던 식민주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만 바뀌었으며, 유럽의 봉건적인 지배 체제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평등과 자유, 인권과 정의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현존하는 불평등의 구조 속에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불평등과 과거 식민지 시대의 백인 우월주의가 제3세계와 개발 도상국에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개발 원조와 국제연합이라는 베일 뒤에서 세계적 규모의 계급 투쟁, 즉 제국주의 현상인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세력이나 제거하려는 투쟁이 실행되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럽의 식민주의는 백인 산업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국가들을 만회할 수 없게 파괴했다. 경제적 탐욕과 국력의 팽창욕으로 준비된 유럽인들에 의한 잔인한 착취와 약탈은 인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었다.[216]

---

[215]Richard Cassidy, 48,4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여성학, 페미니즘, 여성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차별주의를 모든 억압의 가장 근원적인 억압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견고한 억압의 형태가 바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나 "구원"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처럼, 영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통전적인 인간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영적인 차원과 사회-경제적인 차원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나 구원은 개인적이며 영적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 경제제국주의 또는 성차별주의 등을 "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차별과 불의가 극복된 사회적, 제도적 평등과 정의를 "구원"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217]

1) 성서와 여성.

성경에서 남녀의 창조가 평등하게 지어졌을 뿐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은 오히려 높임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부장주의에 젖은 성서해석자들은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신 것이 평등하게는 지으셨지만, 동등하게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평등하게 지음 받은 것을 부정한다. 남녀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가 평등이나 동등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돕는 자'로 묘사되며, 돕는 자(*Ezer*)라는 단어를 여성에게 써주신 것을 볼 때, 결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성경에서 *Ezer*(돕는 자)는 구약에서 19번 나오며, 그 중 16번은 "도우시는 하나님"(삼상 7:12, ***Ebenezer***)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번은 힘센 군대가 약한 군대를 도우러 오는 경우에 쓰였다. 그러므로 여성의 역할이 하나

---

[216]Helmut Gollwitzer, 28.

[217]강남순, *현대 여성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6.

님처럼 남자를 돕는 그런 위치로 창조된 것이다.[218] 그 뒤에 나오는 '배필'(*knegedo*)은 짝궁 이란 뜻을 포함하는 형용사로서 '평등한' '친구''적합한'과 같은 뜻을 가졌다. 그러므로 창2:18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 처럼 남자를 돕는 파트너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기사로부터 볼 때, 남녀의 차별이나 가부장 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신약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전언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에 대해 어떤 폄하하는 말이나 비하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남녀의 차별이나 사역에서의 위치등에 대해 말씀한 것을 찾을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에 대해 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성들도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여성에 대한 관계를 Dorothy Sayre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 아마도 여성들이 처음에도 아기 예수의 요람에 함께 있었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이 예수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 결코 그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없다. 예언자와 선생인 그 는 여성들을 결코 괴롭히지 않았고 아첨하거나 유혹하지 않았으며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 . . 여성의 완고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유나 설교,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에서 여성의 본성에 관하여 어떤 좋지 않은 웃기는 점을 지적했다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다.[219]

신약에서 남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의 지도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

[218]박혜원, "김세윤 교수의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을 통해 본 한국 교회를 위한 여성이해" *목회와 신학* 9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2004), 202.

[219]Letty M. Russell, *여성 해방의 신학,* 안상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37에서 재인용.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면서 사역이나 직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제외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빌립보서는 여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운 동역자들"(빌4:3) 이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 어떤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성인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예상외로 사도 전통이 로마 세계로 전달되는 특히 초기 상태에 이미 여자들이 그와같이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며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복음을 위해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더 놀라운 것이 된다.[220]

논쟁이 되는 구절들에서 고전 11:2-12은 그동안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와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 학자 김 세윤 교수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권면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과 기도를 계속 하되,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하라는 문화적 양보를 설명하면서 여성의 설교와 기도의 근거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 정숙한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머리에 수건을 썼다. 이것은 문화이다. 바울은 그러한 문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와 설교를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문화적 양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221] 그러나 예수님 조차도 문화적 양보를 하셨다. 마태복음 17:24에서 성전 세를 받는 자들이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냐고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내신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신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처럼 행동

[220]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68.

[221]김세윤, "여성안수 허용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함에 답함" *목회와 신학,* 2004년 11월호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4), 194.

했다. 이 모든 문화적 양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고전 11장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와 설교를 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고전14:34-35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돌이되는 것으로 그 해석을 조화시키기 어렵다. 결국 이 본문은 사본학적으로 불안한 것을 들어냈다. 이 본문은 바울이 11장에서 말한 것(여성이 수건을 쓰고서 설교와 기도를 할 수 있다)과 상충된다는 면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34,35절이(여성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없이 앞뒤로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초기에 누군가가 이 말을 집어넣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설명한다. 바울의 여러 설명들은 가장 중요한 사상을 먼저 이해하고, 그 전제 밑에서 다른 구절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3장 28절(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의 새창조의 위대한 천명이나 고전11장11절(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이 바울의 근본적 사상이며, 다른 구절들은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나, 독특한 환경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명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의 사상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222]

에베소서 5장 21-23절은 기독론적 모습을 의미있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머리(*kephale*)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머리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로서의 머리이며, 구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형태의 머리가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유비(metaphor)로서의 머리는 스스로를 주고, 의로우며, 구원을 이루는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스스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족의 머리로 부름받은 것이다. 여기에서의 머리는 다스림과 복종을 요구하는 머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머리이다. 그 뒤로

[222]Ibid., 188,189.

연결되는 엡5: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서 섬김과 봉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 본문에서 어떠한 가부장적이고, 여성비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 앞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복종(*hupotassatai*) 개념은 특별히 실제로 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과 똑같이 스스로 헌신하는 봉사를 의미하고 있다.[223]

또 하나의 논쟁이 되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15절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선언한다. 이유는 아담보다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고, 범죄는 먼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아이를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어떤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하며,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해석법을 배우지 못한 처사에 불과하다. 본문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과 관계있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에베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영적지식과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러한 여자들은 성적 역할을 극복해야 하며 결혼을 해서도 안되고, 이미 결혼을 했다면 더 이상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임신을 하는 것이나 자녀를 낳는 것도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여인들은 살림을 등한히 하고, 여기 저기 놀러다니기만 하며, 모여서 잡담과 이단적인 가르침만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한 정황이 딤전 5: 13과 딤후3:6에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대하며, 여자들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223]Thomas C. Oden, Ibid., 68.

한담이나 하고, 정숙한 여인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올바로 유지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을 너무도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224]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특수상황에 대한 말씀이며, 이단에 대한 교정이지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아선 안된다. 교회 안에서 언제나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성과 역할을 긍정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되는 것을 막는 모든 사상, 구원론, 역할 규정 같은 것들이다.

2) 교회와 여성.

한국 사회에 있어 500년간 이조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삼종지덕과 칠거지악이라는 도덕률로 여성을 현모양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만 한정시키며, 가부장제도를 공고히 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왔다. 이러한 통치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신앙이 만나서, 한국교회는 여성을 목사나 장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한 근거로서 성서를 사용해온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일부 보수교단이 아직도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단의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한국은 여전히 기독교적 스콜라 신학과 유교의 가부장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의 권위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교회의 목회자들의 영성이나 리더쉽은 복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 성경과 상관없는 과거 카톨릭으로의 회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아무리 크고, 많은 회중들을 모았다 해도,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교회들이 자신들을 개혁교회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근본주의자들보다도 더 화석화한 율법주의와 가부장

---

[224] 박혜원, "김세윤 교수의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을 통해 본 한국 교회를 위한 여성이해" *목회와 신학* 9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2004), 203.

적 유교문화를 지키려 하며, 기복신앙에다 상급신학을 가미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묶어두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오늘날 목사에게 적용하면서 사제주의적 목사관을 심어, 소위 말하는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이다.[225] 교회가 조직화하고, 기관이 될 때,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성(gender)을 억압하는 기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여자 전도사들이 존재한다. 그들 중에는 남자 신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많다.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서 여자 전도사로서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사역을 한다. 그들이 남자 신학생이나 전도사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볼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본다. 남자 전도사들은 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지만, 여자들은 전도사로서 계속 있어야만 한다. 똑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지만, 남자는 목사가 되고 후에 담임 목사로서 높은 생활비를 받게 되고, 여자는 전도사로서 계속 존재하면서 아주 낮은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 실제적으로 갈등이 깊다.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여성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교회는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나 장로들이 그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한 여성을 초대한다든지, 그 여성도에게 책임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는다. 그 문제를 제기한 여성에게는 그 문제에 대해 남자 장로들이 회의를 할 동안 다과를 가져오든지,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226]

여성안수에 대한 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논

---

[225]김세윤, "여성안수 허용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에 답함. *목회와 신학,* 11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2004), 198,199.

[226]Susan M. Hunt& Peggy G.Hutcheson,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쉽,* 이희녕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00), 20-22.

의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독교 전통의 역사에는 그 감추어진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기 위하여 완만하고 점진적인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많은 발전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법에 따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나, 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은 성서와 전통의 핵심적인 줄기로 함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본래의 깊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역사의 발전을 기다려야 했다. 오늘날도 복음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여성안수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출발점은 세례와 안수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이다.[227] 사도 바울의 시대에 여성들이 외출을 하려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다. 이것을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자인 로마가 가진 문화였다. 그러한 문화를 거절 할 때, 복음도 거절될 위험이 있었다. 바울은 단순히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려 한 것이지 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로 명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 오늘까지 지키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세례를 받아야만 기독교인으로 입회되는 이 거룩한 의식은 남자들만 받는 유대교의 할례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간을 옷 입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와 더불어 앉혀진다.[228] 세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들이며 주 안에서 성전으로 확장되며, 그 분 안에서 성령의 거처이며 하나님의 거처로 육성된다.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는 당시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로서 여성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gender)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 받은 그들은 누구나 대의목회(representative ministry)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안수목회에서 성의 차별로 인해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27]Thomas C. Oden, Ibid., 71, 76.

[228]Elisabeth S. Fiorenza,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 김애영 역 (서울: 도서출판 태초, 1993), 327, 328.

인도네시아의 여성신학자, 마리안 카토포는 그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문화에 얼마나 무지했고 식민지적 시각으로 대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뜨거운 나라에서 맨발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 예배하기 위해 교회당을 들어갈 때, 당시 영국의 풍습대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구두를 신고 정장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229] 성경에 대해 자신들만이 정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오만과 자신들의 예배방식이 표준적인 것이라는 독선과 교단의 교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교리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 봉건사회나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여성의 위치는 공적 생활에서 제외되었으며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이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에게 형제 자매로서 따를 것을 허용했다.[230]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여성을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으로 격하시키며 동일한 일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목적을 말했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다. 이 말씀은 여성을 돕는 자(*Ezer*)로서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성경의 하나님은 남성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면을 가지신 분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구약의 야웨는 어린 자식을 보호하는 암컷 새의 형태에 대한 유추로서 묘사되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성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되며 하나님의 속성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여성 어미가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shekinah*), 율법(*torah*), 하나님의 지혜(*chokmah*)가 그것들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18장 20에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

[229]안상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41-42.

[230]눅 8: 1-3, 23: 49, 24: 6-10, 막 15: 40, 요 19: 25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여성해방은 아니었지만 가르침의 단일한 주제는 인간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비전은 동일하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즉 그들이 함께 앉아 율법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231]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유대인 남자로 이 땅에 왔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 여성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24, 30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성이 함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여성들과 관계가 있다. 히브리어로 성령은 루아흐(*ruach*)로서 여성 명사이지만 헬라어로서 성령은 프뉴마(*pneuma*)로서 중성이다. 교회의 전통은 성령의 사역을 여성들과 관련하여 위로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232] 목회자의 이미지는 부모의 이미지로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되며 오히려 여성에게서 보다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잘 공감하며 목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여성들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교회의 지도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교와 한국 전통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대표자임을 깨닫고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233]

3) 해방신학으로서의 여성신학.

여성 신학자 Letty Russell은 자신의 신학의 주제를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선포했다. 여성신학은 제3세계의 해방신학처럼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방은 자유를 향한 행진으로서 구원에 대한 추구를 설명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희망의 빛에 비추어서 다른

---

[231]Letty M. Russell, Ibid., 123.

[232]Ibid., 122, 123.

[233]Susan M. Hunt& Peggy G.Hutcheson, Ibid., 33.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 해석한다.[234] 해방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해방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언제나 다음의 성취를 향하여 동경하는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서 묘사되고 있다. 우리는 해방하시는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보므로써 오는 희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자유의 선물을 먼저 맛본 데서 생겨진 우리의 이 높아가는 불안과 열망은 인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치 속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이끌어간다.[235]

가부장주의는 남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조직을 지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조직을 합리화하고 지지하는 "개념적 구성"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고방식과 감정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부장주의가 형성된 배경은 종교적 상징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상징을 만든다는 면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특히 종교적 상징은 인간의 일상성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 Paul Tillich에 의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유한하고 궁극적 관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상징적 언어만이 궁극적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 상징은 언어를 넘어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신을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상징 그 자체가 신은 아니다. 단지 언어로 파악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성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상징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상징은 살아있는 물체처럼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236]

인류학자 Clifford Geertz 에 의하면 상징은 추론, 인식, 감정, 그리고 이해

---

[234]Letty M. Russell, Ibid., 19, 20.

[235]Ibid., 27, 28.

[236]Paul Tillich,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 1957), 41.

의 수단이며, 역사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상징들은 기존하는 신적인 실재의 모델이며 동시에 인간의 행위를 위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은 성(gender)에 관계된 상징들이 남성과 여성의 기존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23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종교에서 그 종교의 상징, 신조, 교리 또는 제의를 만든 사람들은 남성들이었다. 남성들이 신을 아버지 또는 남성으로 상징했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을 가진 남성은 거룩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온다. 즉 "하나님-남성-여성"이라는 상징적 위계질서(symbolic hierarchy)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과 종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이론적으로 말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남성, 더 구체적으로는 백인 남성으로 보는 가부장주의적 사회로부터 생성된 신 이해는 구속적인 힘(redemptive power)을 상실한 죽은 은유라고 할 수 있다. Tillich의 말처럼 신은 신에 대한 상징(God is a symbol for God)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상징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징은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가치관을 강화시켜 여성들을 억압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여 "종속의 신학"을 낳게 했다. 이러한 백인 남성적 유일신 이해는 결과적으로 백인과 같은 지배적인 인종이나 남성과 같은 지배적인 성에 속한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북미 대륙의 백인에 의한 인디언 학살이나 흑인 노예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유럽의 마녀사냥에서 처럼 다른 성을 죽이는 경우가 역사에 무수히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신 개념의 이념적 뒷받침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238]

성서는 하나님을 남성성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여성성이 많이 들어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억압해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사

---

[237]강남순, 115.

[238]Ibid., 117 - 123.

야 49:15이나 66:11-13은 하나님을 출산하는 여성이나, 아기를 낳은 어머니로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잘 드러내어 준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능하신 하나님"(*El-shaddai*)은 젖 가슴을 많이 가진 하나님을 의미한다.[239]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공급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Rosemary R. Ruether는 "남성 구세주가 여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신 것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더 나은 역할과 위치에 반대하는 도구로 쓰여져 왔는가, 예수의 남성성과 여성의 구원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는 당시 존재하던 가부장적 질서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신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두 가지로 첫째, 예수의 남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남성성이 확실한 진리처럼 인식된다는 것과 둘째, 예수의 남성성으로 인해 여성 안수 문제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는 것이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예수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카톨릭의 예를 보면 바티칸이 발표한 1976년 10월 15일 문서에 의하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연적 유사성"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여성은 사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다. 이것에 대해 Ruether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이러한 이상한 입장은 흑인, 중국인 또는 네델란드인을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으로부터 배제하지 않고, 또한 부유한 성직자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부터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요소, 즉 남성성에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240]

---

[239]Kay Arther, *하나님의 이름*, 유윤호, 엄옥희 역 (서울: 프리셉트성경연구원, 1992), 14-24.

[240]Rosemary Ruether, *To Change the World : Christology and Cultural Criticism* (New York : Crossroad, 1981) 19.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적 유사성”이란 인종이나 사회적 위치 등의 유사성도 포함해야 하는 것인데 유난히 예수의 성에만 그 유사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성차별주의적 전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와 사제직의 “자연적 유사성”에 대한 주장은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남성 – 유대인 – 젊은이 – 가난한 자 같은 조건 중에서 자연적 유사성을 오직 한 가지, “남성”이라는 것 만을 찾는 것이다. 예수의 다른 조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며, 젊은 가난한 사람이며 목수였다는 유사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출신이면서 Harvard 대학의 신학부 교수인 Fiorenza는 신약 성서를 가부장적이며 교부적인 교회의 산물로 보며 신약의 경계를 넘어 외경, 영지주의 문헌, 교부들의 문헌들로 논의의 영역을 넓혀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나 Logos 기독론을 사랑의 Sophia 기독론으로 대치한다. Fiorenza는 유대 문헌에서 Sophia는 자매, 아내,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교사로 불리워짐을 밝혀낸다. 예수 그리스도이며 Sophia인 그녀는 도상에 있는 지도자이며, 설교자, 감독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는 소피아의 전령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며 휴식과 샬롬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은 예루살렘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그림으로 연결된다. Fiorenza는 팔레스타인 예수운동을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소피아의 예언자이며, 자녀로서의 사역이었다고 정의한다. 또한 소피아, 예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통전성과 인간성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한 자들의 제자직”이 되도록 만든다고 한다. 결국 Fiorenza가 예수를 Christa로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성으로서의 메시야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241]

Eleanor McLaughlin에 의하면 중세에는 양성적인 신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

[241]Elisabeth S. Fiorenza, Ibid., 170-173. Fiorenza는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서 기자들이 크리스챤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자부장적 사회와 종교의 역할에 분명히 순응케 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예수의 전언은 여성들의 문화적 가부장적 적응과 복종을 요구하는 단 한마디나 진술이 없다는데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에 비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언어들은 가부장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여성 해방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성성의 상징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완전한 인간상으로서의 예수를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가르쳐야 한다. 십자가위에서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은 어머니가 출산하는 것으로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십자가 전에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으로서도 해석해야 한다.[242]

Rita N. Brock 은 예수 그리스도를 Christa로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보는 것으로 사실의 표현이 아닌, 은유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Brock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사렛 예수"에서 "크리스타 공동체"로서 보면서, 예수의 남성적 영웅주의를 분리해 나가려 한다.

남성 신학자로서 Leonard Swidler는 예수를 페미니스트로 보면서 예수님 당시 얼마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Swidler는 1세기의 랍비 Eliaer의 글을 인용한다. "여자들에게 토라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것이 낫다" 또한 당시 여성에 대한 랍비의 글을 인용한다.

> 남자 아이를 가진 이는 행복하지만, 여자 아이를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 남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넘치지만, 여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슬퍼한다. 남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평화를 가져오지만 여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다. 우리의 선생들이 말하기를 네 가지 품성이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들은 먹을 것에 욕심스럽고, 남의 말을 잘하고, 게으르며, 질투를 잘한다.[243]

이러한 내용은 마치 유교 경전에서 무수히 나오는 여성 비하 구절을 읽는 듯하다.

---

[242]강남순, 140-142.

[243]Loenard Swidler, *Biblical Affirmation of Women* (Philadelphia: Westerminster Press, 1979) 177. 유대교는 확실히 가부장적이며 미쉬나의 지배적 에토스는 여성 폄하적이었음을 Fiorenza 역시 밝히고 있다. 요세푸스는 필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엣세네파의 결혼과 여성들에 대한 태도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도 여성은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으며, 남편의 도덕을 흐리게 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또한 Ruether 역시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주장하며, 예수의 비젼은 위계주의적이 아니고 인습타파적이다. 해방자로서의 예수는 화해를 요청하고 지배구조를 거부하였으며, 그의 남성성에 갖힌 것이 아니라 봉사와 상호 협력의 새로운 인간성을 추구했던 것이다.[244] 따라서 예수의 남성성은 “가부장주의의 겸비”(kenosis of patriarchy) 즉 위계적 계급 특권을 파기하고 겸비한 것을 제시하는 삶의 양식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성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서 여성신학과 하나님, 예수, 인간관, 자연관 등을 다 다룰 수 없고, 다양한 페미니즘을 다루는 것은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이 땅에는 다양한 억압과 착취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나와 다른 계급이나 인종, 성(gender)에 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그 속에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차별이 있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를 만드는 근저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숨어있다. 이러한 동기를 실현하기위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구조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차별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성(gender)에 대한 차별은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차별이라는 것을 여성신학은 밝혀주고 있다.[245]

Letty Russell은 여성신학을 해방신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여성신학과 해방신학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억압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복음의 해방적 메시지에 관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특별히 억압의 상황과 경험으로부터 신학이 출발한다는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 Fiorenza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성신학에서의 억압의 경험은 남미 해방신학자들의 경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자들은 억압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그들

---

[244]강남순, 150-151.

[245]Letty M. Russell, 39. 예수의 행위와 말씀과 해방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백인, 비서구인, 비남성을 멸시하여 인간보다 좀 못하다는 관념을 오랬동안 가지고 있었다. 세계는 계급에 대한 신비감을 이용해 계속해서 열등한 인간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인종차별보다 성차별에 대한 반대는 북미에서 기득권자들인 백인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이것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다.

이 가진 지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신학자들은 지식층이 될 수 있고 특권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신학자들은 스스로가 문화적, 종교적, 또는 제도적 성차별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억압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Fiorenza의 견해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여성신학을 해방신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246]

현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급구조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고착화하며 형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사라졌으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산하며 주변화 객체화를 만들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 평신도 중에서도 2류 인생으로 전락시킨다. 현대 미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동반자로 보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전근대적 계급구조 안에서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만을 따라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속히 평신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신분을 돌려주고, 사역을 돌려주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다움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

[246]Elizabeth S. Fiorenza, 57. Fiorenza와 Russell이 해방신학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세계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은 인간과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으로 본다. 그러므로 죄 또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해방신학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차원, 심리학적 차원, 종교적 차원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면을 볼 수 있다.

5장. 계급구조 하에서 평신도 소외에 대한 교육, 심리학적 분석.

초대교회 이후 4세기부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생기면서 중세로 들어와서는 이것은 구별이 아닌 차별로 이어졌고, 그 시대의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교회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중세시대의 그러한 계급적 차별구조가 종교적으로는 교권주의를 가져왔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가져왔다. 힘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주변화시키고 착취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감정은 소외의 문제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이 가져오는 문제는 소외의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교회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된다.

19세기 초에 Fichte와 Hege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소외'라는 말이 Marx가 '자기 소외'라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시대를 해석하려고 하면서부터 이 말은 사회학 이론에 도입되었다.[247]

20세기가 되면서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과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 소외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Pappenheim은 그 원인을 Tönnies 가 분석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론으로 설명한다. Gesellschaft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계약 관계로 만들면서 인간은 그 고유한 본질이나 가치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교환 가치에 따라 상품으로 규정된다.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는 소외라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248]

---

[247]Fritz Pappenheim,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10.

[248]Ibid., 57-61. 인간이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에만 중점을 둘 때, 우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2중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 분열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환가치가 가져다 주는 돈과 명예만을 구할 때, 우리는 생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인 생산활동에 자신을 내 몰아가는 것이 된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특별히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정치구조 안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이념과는 반대로 권력이 중앙정부나 정치 집단에 집중화 하면서 일반 백성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기분열을 가져오고,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분열을 일으키고 있다.[249]

이렇게 교환가치에만 중점을 두는 자기분열의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 교회가 동일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오직 직분의 측면에서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원론적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직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식으로 나아가 차별과 분리, 결국은 교회에서 평신도는 소외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 교회는 오직 성직자와 몇몇의 지도자(대부분 장로)에 의해 움직여짐으로 평신도들은 주변인으로 남게 한다. 이것은 성직자와 지도자들에게도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수 많은 성도들 속에서도 성직자와 엘리트 계층은 외로움을 경험한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 성도들은 오직 수동적인 청중으로 남게 되면서 서로를 소외시키며, 소외당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소외는 인간이 창조주를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재 그 자체로부터 소외(alienation)된 상태를 죄라 할 수 있다. Tillich의 말을 빌리면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며, 남으로부터 혹은 자신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실존의 신비와 깊이와 삶의 기원 및 목적으로부터 격리되고 이탈해서 분리의 심연에 있기 때문에 무의미감, 공허, 냉소주의, 절망 같은 것을 겪는다. 소외란 다른 말로 비인간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250]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자기 소외를 낳고, 자기 소외는 마침내 자기상실을 가져온다. E. Fromm은 신학적 언어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비신학적 언어로 소외라 했으며, Tillich는 소외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죄를 서술했다.[251]

---

[249]Ibid., 119.

[250]Ibid., 119.

[251]오세철, *조직행동* (서울: 박영사, 1983), 202-208.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체물을 찾게되는데 그것들은 보이는 어떤 형상 뿐만 아니라, 체제나 이데올로기, 제도, 기술, 소유들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을 때 성서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행위가 된다. 국가도 절대적 이기주의의 수단이 될 때 우상이 되고, 교회도 교회 지상주의에 빠질 때 신의 자리에 오르는 범죄에 가담하는 자가 된다.

1. 변증법적 사회화와 소외의 감정.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사회로 이동하였다. 이런 기계적 정보사회는 현대인들을 오히려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외의 문제이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의 관계로 만들고 결국 인간을 소외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소외란 인간의 삶의 근거, 사회 안에서의 안전한 위치, 그리고 세계 안에서의 인간적인 확신을 상실하여 좌절, 불안, 불안정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Marx는 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작업과정의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결과로 소외가 생겨난다고[252] 보아 주로 경제 영역에서 그 문제를 취급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외의 문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Seeman은 이러한 소외의 감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253] 첫째는 무력감으로 이것은 개인이 그의 행위가 그가 바라는 사회적 결과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느끼는 비관주의를 말한다. 즉 소외는 정치, 산업, 혹은 사회 질서의 영역의 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느낌인 것이다. 둘째는 무의미감으로 이것은

---

[252]Kar Marx, *Early Writings*, tran. by T.B Bottomore (New York : McGraw Hill, 1964).

[253]Melvin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4(Dec. 1959) 783-791.

개인이 그가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의 결여로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난다. 셋째는 고립으로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고 확립된 질서에 상반된다는 느낌이다. 넷째는 자기소외(self-estrangement)인데 이것은 자신을 이방인처럼 느끼며 자신의 인격이 다른 목적의 도구가 되며 자율성과 역할을 거부당한 느낌을 말한다. 다섯째는 무규범으로서 개인적 행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 규범들의 효과성의 붕괴 혹은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외의 문제는 특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현대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문제인 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반대로 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Peter L. Berger는 사회를 하나의 변증법적인 현상(dialectic phenomena)이라고 이해했다. 그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증법적 과정을 외재화(externalization), 객체화(objectiv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 라는 세 요소로 나누었다. 외재화는 인간이 그가 가진 속성을 반영하여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객체화는 일단 만들어진 사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내재화는 객체로 존재하는 사회가 그 사회 모든 속성을 인간에게 사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54] 어느 사람이 그 사회를 내재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이민자들이나 노인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그 사회에 구성원이면서, 또한 그 사회를 외재화, 객체화 했지만, 거기에 속하지는 못한다.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성도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에 속했지만, 교회를 자신들의 삶속에 내재화시키지 못하여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엘리트 계급이나 성직자 계급에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신들은 교회를 내재화했다고 믿지만, 자신들이 만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이 성직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결국 성직자 그룹들이 만든 교회를 성도들이 부인한다. 현대 문명이 자신을 만들어준 인간 공동체를 부인하듯이[255], 교회를 세운 성직자들을 교회가 부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소외

---

[254]Peter L. Berg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92), 15 – 16.

를 경험하며 서로에게 '타자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2. 기술사회와 평신도의 소외.

기술 발전으로 인간은 자연 사회에서 기술 사회로, 자연 문화에서 인공 문화로 옮겨졌다. 기술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역사성의 종교를 창출했다.[256] 그러나 반면 기술은 비인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Jacques Ellul은 기술의 발전을 '권력 의지의 추구'와 '자기 정당화'의 결합으로 이해한다. 기술은 대상화에서 시작되고 대상화는 무언가를 지배하려는 인식론적 작용이라는 것이다. 대상화를 통해서 대상을 지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기술은 모든 것을 지배의 효율성, 그 기능성 위주로 측정한다. 기술은 무엇과 그것의 효율성을 완벽하게 혼동한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기능과 효율성 위주로 본다. 사물을 대상화했던 기술은 이제 사람을 대상화했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권력 의지의 정당화는 자율성(Autonomie)을 전제로 한다. 자율성이란 기술 스스로 자기에게 법이 된다는 말이다. 처음 기술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이 스스로 목적이 되었다. 기술은 자기 원리 즉, 효율성에 의해 움직인다. 수단으로서 스스로 목적이 된 기술의 자율성, 배타성과 보편성을 두 축으로 한다. 배타성을 가진 기술은 다른 것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지배하고 군림한다.[257]

만일에 성직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대상화하며 자신들은 부족한

---

[255]C.S. Song, *아시아의 모테 신앙,* 이덕주 역 (Korea: 베네딕트 출판사, 1990), 206.

[256]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5), 7. 기술주의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 기술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저 세상으로 달려가는 종교성을 이 세상에 묶어 둔다. 초월과 내재의 이분법을 없애고 내재에서 초월을 본다. 그것이 기술적 세계관이 주는 기본적인 영성이다. 기술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으로 저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도외시하는 아편적 종교성에 머물지 않고 새 세상을 향해 지금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 종교성을 창출하였다.

[257]Jaques Ellul, *기술의 역사,* 박광덕 역 (서울 : 한울, 1996), 65-73.

것이 없으나, 성도들은 가르쳐야 할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면, 거기에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성직자나 지도자 그룹은 계속해서 평신도들을 대상화하고, 그들을 지배하며, 자신들은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평신도들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성례전에 대한 지식, 신학적 지식이 신 기술에 의한 특권층으로 그들을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 효율성이 문제가 되면 그 효율성은 합목적적 합리성으로 정의된다. 효율성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효율성, 목적성이 최고의 가치로 전락한다. 따라서 기술 사회인 후기 산업 사회는 Tönnies의 이익사회의 전형이다. 이익사회에서 인간학적 원리는 '합리적 의지' 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지(rational will)란 '유용'이라는 교환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가치를 무시한다. 이익사회에서는 질(quality)을 양(quantity)으로 변형시킨다. 인간적 관계가 수량화(quantified)된다. 여기에서는 '자연적 의지(natural will)'의 산물인 신뢰와 상호성이 자라진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 일하며 계약 안에서만 관계가 지속된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며 능률적인 사람이 곧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된다.[258]

그러나 공동 사회에서의 인간 관계는 친밀하고 지속적이며 각각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평가된다. 즉 신분은 성취적이기 보다는 귀속적이다. Max Weber는 '공동사회'에서는 이른바 '전통적' 권위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익사회'에서는 '합리적-법적'권위가 통합된다고 말한다.[259] 따라서 공동체가 해체된 이익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평신도는 관계에서 제외된다.

1960년대 유럽 사회는 전쟁의 폐허로부터 탈출하여 고도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생산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 역시 사회 보장

---

[258]Fritz Pappenheim, 90,91.

[259]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현욱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0), 386,389

제도 덕분으로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억압적 사회(대표적으로 관료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다. 공장은 대규모 병영 같고, 학교는 사회에 순응적인 인간을 만드는 공장으로 되었다. 결국 물질적 풍요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삶의 회복은 아득한 것 같았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물질적 풍요 시대에 존재하는 억압적 상황과 씨름한 학자가 Jürgen Harbemas와 Michel Foucault이다.[260]

이들은 근대를 이끌어온 이성이 이러한 억압적 상황의 원인이라고 근대적 이성에 비판을 한다. 즉 근대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근대적 이성은 한편으로 자연을 객관화하여 이를 지배하며 이러한 가운데 자연을 착취하는 대규모적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물질적 풍요는 달성했으나 인간 자신이 객관화되어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근대적 이성은 그 자신을 주체로서 해방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노예화시키는 이중적 결과를 자아내었다.[261]

인간을 합리적 의지에 의해 유용성으로만 평가할 때, 성경을 모르는 평신도, 성례전을 집행할 줄 모르는 평신도는 교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일만 하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유용성으로만 평가하는 교회 속에서는 평신도가 설 곳이 없어진다.

3. 소외의 구조적 죄의식과 의식화 교육.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목적을 달리해왔다. 그런데 Paulo Freire는 지금까지의 교육은 억압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방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억압의 길들임'이라는 것이다. 피억압자는 이 길

[260]Jürgen Harbermas는 근대적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모더니즘 기반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Foucault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반 이성의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입장(포스트 모더니즘 문제 의식)을 취하고 있다.

[261]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편, *삶과 철학* (서울: 동녘 1994), 127-129

들임에 의해서 억압적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에 빠진다.[262] 그 결과 피억압자는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되며 억압자에 의해 그에게 내면화된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간, 순응하는 인간이 된다. 한편으로 억압된 자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억압자를 닮으려는 억압자의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 의식 구조 가운데 억압된 자가 바라는 해방이란 억압자가 됨을 의미할 뿐이다.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이중의식 구조를 변혁시키는 '의식화'로서의 해방 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한국 성도들은 아주 오랬동안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아왔다. 신학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의식은 목사만을 제사장으로 본다. 그래서 목사에 대해 저항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목사에게 복종한다. 목사의 명령을 어기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다. 이러한 억압의 죄의식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평신도들은 피억압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목사들도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중구조의 전통이 목사로 하여금 억압자가 되게 한다.

Freire에게 있어서 의식화란 "자연과 사회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정신 상태의 변화"이다.[263] 그는 의식화 교육의 방법으로는 문제 설정식 방법(problem-posing method), 대화(dialogue), 그리고 프락시스(praxis)를 들고 있다. "문제 설정식 방법이란 교사 주도식, 은행 저축식(banking system) 방법[264] 또는 학생은 듣고 교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교사와 학생이 인간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찾고 극복하는 길을 찾는 교육 방법이다.

대화란 반성(reflection)과 행동을 수반하는 언어를 통해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과 성찰 어느 한쪽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

---

[262]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90), 48.

[263]오인탁 외 4인 편저, *기독교 교육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협회, 1994), 143.

[264]Paulo Freire, .57

종의 선전에 그치고 만다. 동시에 “프락시스는 반성과 행동의 연결이요 반복이다”[265] 그러므로 의식화란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근거를 둔 대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된 비판 의식의 개발이라 말할 수 있다. Freire는 이러한 교육이야 말로 민주적 교육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국가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화는 생각의 변화, 토론, 토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작업 등을 포함한다.

Freire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을 다음 4가지로 구분했다.[266]
첫 째, 본능적 의식(Intransitive consciousness) : 침묵의 문화, 둘 째, 반 본능적 혹은 주술식 의식(semi-intransitivity or magical consciousness) : 자기 비하, 지배 문화의 부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배 계급에 의존하는 문화, 셋 째, 유치하거나 반자각적 의식(naive or semitransitive consciousness) : 비판시작, 넷 째, 의식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 비판 의식으로서, 이는 의식의 최고 수준을 말한다.

Freire는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계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비인간화란 참 인간성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267] 이다. 인간 존재야 말로 “역동적 존재”[268]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대화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A가 B를 착취하거나 혹은 책임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아 확인의 추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상황도 억압으로 규정한다. “억압자들이란 손상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실재를 주입시키고 조정하는 사람들"[269] 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사나 교회도 억압자가가 될

---

[265]Ibid., 68-69.

[266]John L. Elias, *의식화와 탈교육화,* 은준관. 김태원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129-130.

[267]Ibid., P.36.

[268]Paulo Freire, 19.

[269]Ibid., 75.

수 있다고 본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라는 말은 인간의 인간화를 의미한다. 억압이란 항상 폭력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인간을 사물처럼 다루기 때문이다.[270]

Freire는 남미의 교육 과정을 길들이기(domesticating), 영양소 먹이기(nutritive), 그리고 저장식 교육(banking system) 이라고 불렀다. 교육은 문제의 노출식이어야 하며, 비판 없는 전수는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는 길들이기식 교육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인 은행 저축식 교육은 노동자가가 자기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듯이 학습자는 교육 과정으로부터 객체가 되고, 남자와 여자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짓 이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Freire가 말하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와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교사는 자신이 미리 결정짓고 지시하고 조종하지 않으나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학습자들과 함께 자료를 찾고 제공하며 또한 자기의 견해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는 교육의 마지막 목표를 인간화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원죄란 하나님과 인간이 대항하여 싸우는 악마의 세력을 말하며 참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271]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가 정치적인 투쟁 과정에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 곧 억압하는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교회는 자신을 글자-속임수(paper-shuffling)에 묻혀, "부르쥬아의 따뜻한 가슴속에서 추워서 죽어가는 모습"[272]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교회 교육이란 부분을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전체를 재점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혁명이라는 뜻이다.

4. 평신도 소외의 극복을 위한 교회교육 방법론들.

---

[270]John L. Elias, 86.

[271]Ibid., 59-62.

[272]Ibid., 59.

교회가 기관화 하며,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자본주의화 할 때, 차별과 억압을 가져오며 이런 구조들은 평신도와 성직자 서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교육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1) Carl Rogers의 비지시적 상담.

Carl Rogers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아니라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facilitator)요, 학생은 학습자(learner)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촉진자도 학습의 촉진자로서 일하는 동안 학습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지시적 모형에서 사용되는 기본 도구는 교사가 학습자의 사고와 느낌을 반사하는 모형인 "비지시적 상담 방법"[273]을 사용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는 몇가지 가성을 성정하여 교육의 변화를 기대한다. 전통적인 교사와 학생, 즉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진정한 학습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 학습자 자신이 학습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한 행동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학습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274] 촉진자는 외부적인 확경보다는 개인의 신뢰감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촉진자의 사상이나 감정도 학습자들이 동등하게 취급하게 하고 그들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촉진자는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과 분위기를 민첩하게 인식하여 집단 스스로가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런 관계를 '동반자(partnership)'[275] 관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273]김재은, *성인 교육론* (서울: 성광출판사, 1991), 172

[274]Ibid., 173-174.

[275]Ibid., 176.

비시적 방법이 학습자 개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공동의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는 방향을 잃기 쉽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2) Evan Illich의 탈학교 교육.

한편 탈학교 교육을 주장하는 Evan Illich의 중요한 교육 개념도 가르침(teaching)이 아니라 학습(learning)이다. 그는 오늘의 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내면적 모순은 사회 전체가 가지는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교육과 학교는 기존 사회 구조를 규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276] Illich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자유와 존엄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조직과 기구의 평가 기준도 인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인간 개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는 특히 남미의 학교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제도의 원인이 되며, 계급 구조, 사회 통제를 유지하는 수간, 그리고 교육 기회 등의 평등함을 효과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도구"[277] 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식민지화 학교 교육의 탈학교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문화적 식민지화 현상은 미국의 문화와 경제를 최상의 것으로 수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교육이란 삶의 독립적인 자각의 성장이어야 하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의 성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만연된 가치의 기구화(institutionalization of values)는 바로 모든 제도들의 가치가 상품으로 전락되고 있는 자본주의 교육의 문제점이다. 학교 졸업장과 학위를 가진 한 인간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소비자 군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Illich의 요구가 단순한 학교 교육의 해체 곧 학교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나 전학교 시대(pre-school)로 복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료화, 기구화, 비인간화, 상품화,

---

[276]John L. Elias, Ibid., 45.

[277]Ibid., 52

자격증 수여하는 곳, 혹은 엘리트 양성서가 된 학교 구조를 초월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Illich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278] 으로 보았다. 그가 기대하고 있는 교회상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찾아가는 작은 공동체들로 꾸며진 가족 형태의 교회이다. 지나치게 관료화, 직업화된 교회 계급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279] 또한 조직을 우선하는 대형 교회는 회중 위에 규칙, 시행 세칙, 그리고 획일성을 강요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구체적인 요구를 듣는 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Illich는 교회가 성직 계급을 둠으로 회중을 참 종교로부터 소외시키고 평등을 방해하고 만남(face to face encounter)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는 경이로운 만남의 자리여야 하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진정한 형제애로 결속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 교육의 장래를 가늠하는 신학 교육은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신학교가 단순히 교회 성직 수급을 위한 전문인 양성소가 되는 데에는 "산업적 양식에 의하여 대량 생산되는 상품"[280] 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엘리트 중심의 교육은 살벌한 경쟁적 풍조를 조장하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형제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문적인 엘리트들이 대중의 삶을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을 위험부담을 가진다. 엘리트들에게는 대중과 함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3) Thomas Groome의 나눔의 실천 교육.

Thomas Groome의 나눔의 실천 교육(shared praxis)은 Aristoteles와

278Ibid., 34.

279Ibid., 23,24.

280Ibid., 97, 117.

Harbermas의 인식방법과 Freire의 의식화 교육을 교육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Aristoteles의 세가지 인식 방법, *theoria, praxis,* 그리고 *poiesis*를 인용한다. 이것들이 제시하는 삶의 방법들은 사색적인 생활, 활동적인 생활, 그리고 생산적인 생활이라고 말한다. 또한 Harbermas의 인식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삼중 구분(threefold division)을 제시한다. 이는 Empirical Analytical Science, Historical Hermeneutical Science, 그리고 Critical Science이다. 그는 Karl Marx의 인식방법과 환원주의를 넘어서 적절한 사회이론을 구성한다. 주체자의 행동과 반성(reflection)은 세상에서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과 인식에 대한 praxis의 방법으로서 기본이 된다.[281]

Groome이 정의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응답해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인식 방법은 성서에서의 인식과 일치해야 하며, 기독교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성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성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던가 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신(神)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기독교 교육은 성서의 Story가 말해 주는 Vision에 의하여 우리 이전의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신앙의 Story에 의하여 알려진 인식에 대한 성찰, 경험, 관계 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282]

4) J.W. Fowler의 신앙 발달의 6단계.

J.W. Fowler는 신앙의 발달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직관적-투사적 신앙(제1단계), 신화적-문화적 신앙(제2단계), 비분석적-관습적 신앙(제3단계), 주체적-반성적 신앙(제4단계), 접속적 신앙(제5단계), 보편적 신앙(제6단계)이다.[283]

---

[281]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Harper, San Francisco :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 1980), 155-157.

[282]Ibid., 145.

[283]James W. Fowler,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49-265

그는 아직도 많은 미국 교회와 회당이 제 3단계의 신앙, 즉 비분석적−관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교회의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신앙으로서 자신이 검토되지 않는 지식과 가치체계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한다. 이런 신앙은 제의적 상징들을 내용 자체로 이해하고 기관을 교회로, 교리를 복음으로, 그리고 조직 자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인 외적 권위를 가지려는 교회 지도자들이 회중으로 하여금 기독교적 상징들에 매달리게 하며 기독교 신학의 암묵적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를 흉내내게 오도하고 성서적 신앙을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신앙유형은 미국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도 하다.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적 판단이 충분하게 성숙되지 못한 이 신앙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 있는 가치와 신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객관화시키고 검토하지 못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신앙이란 기독교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아울러 신앙이 이렇게 기계적 발달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교회 교육을 통하여 Fowler가 말하는 제 6단계의 보편적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과제는 교회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편적 신앙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실을 변혁시켜 초월적인 현실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단계이다.

5) James E. Loder의 삶이 변형되는 순간.

James E. Loder는 사람의 신앙이 어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에 봉착한 개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영성, 즉 4차원성을 회복하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변형"[284] 된다고 본다. 변형 사건에서 서구의 기독교적 견해가 동양적인 것과는 다르며, 또한 서구인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

[284]James E. Loder, *삶이 변형되는 순간*, 이기준, 김성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13-165.

다고 지적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역사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적인 점을 배제시키고 있다. 동양적인 견해가 환상적으로 나아간다면, 서구에서는 과학 또는 기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적 견해가 은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동양적 견해는 과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주장하는 변화란 기독교가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생의 체험이나 회개와 같은 의미 이상을 함축하고 있다. Loder의 변형사건을 다루고 있는 중심 개념은 자신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을 학문으로 접목시켜 4가지 차원들로 설명한다. 현실이라 부르는 삶이 영위되는 세계(1차원)속에 있는 사람은, 자아를 발견(육체로서의 자아, 자기 성찰로서의 자아, 양심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영으로서의 자아 : 2차원)하고, 공허 (無, 부재, 고독, 죽음, 결핍, 상실, 수치, 죄의식, 미움, 악마적인 것과 같은 것 : 3차원)를 뚜렷하게 느낀다. 이때 위로부터 오는 거룩성(4차원)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 모호성이 팽배하여 걷잡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빛, 능력, 아름다움, 영광 등이 흘러 넘치는 상태로 확장된다. 이렇게 하여 존재자체로부터 신비로운 현현과 두려운 황홀경을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확신으로 이어지는 변형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눅24장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육은 자본주의의 기득권과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르침은 있으나 배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은 있으나 학문은 부재한 상태에 있다. 관료체제와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장으로서의 교육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 속에서 가두며, 종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교육을 변혁시켜야 한다. 한국의 현실은 계속해서 대형화, 획일화, 기업화, 평준화를 향해 달려가는 교육이다. 정부와 기관, 교회에 의해 길들여지는 교육을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모두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시대의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소외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인간성 해방의 교육이 될 것이다.

5. 소외와 집단 무의식.

Freud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특성, 곧 개개인의 심리적 억압에 의해서 채워진다. 그러나 Carl G. Jung은 사람의 무의식층을 두 가지로 인식하였다. 하나는 개인적인 무의식이요, 또 하나는 비인간적 혹은 초개인적 무의식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집단적 무의식"[285] 이라고 하며, 개인적인 것과는 인연이 없고 보편적이며 또한 객관적으로 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Jung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종교적 심성과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개인 무의식층 밑에는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집단 무의식층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집단 무의식층은 인류의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의 전통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공통적 주제를 담은 상징들과 원형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1) 무의식과 전의식

Ernst Bloch에 의하면 무의식에는 아직 의식되지 않는 것과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두 개의 영역이 포괄되어 있다. Freud는 다만 후자만을 무의식이라고 했다. Freud와 Jung은 무의식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고 있거나 무의식이 이미 기존하는 의식 아래 부분적으로 위치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Bloch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무의식이란 의식되지 않는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 의식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무의식적이지 않고 전의식(前意識)이라 함이 옳다고 말한다.[286]

Jung의 관심의 초점은 인종, 문화, 종교,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서 인류 공통적인 문화 유산의 성격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어느 한 민족의 문화, 역사, 전통, 종교 등의 옷을 입지 않고는 드러날 수 가 없다. 그는 집단

[285]Carl G.Jung,, *무의식 분석*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92), 98.

[286]Ernst Bloch, *희망의 원리*. 박성호 역 (서울: 솔출판사, 1995), 218.

무의식과 삶의 스타일의 관계를 서구인들의 경우에서 그 예를 든다.

서구 문화가 기독교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과 반대되는 입장은 그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반대 입장은 지배적인 근본 견해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입장이 편협하고 어색하며, 절대적으로 될 수록 다른 견해에 대하여 그 만큼 더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287]

역시 한 개인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개인 무의식층 안에도 그가 속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 함께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종교와 가치관들의 민족적 집단 무의식층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한민족의 역사적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층을 공유하고 있다. Jung의 표현대로라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은 한국인의 고유한 꿈과 상징들과 신들의 세계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세계는 한민족 문화와 정신의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한국 교회 안의 집단 무의식.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이 만열 교수는 한국에서 소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기독교 문화는 없다[288] 고 말한다. 한국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물질 문화는 적응하였고, 행동 문화는 충돌하였으며, 정신 문화 특히 기독교의 가치관은 도리어 한국 문화에 몰입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자성과 가치관이 한국 문화에 몰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한 견해라고 본다. 왜냐면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인들의 가치관과 신학 사상 때문에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충돌(Christ against Culture)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구인들이 전해준 서양 기독교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

---

[287]Carl G. Jung, 116-117.

[288]기독교 사상 400호 기념 논문집, 이만열, *한국 문화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74.

독교 문화는 기독교를 한국의 것으로 토착화하는 과정도 없이 한국 문화, 재래 종교, 도덕, 가치관 등과 뒤섞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가까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과 기독교 복음의 혼돈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몰입했다면 한국문화가 기독교를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가 한국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 역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기독교 전래 2세기를 경과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기독교적인 요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세기경에 중국 당 나라에 들어간 기독교(Nestorianism)는 경교(景敎)라 이름하여 당조 285년 중 약 250년 동안 크게 확장되었다. 경교는[289] 중국화를 지향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에 토착화되지 못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타종교와의 타협만을 모색했기에 근 700년간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 중국 문화에 영원히 흡수되고 말았다. 기독교의 토착화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집단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 기독교는 복음의 왜곡과 변질을 막기 위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과 기독교의 복음을 구별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한국 교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정신 속에 형성된 집단 무의식을 복음으로 승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인의 가장 일반적인 집단 무의식은 서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직장, 사회, 예술계, 문화계, 종교계는 물론 모든 모임에는 서열이 있다. 서열은 바로 한국인의 존재 방식이며 단체의 구성 요인이다. 서열에서의 이탈은 바로 한국 사회로부터의 파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열의식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언어 가운데 '우리'라는 말처럼 상투적인 용어는 없을 것이다. 한국인은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며, 부부간에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다. 이것은 분명 단어의 무의미한 남용이다. 그러나 이 말이 한민족 속에 집

---

[289] 김광수, *동방 기독교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201-202

단 무의식으로 형성되기까지 본래적인 목적과 가치관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것은 씨족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연대성, 일치성, 동질성, 형제애 등과 같은 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민족의 유산은 교회 공동체가 부활시켜야 할 가치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이 나(개체)라는 단어가 언어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친 개인주의를 불러오듯이, 한국인이 의미 없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은 허세와 체면이라는 생활양식을 낳게 된다.

3) 목회자의 권위와 권위주의.

Max Weber는 힘과 관련된 *charisma*를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힘과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적인 성격"[290] 이라고 정의한다. 카리스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알맞은 과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명을 내세워 사람들이 복종하고 추종하기를 바란다. 카리스마적 지배는 어떤 성질의 것이건 영웅성에 대해 헌신하려는 집단에서 발생한다[291]. 전쟁 영웅을 추종하는 집단에서 국가가 탄생되듯이 예언자, 예술가, 철학자, 학자, 개혁자 등의 집단에서는 교파, 아카데미, 학파와 같은 것이 탄생하며, 카리스마적 문화 이념의 추종 세력에서는 당파들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카리스마 운동에 의존하려는 무리가 생기고 지도자는 영웅으로 변신한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권위주의자와 회중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자율성이 파괴되고 개인은 집단의 종속물이 되며 동시에 엘리트 계급과 소외계층을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Jackson Carroll은 권위란 지도자가 가지고 있거나 추종자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전문성, 특성, 그리고 자질의 결합에 기초한 기관이나 특별한 집단속에서 "지도력을 수행하는 권리"[292] 라고 말한다. 권위는 권위주의와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성직자의 권위를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고,

---

[290]Max Weber, ch.5.

[291]Ibid., 225,226.

[292]Jackson W. Carroll, *As One With Authority* (Westminster, John Knox, 1991), 13.

성례를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평신도를 구비시키며 관리하기 위하여 안수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올바른 권위는 성령을 통하여 회중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교회를 해방시키는 복음적 지도자,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자기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목사의 권위가 도전을 받으며 추락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는 사회의 과학화와 기술 개발에 따른 전문화 및 기술 축적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목회라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 보려는 경향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신앙을 오도하는 각종 종교 서적들, 신학적 기초가 전무한 성서해석, 설교집, 설교 테이프 등 분별없는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에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목회자들의 전문성과 돌봄은 불신되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 만인 제사장설을 자기 본위로 이해함으로써 성직 자체를 혐오하는 풍조를 가져오기도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곧 권위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재력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목사를 고용인으로 보려는 현상도 목사의 권위를 위축시키는 큰 요소가 된다. 또한 세속화와 물질주의와 목사들의 비윤리적 생활에서 드러나는 위선은 교회와 목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가난, 질병, 인권, 전쟁,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능력을 잃게 된다. 또한 이민 목회에서는 언어, 문화 그리고 인종적인 장벽 때문에 목사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6장. 부름 받은 자의 사역 회복을 위한 목회 전략과 실제.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주류교단들은 교회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주류교단들이 인권 문제와 반전 운동에 맞서서 투쟁해 왔는데 이것들이 주류교단들을 위협하고 분리시켰다. 주류교단의 성도들은 신흥종교와 동양 종교에 쉽게 휩쓸리고,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고, 늘어가는 이단에 쉽게 빠진다. 교회의 가르치는 사역(teaching ministry)은 교회의 사역들 중에 본질 또는 존재의 부분이다. 이 기능 없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으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293] 많은 학자들이 케리그마와 디다케 또는 선포와 교수를 구분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설명에서 교수, 설교, 그리고 치유 사역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만 교회가 조직 되었을 때 교회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었을 뿐이다.

교회의 가르침의 사역은 규범적 신념과 실천을 결정해야 했다.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세계를 해석할 수 있고, 세계 안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정의, 규범, 그리고 실천의 복잡한 형태에 의해서 함께 묶여진다.[294] 이런 신념과 실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세계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이 규범적이다.[295] 여러 세기에 걸쳐 규범

---

[293]Richard R. Osmer, *교육 목회의 회복*,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6-27.

[294]Richar Osmer는 여기서 Max Weber의 사회학 전통에 서있고, 어느 정도 Emil Durkeim을 따르고 있다.

[295]Ibid., 26-29. Clifford Geertz 는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 Basic Books, 1973)의 4, 5장에서 문화와 종교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잘 서술하고 있다.

적 신념과 실천에 관한 교회의 결정은 그 시기에 교육적 활동을 이끌어 주는 기독교 교육론과 연관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첫 세기 동안 세례식에서 사용되었고, 세례 문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던 신조는 공동체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한 신념을 어떻게 합의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신조는 교회가 교인을 교육하도록 해주는 자의식적 이상 또는 교육론의 역할을 한다.[296]

처음부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신앙을 모든 종족,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시기와 연관시킴으로써 그리고 자폐적 분파(self-enclosed sect)를 벗어나고자 함으로써 '보편적(catholic)'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것이 교회를 지속적인 신앙의 재해석 과정 안으로 몰아넣었다.[297] 교회의 교수직은 전달하고 보전하는 기능과 재해석하는 기능 사이의 긴장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과제는 근대 개인주의와 보수적 기독교의 문화적 전통을 넘어선 제 3의 길을 찾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의 '영성'이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초기 개혁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성화 교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가장 깊은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인간 정서와 행동의 자리인 마음(the heart)의 일을 다룬다. 이는 두 가지 차원, 즉 태도(attitude)와 기질(disposition)로 구성된다고 설명되어 왔다.[298] 태도는 세계 또는 그 일부를 향한 개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시간을 따라 비교적 지속성을 갖는 신념과 정서의 한 집합체를 포함한다. 기질은 특정 방법으로 행동할 개인의 준비를 말한다.

인간은 많은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 태도와 기질을 갖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을 때 이것은 경건이 된다. 칼빈은 경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관

---

[296] Ibid., 29.

[297]박익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운동들"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48,49.

[298] James Gustafson, *Ethic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 Theology and Ethic. vol. 1*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198 - 199.

한 지식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경외(reverance)"라고 정의했다. 종교개혁에서의 경건은 칼빈이 말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영성’에 의해 묘사된다. 이 영(spirit)은 인간의 죄와 한계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과 그리고 개개 신자들의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객관적 수단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에 근거를 둔다.[299] 칼빈은 기독교 경건의 핵심에 배우고자 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라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300] 배움의 영은 신자의 삶의 첫 단계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만 새롭게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흥분과 열정의 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경건을 설명해 주는 태도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욱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장한다고 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다.[301]

1. 교회 교육 방법론들.

교회 교육은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가르쳐야 하기에, 어느 한 교육 방법으로 다 소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에 임하는 대상과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칼빈의 ‘배우고자 하는 영’ 안에서 Paulo Freire의 Pedagogy에서 의식화 교육과 Malcolm Knowles의 Andragogy 방법과 Howard Clinebell의 ecotheraphyd와 ecoeducation의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1) Paulo Freire의 교육론.

Freire는 인간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모든 억압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 억압

---

[299]Richard Osmer, 65.

[300]Ibid., 68-69. Osmer는 칼빈의 시편 주석을 인용하면서 칼빈 자신의 기독교적 경험을 묘사한 한 예를 그 증거로 든다. 칼빈은 로마 천주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움성 에로의 회심(*conversion ad dociliatem*)이라고 자신의 회심을 표현했다.

[301]Ibid., 69. 이 부분에 대해 Wilhelm H. Neuser는 배움은 ‘신념에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라고 주장하며 Osmer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의 희망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의 교육론은 유토피아적 교육론이다. “유토피아적이란 단순히 이상주의적, 또는 비현실적이란 의미가 아니라 결별(denunciation)과 예고(annunciation)의 참여를 뜻하기 때문이다.[302] 그에게 교육은 인간에 대한 비전과 현실 세계에 대한 비전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교육론은 교육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비인간화 현실을 분석하는 가운데 비인간화 현실에 결별을 고하고 인간 해방을 명분으로 한다. 나아가 비인간화의 변형을 예고하는 대화적 프락시스를 그 실천으로 하는 예고된 미래를 성찰하고 행동을 통해서 성취하려 애쓰는 노력이라고 교육론을 정의한다. 따라서 교육은 언제나 유토피아적이며, 교육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차야 한다고 말한다.[303] 이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Freire는 의식화 문제를 다룬다.

오늘의 역사 속에는 타락이 있고, 그 타락은 억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억압하는 힘을 ‘지배문화(dominant culture)'라 부르고, 이것에 의해 ‘종속문화(dependant culture)' 혹은 소외문화가 나타난다고 본다.[304] 이러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방을 필요로 한다. 이 해방은 인간과 세계가 참여된 변증에서 오는 해방이다. 그는 ‘주–객’사이의 만남과 참여에 의해서 창조되는 변증의 역사에서만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만이 역사는 변혁되어지고, 인간은 비로서 해방된다고 한다.[305] Freire는 “피억압자가 없으면 억압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306] 그는 먼저 피억압자를 피억압자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억압자가 억압자이기를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Freire에게 있어서 교육과 행동의 주체는 언제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학생 자신이 된다.

---

[302]Paulo Freire,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교육* 채광석 역 (서울:한길사, 1979), 35.

[303]김재은, *성인 교육론*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55.

[304]Paulo Freire, 33.

[305]Ibid., 48.

[306]Paulo Freire,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교육*. 17.

Freire가 해방의 장애물로 보고 있는 것은 '억압의 길들임'이라는 것이다. 피억압자는 이 길들임에 의해서 침묵의 문화를 갖게 되고 '이중성'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침묵의 문화'란 억압적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숙명주의를 말하며, 그 결과 억압적 상황에 저항하는 대신에 죄의식을 갖게 되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인간'[307]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간, 순응하는 인간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압자는 한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는 그들 자신의 의식을 갖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억압자를 닮으려는 억압자의 의식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성의 의식구조에서 바라는 해방이란 피억압자가 다시 억압자가 되는 하나의 자리 바꿈에 불과하다.[308]

Freire의 교육의 목적은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는 '대화의 만남', 이중성의 의식 구조를 변형시키는 '의식화'로서의 해방 교육을 의미한다.[309] 교육이란 인간과 역사의 자유(창조라는 뜻에서)를 위한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만남인 것이다. 여기에서 '의식화'가 요청되어지는데,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근거를 둔 대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된 비판 의식의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310]

첫째 단계에서는 피억압자들을 목표로 한다. 피억압자와 억압자의 문제, 억압에 의해 고통당하는 인간의 문제가 주요 주제로 등장하며,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피억압자들은 억압적 세계의 장막을 벗기고, 진정한 대화로 들어간다. 그것을 프락시스로 본다. 프락시스란 반성(reflection)과 행동(action)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

---

[307]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19.

[308]Ibid., 42,43.

[309]Ibid., 40. 인간주의 교육학자인 Letty M. Russell은 그의 책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에서 인간화가 그 장이 되는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대화와 참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대화 속에서 인간들은 얘기하고, 함께 연구하고, 사고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 연구 과정 속에 그리스도는 현존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상 대화가 가능하여지는 매개는 참여에 있다고 봄으로써 대화는 '참여'된 사람들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310]Ibid.. 19. 의식화(conscientization) 란 "사회, 정치, 경제 모순을 인지하는 학습 사건이다. 아울러 실재 속에 깃들어 있는 억압적 요소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식화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적인 주체로서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다.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성과 행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연과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 세계의 변혁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구질서의 신화를 제거하는(de-mystifying work)과정을 통하여 이 교육은 피억압자에게 속하기를 그치고 영구적 해방의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같은 '유토피아'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서 '결별'과 '예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교육은 기존 질서에 대한 고발과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상황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의 예보를 제시하는 교육이다.[311]

오늘날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어 있어, 성속의 구별을 이분법적으로 하며,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평신도는 세속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 평신도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방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의 요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과 삶의 형태에서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며,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평신도가 자신의 자리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스스로 피억압자의 자리에 들어가며, 성직자들은 어느새 억압자의 자리에 서있게 된다.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며,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첫 번 종교개혁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면, 다시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일깨우는 의식화 교육이 있어야 한다.

(2) Knowles의 Andragogy 교육 방법.

Malcolm Knowles는 pedagogy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andragogy를 성인 교

---

311 Paulo Freire,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교육*, 35-36.

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pedagogy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지식의 전수라는 것과 교육 목표와 학습 과정이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andragogy는 성인들의 경험, 성숙 뿐만 아니라, 전 인간 학습에 영향을 주는 교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312]

Andragogy와 Pedagogy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 Pedagogy에서의 학습은 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의존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며 여기에선 learning(배움)이 아니라, teaching(가르침)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에서 가르치는 자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자극하는 돕는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풍부한 삶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Andragogy는 성인의 경험을 학습 자료로 쓸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 실험적이고 참여적인 분임 토의, 사례연구, 역할 연극, 공동 작업, 협의, 상담 방법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한다.[313]

셋째, 학습자의 발달 과제에 있어서, 사람은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70세까지는 학습 능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성인에게도 어린아이들처럼 육체적 성장이나 이에 비례하는 인지의 발달이 교육의 과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른 발달 과제가 있다.

넷째, 학습 내용에 있어서, 교사 중심교육은 아동의 논리 발전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된 주제 중심의 교육이다. 그러나 자율 학습에서는 당면한 문제와 성취하고자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필요와 욕구, 그리고 관심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한

---

[312]Malcolm S. Knowle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Chicago : Follett. 1980), 43,44.

[313]R. E. Y. Wickett, *Models of Adult Religious Edcation Practice* (Alabama, Birmingham :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1), 46-47.

다. 교육의 내용은 ‘이 과목이 무엇입니다’라는 소개가 아니다. 언제나 먼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과목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시간 중에 학습 동기에 있어서, 교사 중심의 학습 동기는 외적인 상벌, 때로는 점수와 진학에 연관된다. 그러나 자율 학습의 동기는 해결이나 과업 완수를 위한 내적 자극과 호기심이다. 학습자들은 학습을 통하여 자기 충족의 가능성과 개선이 가능할 때 자신의 바램과 현 상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해결 능력을 비교할 때, 학습 필요성이 자극된다.[314]

여섯째, 학습 적용 시기에 대해, pedagogy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배운 지식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성잗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율 학습의 내용은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기에 적용의 현재성을 띤다. 성인 학습자의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욕구는 전통적인 정보 축적을 위한 교실에서보다 문제 해결 집단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충족된다.

Knowles는 위의 이론에 근거해 Andragogy 교육 방법론에 3가지 가설을 전제한다. 첫째, 성인도 배울 수 있다. 둘째, 학습이란 정보의 전수가 아니라 내적 변화의 과정이다. 셋째, 학습을 촉진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가)학습자들이 학습 욕구를 가지는 것, 나)학습 환경은 신체의 편안함, 상호 신뢰와 존경, 경재 아닌 상호 조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성장 공동체의 특징인 상이점의 수용 태세 등을 갖춘 분위기, 다)학습자들이 학습 경험의 목표를 자신들의 목표로 감지하는 것. 라)학습자들이 학습 진행의 계획과 운영에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학습을 위하여 자신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마)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 바) 학습과정이 학습자들의 경험과 연관되고 학습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이 응용되는 것. 사)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성인이 어떻게 배우느냐하는 질문은 성인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질문보다 훨씬 중요하다.[315]

[314]Ibid., 11-17. 성인교육이 요청되는 이유는 1. 사역에 대한 숙련, 2. 개인 성장에 대한 학습, 3.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학습, 4.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한 학습, 5. 학습의 목적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 학습 경험 편성의 기본 과정으로 7가지 요소가 있다.

과정 1은 학습 환경 조성하기로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습 활동 및 자료 준비, 학습 공간, 교실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 상호 신뢰와 존경하는 분위기, 학습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과정 2는 학습 계획 수립하기이며 성인들의 욕구와 흥미 및 문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학습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이 없는 것을 교육하려 할 때, 학습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학습 계획 위원회 구성, 목적 설정, 프로그램의 범위 결정, 계획 내용을 문서로 작성, 인적 자원 선정 및 훈련, 일정표와 자료, 시행의 문제점, 평가 기준, 보고의 형식을 세워야 한다.

과정 3은 성인의 욕구와 흥미를 진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로는 육체적 욕구, 성장의 욕구, 안정감의 욕구, 새로운 경험의 욕구, 애정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또한 교육적 욕구로서 이 영역은 인간 성장의 기본적 욕구가 흥미로 발전되어 교육적 욕구가 되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그 관심을 잘 인도함으로써 스스로 성숙을 향해 가도록 하고, 성인 교육의 틀이 이룩되도록 하는데 있다.

과정 4는 목표 설정하기 이다.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목표 설정에 참여해야 한다. 소집단일 때에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고, 대집단일 때에는 그것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학습 목표는 학습 활동에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며 학습 평가에 기준을 제공해 준다.

과정 5는 학습 경험 편성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상세하고 정확해야 한다. 학습 경험 편성에서는 광의의 목적, 소 목표들, 주요 요소들의 개요, 편성의 제시와 시행의 방법들, 소요 시간, 각종 과업과 책임의 분담, 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정과 자료, 그리고 진행하는 팀과 이 활동을 승인하고 후원할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함께 수록해야 한다.

과정 6 단계는 학습 경험을 시행해 보는 것이다. Andragogy 원칙에 의해서

[315]김재은, 131-168.

지도자의 역할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지식의 전수자나 기술의 전달자, 또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율 학습 과정을 위한 촉진자이며 자료 제공자이다. 좋은 지도자란 지식의 소유자인 동시에 숙련공,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자,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경험 있는 자, 성인이 아동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과정 7은 평가의 단계이다. 평가란 여러 해 동안 교육 과정의 비판적 요소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는 실제 행하고 있는 성인 종교 교육자들에게는 활력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초점을 모은다. 평가의 기본 목적은 성장과 개선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평가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계획의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계획의 구조, 결정 과정, 인사 문제, 환경, 재정, 교사 모집,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의 문제들을 행정적 차원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평가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 즉 목적, 방법, 기술, 자료 등을 가지고 기대하는 결과의 개선을 위해 평가한다.

참여자와 촉진자, 프로그램 편성자와 직원 및 위원회가 공동으로 집단 토의나 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룹에 초점을 둔 학습이라 하여 개인의 욕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평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형식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통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가 있다. 형식적 평가는 이미 시작했거나 곧 시작하려는 특별한 프로그램의 전체나 일부분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통계적 평가는 어떤 프로그램, 과정, 학습 활동의 완결에 실행된 평가의 형태이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장점을 판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성림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의 주제와 연결시켜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토론의 참여자로서 함께 대화해 나가며 현실 속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성경 앞으로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날 배울 과제가 있지만, 그것을 다루지 못

하고, 현실에서 부딪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하다가 끝날 때가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런 토론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내적 변화로 이끌어 가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공부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졌던 스트레스와 불안감, 소외감, 상처같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3) Howard Clinebell의 ecotherphy와 ecoeducation.

이 교육 모델은 생태학적 근거를 가진 인간성에 근거한다. 즉 전 인간 존재 − 육체, 마음, 정신 그리고 관계성−가 땅의 근거성에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성장하고 존재하는데, 인간이 지탱하고 있는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자연성이 위협을 받으며 인간 존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성의 회복이 가장 적합한 교육이며, 나아가 가장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치료이다.

Ecotheraphy의 중심적인 전제는 인간 초기의 자연적 세계와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body-mind spirit)기관의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는데 아주 심원하고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언어 이전 단계에 아주 깊게 자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한 부모의 느낌, 태도, 자연과의 관계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은 문화의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16]

이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성과 정체성은 인간이 어렸을 때 그가 의지하던 가장 중요한 대상을 내면화할 때에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요구는 완전한 환경에 대한 필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개인의 관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자연보다는 어머니이다. 이것이 대상 관계 이론 (Object Relation Theory)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이론이 Mother Earth 관점에서 확대되고 있다. 대상관계 이론과 사회구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어린 시절에 인간은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을 내면화 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의 자기 체계

---

[316]Howard Clinebell, *Ecotheraphy*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6), 27.

속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대상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317]

Clinebell은 인간의 선천적인 땅에 뿌리 둠의 근원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거부하는 것은 환경병(ecophobia)과 환경 소외(ecoalienation)라고 부른다. Clinebell은 ecotheraphy와 ecoeducation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 Ecobonding은 인간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양육받고 힘을 얻으며 생명을 증진시키는 자연과의 연결을 요구하고 즐기는 것이다. Ecophilia는 자연과 연합된 생명의 사랑이다. Ecoalienation은 생명을 수여하는 자연을 떠나서는 결코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추구이다. 이러한 지구의 황폐와 환경 소외는 여성의 소외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남성 지배 종교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본다.[318]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연에 의해 양육받는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 양육 받는 것이 그치면 인간은 건강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창조 영성이 모든 피조물에 내재하신다는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인간 교육과 상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이 이러한 인간 본연의 야성적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인간 본연의 창조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교육은 건강한 생명 사랑과 건강한 환경과의 연대로 일컫는 한 과정으로서, 생명의 수여자로서 생명권(biosphere)안에서 인간의 심원한 뿌리됨을 발견하고, 친구가 되면 전체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자연과 인간이 나와 너(I and Thou)[319] 의 관계로 만남을 추구한다.

Howard Clinebell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치유-환경 교육의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지구로부터의 소외 치유를 촉진하고, 좀더 전체적으로 자연에 의해 성숙하는 존재로 개방성을 향상 시키며, 사랑 안에서 자연 세계와 더불어 상호 존중

---

[317]이재훈, *대상 관계 이론과 목회 상담,* 실천신학 논단 (서울 : 기독교서회, 1995), 395.

[318]Howard Clinebell, 102.

[319]Martin Buber, 20-22.

하는 작용의 개방에 있다. 둘째, 자연에 대한 경험 안에서 영적 차원이나 자기 초월에 대해 좀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좀 더 지구를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받아들이고, 생명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동기의 부여이다.[320]

Clinebell은 이 교육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이 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촉진하고 생태 환경과 상호 의존적인 영역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연과의 관계 감각을 강화하여 자연에 깊이 잠길 때, 그들의 일상 생활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으로부터 내외적인 소외를 극복할 뿐 아니라 자연에 깊게 잠기는 하나님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첫째로, 좀 더 전적,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연에 의해 양육 받는 존재가 됨을 통하여, 둘째로 , 자연과 우주(ecological spirituality)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보다 큰 경외감을 갖는 존재됨을 통하여, 셋째로, 지구 치료의 활동을 통한 자연 안에서 좀더 양육 받음을 통하여 성취된다.[321] 이러한 과정은, 첫 째, 자연과 창조적인 연계 향상, 둘 째, 자연 안에서 자신을 위한 자기 초월이나 유용한 영적 실체 발견, 셋 째, 자연에 의한 양육과의 접촉 순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Clinebell은 여섯 가지 변혁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The View-from-the- Moon Perspective : 달에서부터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람이 지구의 위성인 달이나 다른 행성에서 지구를 볼 때에 느끼는 그 신비함과 전체 지구가 갖는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지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임을 깨닫게 된다.

둘째, A Transgenerational Well-Being Perspective :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복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관점을 말한

---

[320]Howard Clinebell, 67-85.

[321]Ibid., 63.

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 많은 세대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결과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셋째, The Whole-Biosphere Well-Being Perspective : 전체 생명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한 종류의 피조물의 건강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 생명권의 건강한 정도에 따른다. 모든 피조물은 전 생명권 안과 같은 환경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종(species)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 생명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The Whole-Human-Family Well-Being Perspective : 전 인류 가족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이 관점은 전체 생명권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 이것은 개인, 인종, 종교 집단, 국가, 이익 집단 등의 모든 관심과 문제를 온 인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이나 부, 한 국가의 부강, 그리고 이익 집단들의 이익은 장기적인 면에서 온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달려 있다.

다섯째, The Wise Woman/Wise Man Perspectives : 현자적인 관점 즉 이 관점은 전해 내려오는 현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점을 말한다. Teihard de Chardin, Loren Eisley, John Muir, Francis of Assisi, Taoism등 인류의 스승들이 전해준 역사와 우주와 자연을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인종들의 전설과 종교에 Mother Earth,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생각 등 많은 좋은 세계관들을 남겨주었다.

여섯째, An Interfaith, Inclusive Ecological Spirituality Perspective : 믿음의 교류와 내포적 환경 영성의 관점. 이 관점은 인류가 가진 각종 종교를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점이다. 그리고 이 환경 영성(ecological spirituality)안에서 서로 종교들 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322]

이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 인간의 고통을 가져오는 사회 상황을 깨닫는다. 나) 자연과 인간 생명의 창조적인 면과 해체적인 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다) 기억과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게 된다. 라) 개혁을 향한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된다. 마)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323]

본 연구자가 Clinebell의 종교다원적인 이 견해를 다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의 신학이나 성경 해석이 너무 인간중심적으로 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구는 언제까지나 개발하고, 끝없이 사용해도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했다(롬8:21-22)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내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어야 하며,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너의 성공도 축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성공도 없는 것이다. Clinebell의 환경 교육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함을 깨닫고 서로를 받아들임에 깊이 헌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

[322]임양택. *생명 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 : 쿰란출판사, 1998), 242,243.

[323]Clinebell. 256.

7장 Project의 실행 - 부름 받은 자로서 삶의 전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모두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324]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동일한 사실 앞에서 평등한 것이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평신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목회자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고, 평신도는 자신의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속에 있는 제사장은 평신도이다. 평신도의 거룩과 헌신은 목회자보다 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나실인의 거룩성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레위 지파 제사장의 거룩을 넘어선다(민6:1-21).[325]

성림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위하여, 벧전 2 : 9에 대한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발견학습[326]의 방법으로 질문과 토의를 한다.

1. 의식전환을 위한 목회전략. - 성경공부.

1) 성경공부 교재 1.

[324]John Bright,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4), 281-315. Bright는 말하기를,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신약성서는 이 일을 예수가 수행했다고 선포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here and now)현존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도래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신약성서가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없다. 그러나 교회는 다가오는 긴장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안에서 현시하는 교회로 남아야 할 것이다.

[325]나실인의 법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성을 지켜야 했다. (레21장 참조)

[326]발견 학습은 성인교육에 합당한 모델로서,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단지 질문을 던지며, 참여자들이 토론하며, 답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배움의 영이 있는 자들은 모두 올바른 해답으로 나가갈 수 있으며, 자신들이 발견한 답에 대해 스스로 내면화 하고, 의식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림교회가 속한 CRC 교단에서 나오는 coffer break 라는 성경공부 교제가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 : 5)

– 부르심에 대하여.

순 서	날짜	제 목	본 문
성경 공부 1	6월 2(수) 2010년.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 12 : 1 – 3.
성경 공부 2	6월 9(수)	이스라엘을 부르심.	출 19 : 1 – 6.
성경 공부 3	6월 16(수)	레위 지파를 부르심Ⅰ.	출 32 : 25 – 29.
성경 공부 4	6월 23(수)	레위 지파를 부르심 Ⅱ.	요 4 : 19 – 23

본 성경공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신다. 각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되야 할 것들이 있다. 부르심의 요건들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공부 교재는 부록1에 있음)

2) 의식 전환을 위한 목회전략 – 설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순서	날짜	제 목	본 문
설교 1	6월 6일.	정결함과 더러움	막 7 : 20 – 30
설교 2	6월 13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요 4 : 9 – 23
설교 3	6월 20일.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민 6 : 1 – 12
설교 4	6월 27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히 13 : 10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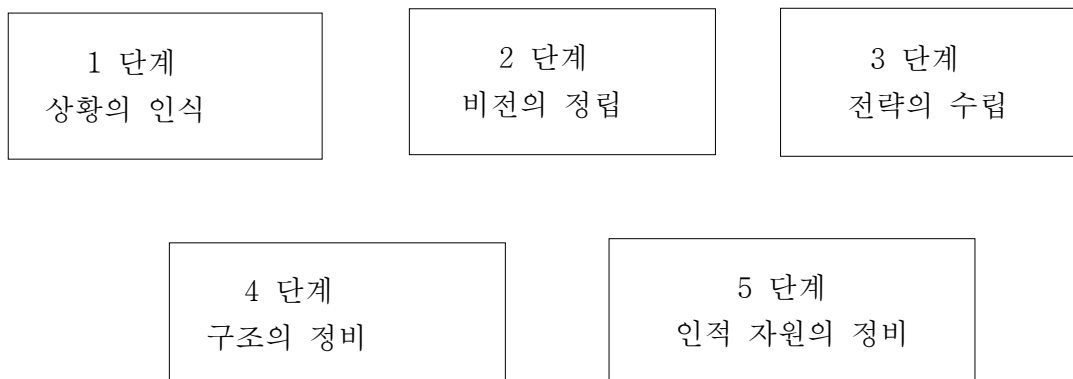
(설교의 내용은 부록2 참조.)

2. 구조개혁을 위한 목회 전략.

사람은 기존의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기를 싫어한다. 4번의 성경공부와 4번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변화를 위해 도전했고, 이제 의식 변화를 뒷 받침하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구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개혁의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기위해 일방적 통보가 아닌 대화를 시도하려 한다. 이것을 위해 세미나 자료를 인용해 수양회를 가지며, 설명하고 성경적 근거를 함께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1) 교회 활성화 세미나 실행하기.[327]

성림교회는 해마다 여름에 전 가족 수양회를 실행했다. 2010년에는 8월 1일(일)부터 3일(화)까지 2박 3일의 기간을 이용해 이 세미나 자료를 함께 연구했다. 장소는 Salisbury, Maryland에 있는 Hampton Inn 이였으며, 모두 20명이 참석하였다. 교회 활성화 5단계를 개략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 단계 상황의 인식	2 단계 비전의 정립	3 단계 전략의 수립
4 단계 구조의 정비	5 단계 인적 자원의 정비	

[327]이 세미나 자료는 CRC 교단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자료 중 하나로써 기존자원을 동원하여 선교적 사명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하는 전략적 증식 방법의 하나이다. CRM Korea 가 제공하며 www.CRMKorea.org 에 연락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교회 활성화 5단계 내용 정리하기.

- 세미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모든 교회가 생명주기에 따라 성장기와 정체기, 쇠퇴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작은 교회나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나,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 아주 잘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 등, 모든 교회에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그 교회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 거기에 따른 구조를 정비하고, 인적 자원을 정비하여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 개척교회는 인원이나 인적 자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맞는 비전을 발견한다면 교회는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성장기의 교회는 비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기의 교회는 다음 순서인 정체기로 가게 되어있다. 성장기의 교회는 매년마다 비전의 조정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 수립과 구조의 정비를 통해, 늘 새로운 교회로 되어져 가야 할 것이다.

지금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진단을 통해 정체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자신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며 거기에 따른 전략과 구조의 정비, 인적 자원을 준비하면 쇠퇴기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단계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다. 이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정체기는 쇠퇴기를 이어지게 되어있다.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하지 않고, 비전을 발견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곡선을 따라, 쇠퇴기로 갈 수 밖에 없다.

진단을 통해서 쇠퇴기에 이른 교회라는 결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온 교회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전략 수립과 구조의 정비, 인적 자원을 준비하면 쇠퇴기를 벗어나 다시 활성화되

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비전을 발견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정비와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지는 부록에 좀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부록 3을 참조)

3) 세미나 후, 성경공부 교재 2.

세미나 이후 계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야고보서 성경공부를 하였다.
세미나에서 받은 감동을 지속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이었다.
성경공부의 제목은 " 행동하는 신앙인"이며 본문은 야고보서로서 1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성경공부 교제도 발견 학습법에 기초한 "커피 브레이크"교제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커피 브레이크는 CRC 교단에서 발행하는 성경공부 교제로서 지도자가 인도해 나가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질문을 함으로 참석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토론하도록 하는 교제이다.)

일 시	성경 본문	제 목
1. 9월 1일(수) 2010년.	약 1 : 1 – 8	믿음과 지혜
2. 9월 8일	약 1 : 9 – 12	시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 9월 15일.	약 1 : 13 – 18	시련의 극복
4. 9월 22일.	약 1 : 19 – 27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5. 9월 29일.	약 2 : 1 – 13	차별하는 자가 받을 차별.
6. 10월 6일.	약 2 : 14 – 26	믿음과 행위.
7. 10월 13일.	약 3 : 1 – 8	가르치는 자의 준비.
8. 10월 20일.	약 3 : 9 – 18	경건과 언어생활.

9. 10월 27일.	약 4 : 1 - 10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들.
10. 11월 3일.	약 4 : 11 - 17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11. 11월 10일.	약 5 : 1 - 11	물질에 대한 시험.
12. 11월 17일	약 5 : 12 - 20	믿음으로 사는 삶.

본 교제를 8명의 성도가 끝까지 참여하여 마쳤다. 질문은 계속해서 질문을 만들고, 성도들이 솔직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으로 인해, 2시간 이상의 활발한 성경공부가 되었다.
(교제의 내용은 부록4. 참조)

4) 세미나 후 실천사항.

교회 활성화 세미나 이후에 성도들이 실행하기로 결단한 것들이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사역 발견하기 -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날에 참석해 예배드리는 것 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로 함(은사 점검표 활용하기).

② 예배 때에 간증하기 -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여러 방언으로 설교와 전도를 시작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삶속에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도전과 은혜를 주며, 비신자들에게는 전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사진 참조)

③ 전도대상 및 태신자 돌보기 - 내가 삶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전도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기도할 사람을 결정하기로 함(태신자). 그들과 한 주일에 한번은 통화하고, 가능하면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한다.

④ 일대일 양육하기 - 교회에서 정해준 훈련을 마친 사람은 양육자가 되어, 자신이 돌봐야 할 동반자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만나야 하며, 교재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삶을 나눈다. 이것은 지식으로서 성경공부가 아니라, 양육자가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동반자가 함께 따라하도록 인도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공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박 충빈 형제가 담당하기로 함 (일 년간 매 금요일 마다 만나 일대일 양육 준비를 함)

⑤ 축구팀에서 교제하기 - 토요일 오후에 축구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축구하고, 그들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대접하며 교회에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하고, 마침내 그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시도한다. 대부분의 축구팀들이 주일날 아침에 모이기에 그들과 만나기도 어렵고, 축구를 같이해도 끝나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다. 그들을 설득해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준비사항 : 축구장을 예약하는 것. 음료수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윤 혁진 형제가 담당하기로 함.

⑥ 찬양팀 만들기 - 예배시 찬양팀을 만들어 반주와 찬양을 하기로 함. 이것을 위해 기타와 드럼, 키보드를 준비하고 가르치기로 함. 매주 금 요일 오후에 만나 2시간씩 연습하기로 함.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youth group을 가르치기로 함. -Michael 형제가 담당하기로 함.

매주 Youth Group 4명이 금요일에 교회에서 기타와 키보드, 드럼을 연습 하 고 있다. 현재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는 것은 드럼과 키보드만 하고 있 다. 찬양 팀으로 인해 예배 시간이 더 활기차지고, 은혜로운 찬양시간을 경험하고 있다(사진 참조).

⑦ 도전과 충전을 위한 수양회 보내기 - 찬양팀에 있는 youth group에게 도전과 영적 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Kansas city에 소재함)집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틀 동안 운전해서 왕복해야 하며, 학생

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재정적으로도 여름에 있는 수양회 외에 또 한번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 하고, William Lawson 형제가 담당하기로 함.

(IHOP은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 곳으로 그 곳 찬양 팀과 열정적인 기도가 배울 만한 부분이다)

결정을 하고 실제로 가게 되었을 때, William 형제는 사업상 갈 수 없어서, 목회자 부부인 본인과 아내가 아이들을 인도하였다. 일시는 2010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친 오후에 출발하였다.

참석인원은 7명으로 John Ji, Jessica Ji, Alexandria Ethington, Joshua Chung. Sharon Ji, Joseph Chung, Kyung Chung 이였다.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했으며, 하나같이 찬양 팀들의 훌륭한 연주 솜씨와 진지함에 대해 감동했다. 앞으로 전 생애를 예배하는 자로서 살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으로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결심했다.

- 2010 Jubilee 집회 참석 : 성림교회가 속한 남부 뉴져지 교회 협의회는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가 지난 연말에 Jubilee라는 청소년 집회를 갖는다. 이 집회에는 남부 뉴져지 교회 협의회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으로 참여하여 외부 강사와 찬양 팀을 초청해 3박 4일의 수양회를 갖는다. 본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양육의 기회를 주기위해, 교회가 전적으로 그들의 회비와 간식 같은 것들을 지원하여 전원 집회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2010년에는 12월 26일,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였으며, 장소는 Steven, Pennsylvania에 있는 Refreshing retreat center에서 열렸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한층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결심하고 돌아왔다.

청소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질

병으로 인한 직장을 잃는 것, 현재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수양회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다. 수양회 참석 후, 교회에 돌아와 청소년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온 교회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사진 참조)

– Homeless들을 위한 사역.

수양회 이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까지, Mt. Holly와 Browns Mill 지역의 homeless 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다. 현재 성림교회가 사용하는 미국 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Mt. Holly)와 협력하여 음식과 옷을 수집하여 나누어 주고 있다. 음식은 매주 Whole Food 회사에서 Donation을 받고 있다.

⑧ 어려운 이웃 심방하기 – 지역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한 한국 사람들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위로하기로 하였다. 이 사역은 특별한 시간이 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에 필요가 있을 시, 언제나 연락해서 방문하기로 하였다. (ex. 미국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언어의 문제로 불리하게 되지 않게 하며,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도록 돕는 일, 홀로 살면서 수술을 받아 음식을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 직장을 잃고 집을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직장을 갖도록 돕는 일 등.) 손 연숙 자매가 담당하기로 함.

–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기에, 사진을 찍지 않고, 남모르게 조용히 사역을 하였다.

⑨ 비젼 team 모임 – 기존의 집회 시간을 피해, 주일 아침 새벽에 다같이 나와서 교회 활성화의 비젼을 발견하기위해 기도하기로 함. 기도 후 함께 아침을 먹으며 기도하고 느낀 것들을 나누기로 함.

⑩ 기도 팀의 40일간 새벽기도회 – 교회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함. 매일하는 새벽기도를 그냥하면 도전이 없을 것 같아, 기간을 정하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함. 이 기간이 끝나고 비젼 팀과 함께 토론하며, 교회

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기로 함.

3. 행동변화를 위한 목회전략.

의식 개혁과 구조의 개혁을 이루었다해도,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을 알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본 연구자는 CRM(Church Resource Ministries)에 의해 만들어진 “초점이 맞춰진 삶 수련회”를 가짐으로 성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우려 한다. 이 수련회는 강사의 얼굴만 쳐다보는 세미나가 아니라, 자신과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328]

1) 초점이 맞춰진 삶 세미나 시행하기.

초점이 맞춰진 삶 세미나는 2011년 1월 16일(일) 예배 후, 오후 4시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장소는 본 교회 예배실에서 하였으며, 초점이 맞춰진 삶 교재 1권과 작은 size의 4가지 색깔 Post It 한 묶음 씩과 신문지 반 장 크기의 poster 용지를 가지고 시작한다.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 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간에서 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다. 물론 우리가 몰랐고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만나며, 고난과 기쁨, 우리가

[328]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무실이나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한국 : 대전 광역시 유성구 죽동 618-4 전화 042-826-9993. www. CRMKorea.org 미국 : 19034 Cecelia place. Cerritus, CA 90703. 전화 562-650-4449. www.CRMLeaders.org.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오셨는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과 기술을 주셨는지, 나를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오셨는지를 발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과 분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목적의식과 방향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취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 순간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세월이 흘렀을 때는 어느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Post It 종이에 한 사건, 하나의 상황을 기록하여 시간을 따라 정리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중간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이 세미나는 과거에 묶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여 나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는 누구의 Leadership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미나의 성격 상, 적어도 40대 전후 정도의 나이에 합당한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세미나의 강의 내용은 부록 5 와 사진 참조)

2) 세미나의 결과.

참석 인원 : 9명. (박충빈, 이정자, 윤혁진, 박미숙, 지상태, 지순주, 손연숙, 오한나, 정경애)

이번 수양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 여정표를 만들고, 개인 소명 선언서를 만들었다. 개인 소명 선언서에는 자신의 성경적인 존재 목적, 자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핵심 가치, 그리고 비전 선언문이 들어있다.

이것을 성취하는 삶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링을 하기로 하며, 매 달 한번 씩 만나서, 개인의 소명 선언문 대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Net work 모임 날짜는 매달 4째 주 예배 후 예배실에서 갖고 있다.

세미나 후, 개인 소명 선언서를 만들었다. (개인 소명 선언서는 부록 5 참조)

8장. Project에 대한 평가.

1. 연구반원의 Project 평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성경공부를 마치고, 연구반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와 동등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 형제 자매로의 전환.

주변교회들이 직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 자신들을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비판하며 우리는 직분이 계급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들 직분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이민교회는 대부분 특성상 작은 교회들이다. 작은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나면, 안수집사 되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권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야 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한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교회들마다 진통을 격는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개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성림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모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이며 형제 자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 함. 본 연구자는 목회하는데 있어, 연말연시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목회할 수 있으며,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2) 다양한 사역팀 개발.

성도들이 교회 활성화 세미나 이후, 자신들의 사역을 찾아서 자원했다.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음식을 공급하며, 일주일에 한번씩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동네에 있는 Spanish 사람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축구하며 전도하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축구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도 나누며 전도하기로 했다.(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서 진행중에 있으며 3명의 성도가 훈련 과정을 마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다. 양육자들 끼리 모여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갖고 있다.

찬양 팀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기타와 키보드, 드럼을 연습하고 있으며, 예배시에 드럼과 키보드가 함께 반주를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시간을 가진 뒤, 간증과 모임에서 묵상한 것을 나누는 말씀 사역도 일어났다. 아직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심과 삶의 열매를 간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

이런 사역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므로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아직 눈으로 체험하는 단계는 아니다. 계속 진행되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서 의미를 찾고 있다.

2. 목회자 능력 평가.

1) 연구반원의 목회자 능력 평가 및 기준.

본 연구자에 대한 연구반원의 평가는 목회자, 설교자, 기독교 교육자, 신학자, 개혁자, 지도자, 상담자 순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자에 대한 품성에 대한 평가는 신실성, 솔직함, 소탈함, 추진력, 정확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반원들이 대부분 본

연구자와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미 친밀함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기에,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연구반원과는 10년이 넘게 지내고 있기에, 그들이나 본 연구자나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이 본 연구자를 신실하게 보아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가) 상담자 (Counselor).

상담자는 내담자와 공동체 의식이 싹틀 때 상담이 가능해 진다. Carl Rogers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4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한다.[329] 첫 째, 온정과 응답적 태도를 갖는다. 둘 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술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판단하고 지시하려는 태도보다는 이해하는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셋 째, 내담자와의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 넷 째, 모든 형식의 억압과 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자기의 욕망이나 반작용과 선입관을 치료 장면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관찰력과 사례 분석 등 전문적인 상담 능력을 갖춰야 한다.

Howard J. Clinebell Jr.는 목회 상담의 목적을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본질인 소외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330]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자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자이며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목회 상담으로 일어나는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이란 그리스도의 명령에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예배 인도자, 병든 자와 성도를 돌보는 자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목회 직분을 담당하는 목회의 주체적 활동이다.[331]

상담목회는 성도들을 치료하고 지탱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날은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며, 그만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커가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현재의 사조를 파악

---

[329]Carl R. Rogers,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집문당, 1991), 88 - 93.

[330]Howard J. Clinebell. Jr., *현대 목회 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9.

[331]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 구소, 1993) 23.

할 뿐아니라, 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목회상담은 개인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교인중에 문제인 가정들, 예를 들면 중병의 환자를 둔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편부모 가정, 별거 부부, 미혼 동거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를 돌봐야 한다. 이런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에 가족 치료 상담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기존 심방을 상담을 위한 심방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여성 성도들과의 만남은 대부분 나의 아내가 담당했던 것을 목회자가 직접 성도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상담을 위한 시간으로 쓰도록 조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지도자(Leader).

지도자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함으로써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집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332] 또한 목사는 개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도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교회라는 생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돌보는 지도자이다.[333] 이런 지도력은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며, 지도자의 권위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사역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부산물이다.

목회자의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미리 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line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시려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

[332]Robert Clinton,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194.

[333]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4) 77-106. 목사의 일곱가지 기능을 말한다. 1. 상징화의 기능(예수는 모형이지만) 2. 존재의 기능 3. 공유의 기능, 4. 능동적 기능 5. 모형기능과 위험부담 기능 6. 한계 설정 기능 7.촉매 기능 및 촉진 기능.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발견했고, 그것이 나에게 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반원들은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 독재자처럼 명령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영적 지도자 만들기'를 같이 공부하며 지도자 부상 이론을 가르치려 한다.

다) 신학자 (Theologian).

목회자는 신학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회중들에게 성경의 해석을 전해주어야 하며, 회중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속에 적용하며, 자신들의 삶을 위한 기준으로 해석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하든 하지 않든, 신학자로서 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와 같은 교리 논쟁이나, 교파의 교리 강조 같은 데서 벗어나,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해 가르쳐야 한다.

17세기에 일어났던 교리 논쟁을 아직도 벌이고 있으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학자들의 편협한 태도를 벗어나, 성경의 문화와 지리, 언어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 신학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며, 오늘날 더 많은 고고학 지식과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밝혀놓은 결과들을 더 많이 섭렵해야 한다. 그럴 때, 신학은 올바로 세워지고, 특별한 교파의 교리에 매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전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교단의 책만이 아니라, 타교단의 책도 읽고, 그들은 어떤 발견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칼빈주의에 의한 책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등에 대한 책도 섭렵하며,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환경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섭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2) 목회자 유능성 개발에 대한 평가.

본 연구자에 대한 평가에서 비교적 낮게 나온 상담자와 지도자, 신학자로서의 개발을 위해 몇 가지를 노력하려 한다.

가) 상담자.

본연구자는 상담에 대해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 속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담의 이론도 너무나 다양해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어렵기도 하다. J. Adams처럼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는 지시적 상담을 할 것인지, Carl Rogers처럼 비지시적 상담을 할 것인지 혼동이 된다. 또한 세속적 상담가들이 쓰는 꿈의 해석이나 무의식이라는 용어들을 기독교 상담에서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Freud나 Jung과 같은 학자들이 말한 것이 기독교 상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담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오늘날 상담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 많고, 상업적으로 흐르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본 연구자는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 결정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발달 심리이론이나, 변태 심리학, 전달학(communiclolgy)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회 상담에 대한 책을 좀더 읽고, 강의도 들어서 상담자로서의 준비를 더 할 것을 결심한다.

5월 2일(월) 2011년부터 Family in Touch에서 “인간 발달 심리학, 상담이론”3개월 과정을 듣기로 하다.

나) 지도자.

오늘날은 리더쉽에 대한 책과 강의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이다. 세속적 리더쉽이나 기독교 리더쉽에 대한 책들이 넘쳐난다. 이번에 접하게된 Robert Clinton

교수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는 놀라운 도전을 주었다. 본 연구자가 속한 교단 CRC에서도 이 이론을 이용한 리더쉽 강의가 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연구하고 습득하면서, 나에게 맞는 리더쉽을 개발하려 한다. 그래서 필요한 Mentor를 찾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어느 누구에게 필요한 Mentor가 되어 주려 한다.

지금 매주 마다 모이는 목회자 모임을 활용해 리더쉽에 관한 책을 읽고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리더쉽에 대한 도전을 가지려 한다. 또한 성도들과도 이 책의 내용을 나누며, 지도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올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하려 한다.

8월 8(월)-10(수) 2011년. CRC 교단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세미나 Imago Christi에 참여하기로 함.

다) 신학자.

목회자는 신학자로서 자신의 상황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성서신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이 이러한 수 많은 지식을 다 섭렵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목회자는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가지며 그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갖고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매 주일마다 모이는 목회자 모임을 활용해, 초청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동안 본인은 소위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다. 이번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며, 성경과 신학에 대한 눈이 많이 넓어졌다고 자평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 적이고, 백인들의 신학에만 물들어 있었던 나를 제 3세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이며, 성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NYTS에 감사한다.

이것을 위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목회와 신학”을 정기 구독한다.

3) 연구반원 명단.

이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생활 환경.
박 0빈	남	40대 후반.	햄 공장에서 일함.	전문대 졸.	경제적으로 중간정도 생활을 하며, 아내와 2명의 아들이 있다.
지 0주	여	40대 초반	가정주부	고졸.	경제적으로는 하 이며, 교회 나오다 낙심한 남편과 4명의 자녀가 있다.
박 0숙	여	40대 초반	미용교사	고졸.	오랬동안 싱글 맘으로 딸 1명과 살다가 최근에 결혼함. 생활은 중하 정도.
윤 0진	남	40대 중반	세탁소	전문대 졸	2년 전에 결혼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며, 운동을 좋아함. 중하.
오 0나	여	30대 중반	학생	대 졸.	최근에 미국으로 입양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살며 간호원 공부를 함. 자녀는 없음. 경제 적으로 하.
손 0숙	여	40대 중반	택시회사.	대학 중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인 형제와 결혼 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회복되는 과정에 있음. 부부가 자녀들과 떨어져서 삶. 경제적으로 중간 정도.
William Lawson	남	40대 중반	택시 회사.	고졸.	경제적으로 중간이며, 아내에게 이혼 당하고, 한국인 아내와 재혼 함. 계속 자녀들 양육비를 지불함으로 빠듯한 삶을 살며,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음.

9장. 결론 ; 부름 받은 자들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고대하며.

이 논문의 주제인 교회의 활성화는 결국 교회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에 미래는 있는 것인가? 만일에 우리에게 현재가 주어지고,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교회의 현재는 세계 내에서의 현재이다. 실재적인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한계가 보인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교회도 부딪혔던 현실로서 세계에 동화할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는 이 세계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령의 거룩한 집이며,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를 집행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세계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들을 해석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신의 과제를 발견한다.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말한다. 세계는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며 동시에 창조주에 의해 보존되는 선함이 있는 세계이며 종말에 완성될 곳이다. 세상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악과 죄, 죽음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고, 결코 타락 속에 방치되거나 부정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화해되고, 구원받은 창조 세계요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들이 살아야 할 세계이다. 세계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Hans Küng이 말한 것 처럼 "세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며, 그렇다고 세계 도피도 아니다. 또한 세계에 몰입하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계를 부정하는 가운데 긍정하는 것이요, 긍정하는 가운데 부정하는 것이며, 헌신하는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가운데 헌신하

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셨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도 평범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모두 성도라 불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받은 사도들 역시 출발점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겠다. 오늘의 교회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직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사도적 교회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사도의 신분은 계속되지 않지만, 사도적 직분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 세상 한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가 사도요 제사장인 것이다. 평신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이 회복되야 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오직 하나, 세계에 대한 봉사 뿐이다. 이러한 섬김은 지배에 대립되는 언어로서의 봉사이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사회적인 권력을 모두 단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사회적 권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왔고,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시도를 한다면 반교회적 정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교회의 세계에 대한 섬김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정치권력, 세속적인 주도권, 세속적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세상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교회가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될 때만 교회는 세계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선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에서 그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서 세계의 근원과 길과 목적을 알고, 세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 수 있기에, 세계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되지만,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과 결합해야 된다. 사랑으로 세상과 결합된 교회만이 복음안에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세상을 향해, 인류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에 의해 산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사명 즉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열린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뛰어듦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도는 다수를 섬기는 소수이다. 성도는 말씀과 행위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공동체로서 때로는 숨겨져 있지만 곧 드러나는 표징이며 세상을 향한 살아 있는 초대이다.

과거의 교회가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고, 교회의 전문적 사역은 성직자들에게만 맡기고, 평신도를 교회에서 주변화시키며, 구경꾼으로 만들므로써, 성경의 교회에서 떠났다. 이제 성직자는 평신도들의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세상에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이러한 본인의 가르침을 따라 성림교회는 일시적으로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있다. 더 이상, 계급적 구조가 없는 교회를 지향하며 모든 성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Saints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림교회 주보를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성도의 직분이 없고 그저 형제 자매이며 또한 모두가 Saints이다. 물론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없는 교회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민족 안에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서열의식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 보았다. 이것에 따라준 성림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과거의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실행해왔고, 그것

이 계급적 구조를 가져왔으며, 차별과 더 나아가 착취를 정당화하는 정치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살펴보았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신분의 차별을 운명처럼 여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착취가 지구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세의 봉건제도가 유럽에서 자본주의로 대체되었고, 봉건제도 하에서 귀족들은 오늘날 여전히 자본가로서 힘과 권력을 가진 상류층과 엘리트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착취적인 경제구조에 과거의 교회가 한 몫을 거들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종교개혁의 노력조차도 교회의 계급구조와 차별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대물화, 객체화의 욕망이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진자와 없는 자들은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가진 자'들 안에 존재하는 소외감을 보게된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타인을 주변화시키고, 객체화 하면서 착취와 억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평화는 누려질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이 되어질 때, 그곳에는 소외의 감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성림교회는 한인교회로 출발했지만, 한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의 활성화를 생각할 때, 더 이상 한인교회로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어야하며, 이 지역 안에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인종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현재 소수인 타인종의 교인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reach out 해 나가야 하며, 협력중인 미국 교회와 더 많은 사역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성림교회 성도 중에 Youth Group 모임과 Homeless 사역이 자신의 사역임을 깨달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미국교회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성인들 사역 안에서 미국교회와 연합 사역이 더욱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여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더욱 일어날 때, 보다 활성화된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회에는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 현재는 과거로부터 존재한다. 그 과거는 교회의 근원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출발하는 현재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약속이기에, 약속되어진 약속이며, 교회보다 먼저 있었고, 교회보다 더 크며, 교회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일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가졌고, 현재의 봉사를 가지며, 미래의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희망이 있다.

이제 역사적이며, 과거의 교파적 교리와 전통을 뛰어넘는 이해를 가지고, 또 다시 중세나 개혁시대 또는 계몽주의로 돌아가는 오류를 벗어나, 오늘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임무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틀에 박힌 여성상, 배타적인 남성적인 언어, 과거의 성적 역할 분담에 집착하는 가부장적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협력관계로 이해하며, 직분과 카리스마를 연결시키고, 모든 직무에 여성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모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우주와 자연만물과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활성화되고, 세상이 교회의 도움을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해 본다.

부　록.

부록 1.

1.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의식 전환을 위한 목회전략 - 성경공부.

1) 성경공부 교제 1.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 : 5)

-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거기에 올바로 응답한 사람들 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 공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 만남) -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 12 : 1-3)

질문 1. 부르심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을 찾는데 있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가?

-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로 행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토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유도한다.)

질문 2. 나의 부르심을 볼 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느꼈는가?

-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이야기 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는지를 들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한다.

질문 3.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담을 우리에게 주는가?(1절)

-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신다.
-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가려면, 지금까지 익숙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던 것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질문 4.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2절)

-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다림과 인내가 요구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질문 5.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11장 4절)

-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이 이런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있음)

질문 6.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목적은 어디로 향하는가?

-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쪽으로 나아 감.
- 나의 축복은 나 개인으로 멈추면 안되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구원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민족, 국가를 향한 것임을 알게 한다.)

결론 .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내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가정과 사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섬김을 통해 세상으로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둘째 만남) – 이스라엘을 부르심 (출 19 : 1 – 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선민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시는지 알게 한다.

질문 1.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며 지내게 하셨을까? 70명으로 시작한 그들이 출애굽 할 때, 몇 명이 되어 나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출 12 : 37)

–(노예로 사는 고난의 시간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고 살 수 있었고,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다 뜻이 있다.)

– 나에게 있었던 고난이 훗날에 축복이 된 경우를 이야기 해 보자.

질문 2.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이곳에서 맺은 언약이 왜 중요한가?(19 : 5,6)

– (시내산 언약으로 10계명과 다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맺어진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역사를 운용해 나가신다. 이제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다.)

질문 3.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선민으로서 그들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것과 세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할 때, 그들은 선민이 되는 것이다. 만일에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민이 될 수 없다. 선민으로 뽑는 이유는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선민으로 택하시는 것이다.)

질문 4.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잘못된 선민의식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선민과 이방인이란 구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가? 차별과 구별은 어떻게 다른가?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자의 샘플로 뽑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므로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직분의 차이는 있는 것이다.)

질문 5.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첫 번 언약의 피는 어떤 것인가? (출24:6-8) 옛 언약의 피가 가져온 결과와 새 언약의 피가 가져온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 (첫 번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결정하신다.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맺은 것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 6. 롬11 : 13-18을 읽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나무의 뿌리는 누구를 상징

하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 (하나님은 구원의 출발점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본이 되고, 구원을 세상 나라에 선포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쌓여 구원을 자신들만 소유한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나라에 전하지 않았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잠시동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버림받은 것이다.)

(세 번째 만남) - 레위 지파를 부르심Ⅰ. (출 32 : 25 - 29)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는 특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다. 이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신약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려는데 있다.

질문 1. 야곱의 3째 아들인 레위는 원래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창34장)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레위를 향한 예언은 어떤 것이었나? (창49 : 5-7)

- (레위는 성격이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하몰에 의해 강간 당한 것에 분노하여, 하몰 사람들을 속여 다 살해하고 잔인하게 약탈했다. 야곱은 이것에 대해 근심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레위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 정당한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질문 2. 레위가 축복을 받게 된 사건은 무엇인지 발견해 보자. (출32장) 레위 지파

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축복을 받은 이후,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들이 이집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이방의 방식을 따라 타락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자가 누구냐고 할 때, 오직 레위지파만 나왔다.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임으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직접 죽었으므로 다른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 레위지파의 헌신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질문 3. 바알 브올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하고 레위 지파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며,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자. 나는 내 삶속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함. 발람은 돈이 탐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막음. 발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떠남.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 우상을 섬기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모압 우상을 섬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2만 4천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옮.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투하여 죽임.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숭배의 죄에서 속죄함. 그러자 전염병이 그침.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의 가족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음. 나는 내 친족이나 가족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토론하게 함. 내 가정에 우상숭배를 용인함으로 가정 안에 어

떤 심판이 일어나는지 경험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함으로서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하게 함.)

질문 4.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자. 우상의 정의(definition)부터 내려 보라.

- (우상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기대해야 할 것을 다른 것에서 기대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없도록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개인의 출세나, 가정이나, 물질, 학위, 등. 수많은 우상이 있음을 알게 하며, 우리가 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 음을 깨닫게 한다.)

(네 번째 만남) - 레위 지파를 부르심 Ⅱ.(요4 : 19 - 23)

질문 1. 가나안에 들어가 레위 지파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이 야곱의 예언(창49 : 7)과 모세의 예언(신 33 : 8 - 11)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수20, 21장 참조) 성경은 운명론을 지지하는가?

- (레위 지파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서 살게 된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헌물로 살게 된다. 또한 그들은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하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살게 된다. 야곱의 예언은 저주로 있었으나, 훗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반응함으로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임했지만, 그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으로 변했다.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친다.)

질문 2.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민1 : 47 - 53)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민 18 : 19 - 23) 무슨 이유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 받았는가?

-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의 성도가 다 레위지파와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이다.)

질문 3. 구약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현대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구약 - 이사야의 부르심과 계시를 참조하라. (사 6 : 4-7, 66 : 18 - 21) 스가랴의 계시를 살펴보자. (슥 14 : 17 : 21)
신약 - 바울의 사상 (롬 15 : 14 - 16), 베드로의 사상 (벧전 2 : 4 - 10)

- (구약의 레위 지파는 현재 사라졌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스랍천사가 제단의 숯 불을 그 입술에 댐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고 할 때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 달라고 한다.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오고,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하신다. 구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사상이 계속해서 흘러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약에는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민족과 직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종말

에 가서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사라진다. 혈통에 의한 차별은 없다.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특별이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이방인의 영혼을 드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 역시 예수 안에서 혈통의 차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새 백성이 만들어 질 것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 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연결되며, 믿는자들은 레위 지파들 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질문 4.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이민의 현장에서 레위 지파처럼 거룩하게 살면서 과연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전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 해보고, 이런 현실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실패했던 이야기,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크리스챤으로서 모든 현장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자.)

부록 2.

(2) 의식전환을 위한 목회전략. – 설교.

이 단계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경공부와 함께 설교를 하는 것이다.

설교1.

본문 – 막 7 : 20 – 30　　제목 : 정결함과 더러움.

(내용)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해진다고 생각했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진정한 정결은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용해 말씀을 거역하는 예를 드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신다. 또한 그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임을 안다. 이방인이 설령 개처럼 더러운 존재라 해도, 믿음으로 혈통적인 더러움은 사라진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설교2.

본문 – 요 4 : 9 – 23.　　제목 :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내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 잘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능력의 유무나, 젊으냐 늙었느냐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다. 우리는 모두 구약의 제사장 처럼 거룩하게 부름받았다.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임하자.

설교3.

본문 - 민 6 : 1- 12.   제목 :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내용)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레위 지파이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폐쇄된 체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열려진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사람은 자신을 일평생 드리기도 하고, 어느 기한을 정해 그 기간만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거룩성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대제사장 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평신도는 덜 거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

설교4.

본문 - 히 13 : 10 - 16.   제목 :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직분을 회복시키려는 십자가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제사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섬김을 받는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와 동일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부록 3.

교회 활성화 세미나 자료.

교회 활성화란 전략적 지도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갱신이다.

(1) 비전 발견하기.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에 까지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캔버스와 같다.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캔버스의 그림을 가서 보고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으며, 인류의 남은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다.

-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 :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약속 - 마16:13-18. 올바르고, 진정한 고백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는 사탄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위대한 명령 - 마22:34-40.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이 이 사랑의 근거위에서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위대한 위임 - 마28:16-20.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도우실 것이다.

위대한 증거 - 행1:8.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위대한 사명 - 눅19:10.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 영적 갱신과 전략적 지도력.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자원이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갱신과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해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다.

(2) 교회 활성화 기반 조성.

아주 제한된 자원밖에 없고, 오래되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먼저 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더 이상 외적인 변화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비전팀과 기도팀을 구성할 수 있다.

– 비전팀과 기도팀.

현재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비전팀을 구성한다. 비전팀의 책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는 일,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는 일, 전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는 일, 평가 및 책임관계의 설정을 해야 한다. 비전팀의 자격으로는 분별력이 있는 자, 비전에 헌신되어 있으며,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존경이나 인정을 받는 자들로 비전팀을 구성한다.

그런 다음 기도팀을 구성한다. 비전 팀만으로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다같이 참여하여, 기도하면서, 비전 팀과 함께 나가야 한다. 비전 팀이 제시하는 것을 기도 팀이 듣고, 서로 의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전 팀이 제시하는 것이 수정이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

(3) 교회 활성화 5 단계(위의 도표 참조).

세미나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4)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네 가지 습관.

교회의 활성화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어느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적인 준비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4가지 습관으로는 능력있는 기도, 성경적 기반, 높은 헌신도, 불신자 전도가 있다.

능력있는 기도란 아주 열정적이거나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기반이란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성경의 전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만 있고, 성경 말씀의 정확한 방향성이 없으면, 그것은 열광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높은 헌신도를 요구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문턱을 낮춘다고 하면서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복음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 전도가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불신자 전도는 거의 없이, 타교회에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이다. 작은 교회 일수록 목회자부터 전도하는 모델이 되야 한다. 이 4가지 습관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5) 교회 활성화의 주기.

생명 주기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단체들은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들도 성장기와 정체기를 거쳐 쇠퇴기를 맞고 사멸에 이른다. 그러나 거기에 전략적 지도력을 공급하고, 영적 갱신을 경험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명주기에 의한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생명주기의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과 단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생명주기의 단계에 따라 온건한 처방부터 강력한 처방까지 취하게 되므로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다.

(6)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의 특징 들.

성장기의 특징 : 시작 단계이기에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교회를 비전이 주도해 나간다. 전도하러 지역 사회에 나가야 하기에 지역사회 중심이 되게 된다. 잃을 것이 없기에 혁신적으로 나가게 되며, 위험요소가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한다. 결정의 근거는 믿음뿐이며 재정이 한계가 있기에 돈은 영혼구원을 위한 투자에만 사용하게 된다. 일꾼이 부족하므로 은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를 봉사하는 자리에 세우게 되며, 봉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키워지기도 한다. 회심에 의한 성장이 대부분이다.

정체기 :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현재

지향적이 된다.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 기존의 성도를 중심으로 사역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생기게 되며, 위험부담이 되는 일은 기피하려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돈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봉사자를 뽑을 때 직분을 우선 시 하게 되며, 이미 잘 세워진 기성 지도자들을 세운다. 수평이동으로 성장한다.

쇠퇴기 : 옛날을 그리워하며 과거 지향적이 되며 기존의 건물이나 사역자, 내규 등을 유지하려는 구조가 교회를 주도하게 된다. 교회 결정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기득권 중심으로 되어 진다. 옛날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기만족에 머물려 하고 위험부담이 요구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 어떤 결정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늘 우유부단 하며 돈은 기존의 것들을 보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봉사는 늘 하던 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없고 현재의 지도자로 고정되어 있다. 성장이 전혀 없다.

제 1단계 : 상황의 인식.

(7) 상황 인식에 관한 두 가지 핵심 질문.

현재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 째,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지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흑인 지역사회 안에 있는 백인 교회의 경우 - 지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해도 효과가 없음). 우리 교회에 대해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도력에 대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현재 교회가 표방하는 비전이 살아있는 비전인가? 그냥 구호에 불과한가? -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을 해야 한다.

둘 째, 발견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왜 바꾸어야 하는가? 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평가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통계적 분석은 사실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까지의 출석 상황, 그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중요 이슈, 헌금 상황, 조직표 등) 다음으로 역사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역사적 분석은 과거의 회고로부터 시작한다 (교회의 역사나 옛날에 했던 행사들을 분석함. 과거의 출석표를 도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음). 또한 영적 상태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들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진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여론조사를 해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신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교회 연구 단체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334]

제 2단계 : 비전의 정립.

(8) 비전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질문.

- 하나님은 현재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그 지역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는데 새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 목회를 지향하는데, 갑자기 노인 성도들이 들어올 때)

-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전을 발견하기 원할 때, 비전을 바꾸어야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외부사람들과 대화해 보라. (불신자들과도 만나고, 주위의 동역자, 공동체 안에서 들어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면, 그 지역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

---

334 Church Health Survey. Tel. 502-243-4828. www.info@thelawlessgroup.com 이나, NCD Survey Tel. 800-253-4276 or 630-443-7926 www. churchsmart.com 을 이용할 수 있다.

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9) 핵심대상 그룹의 선정 : 누가 전도대상인가?

지리적 대상, 인구분포별 대상 : 핵심대상 그룹을 선정할 때,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직업이나 나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핵심대상 그룹은 이 사람들 외에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오직 초점의 관점에서, 영적 및 전략적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인구분포를 돈을 들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조사해보고 (예를 들면 www. percept.info), 성도들로 하여금 관찰과 기도를 통한 비공식적 연구도 하는 것이 좋다.

제 3단계 - 전략의 수립.

(10) 전략에 관한 두 가지 질문.

- 핵심 대상 그룹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 핵심대상 그룹의 필요와 관심사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불신자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개발되야 한다.

- 접촉된 핵심 대상 그룹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핵심대상 그룹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접촉대상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회심자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을 교육해 제자로 삼아야 한다. 제자들을 동원해서 봉사자가 되게 해야 하며, 봉사자들 중에 훈련을 통해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 지도자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지도자들이 증식자가 되게 해야 한다. 증식자는 실제로 자신이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서 예배가 있고, 전도, 양육, 훈련, 파송이 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장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전도와 양육, 훈련, 파송의 단계들을 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도를 통해 접촉대상과 만나

고, 회심자들을 만나야 한다. 양육을 통해 제자를 길러내야 하고, 훈련을 통해 봉사자들을 세우고, 파송을 통해 지도자와 증식자를 만들어 내야한다.

제 4단계 - 구조의 정비.

(11) 구조 정비에 관한 두 가지 질문.

구조는 사역에 대한 배후지원 시스템으로서, 인원, 정책, 절차, 조직, 스탭, 위원회, 재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구조적 정비는 영적 지도력과 함께 분별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전략을 돕는 전략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전통, 돈이 얼마나 있느냐,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목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가야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략과 비전이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

- 지도력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행6장 구조 모델)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다. 상황은 아주 심각했다. 그것을 위해 사도들은 집사들을 뽑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회나 위원회는 돈과 구조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세상의 회사와 같은 방식이다. 목회자나 당회는 영적 지도력만 공급하고, 돈 문제, 행정문제는 성도들이 하게 해야 한다. 오늘날은 이것이 뒤집혀 있다. 이런 지도력의 방법 즉, 당회나 위원회가 돈과 구조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모습은 가장 좋지 않은 지도력의 모습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당회나 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결제만 하고 있는지 모른다.

제 5 단계 - 인적 자원의 준비.

(12) 인적 자원의 배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비전도 소멸된다. 교회활성화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비전팀,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변화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그렇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변화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할 수 있고,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것을 조절해야 한다.

– 어떻게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 활성화 원리 : 선택으로서의 변화 vs 위기로서의 변화.

성도들에게 위기로서의 변화라기 보다는 선택으로서의 변화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 어쩔수 없이 몰리는 상황에서 변화하라고 하면 자원하는 의지가 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 변화의 4가지 측면 :

변화하려는 의지 :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번 단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경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 : 교인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변화의 내용 : 변화의 내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의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에 대한 지원이 사라진다.

변화의 속도 : 변화의 속도는 각 교회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것에는 원칙이 없다. 최대한 교회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 생명주기에서 발전기가 쇠퇴기에 있는 교회들은 변화에 대해 거부감이 더 많이 있다.

– 4가지 유형의 사람들 :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론가,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보존주의자.

교회가 선택으로서의 변화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함

께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론가들이 제일 먼저 동의하고 따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현실주의자들이 참여한다. 그런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면 실용주의자들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며 따른다. 그러나 보존주의자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며 계속 변화를 거부하고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거부감 없이 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공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미나를 통해, 성림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작성했다.
비전 선언문에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했다.

> "성림교회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 영육간에 곤고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핵심 대상 그룹 : Burlington County 안에 살고 있는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의 Small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세탁소, grocery 가게, 7-11 등)

이유 : 우리 성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며,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심적으로 매우 외로워하며 여가의 시간을 운동이나 낚시로 보내고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이들을 우리의 핵심 대상 그룹으로 결정했다.

접촉 프로그램 : 개인전도, 축구 팀에 들어가기, 낚시 모임에 함께하기, 사업체 방문, 음식 바자회에 초청하기, 야외예배에 초청하기.

양육 프로그램 : 일대일 제자 훈련, 묵상 나눔, 수요 성경공부, 가족 수양회, 단기선교. 금요 기도회.

파송 프로그램 : 일대일 양육자로 파송.
비전팀 구성 : 정요석 목사, William Lawson, 남혜란, 박충빈, 지순주, 박무웅,

윤혁진. (7명으로 결정하였다).

기도팀 구성 : 정경애 사모, 박미숙, 손연숙, 박춘자, 이정자, 김귀이(6명).

부록 4.

성경공부 교제 2. “행동하는 신앙인”

야고보서 성경공부 (12주).

(1과)

약 1 : 1 – 8. 믿음과 지혜.

1.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1–4절)

2. 시험(trial)과 심판이 어떻게 다릅니까?

3.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났고, 그 결과는 어떤가?

4. 앞절에 비춰볼 때,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5.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과)

약 1 : 9 – 12. 시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 여기서 낮음과 높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9–10절)

2. 우리는 어떤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낮은 사람인가, 높은 사람인가?

3. 앞의 구절들과 비교할 때, 여기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12절)

4. 우리는 어떻게 참고 견딜수 있는가?

5. 이 사람의 상급은 무엇인가?

6. 우리가 시험과 고난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3과)

약1 : 13 - 18. 시련의 극복.

1. 시험에 대한 단어들을 설명해 보자. (test, trial, temptation)

2. 시험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인가?(13절)

3. 시험은 어떻게 일어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14절)

4. 죄가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15절)

5.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16절)

6. 스스로에게 속은 적이 있는가?

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18절)

8. 첫 열매의 의미는? (18절)

9.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18절)

(4과)

약 1 : 19 - 27. 마음에 심긴 도를 받으라.

1. 다른 사람의 말은 안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는가?(19절)

2. 성내는 것이 다 나쁜가? (성냄과 의분의 차이는?) (20절)

3.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 우리의 책임은? (21절)

4. 온유함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5. 유명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속는 다는 의미는? (22절)

6. 도와 거울을 비교한 이유는? (23절)

7.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있을 수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25절)

8. 경건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26절)

9.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세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27절)

10. 말씀 성장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5과)

약 2 : 1 - 13절. 차별하는 자가 받을 차별.

1. 2-3절을 현대적으로 바꾸어 설명해 보자.

2. 차별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1절)

3. 복음이 가난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5절)

4.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 받는 이유는? (7절)

5.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가? (8절)

6.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9절) 그것이 왜 나쁜가?

7.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무엇 아래 있어야 하는가?(12절)

8. 본문의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13절)

(6과)

약 2 : 14 - 26. 믿음과 행위.

1.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4-16절)

2.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가? (엡2 : 8절)

3. 진정한 믿음과 단순한 지적인 인정의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19절)

4. 22절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가?

5.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6.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26절)

(7과)

약 3 : 1 - 8. 가르치는 자의 준비.

1. 남에게 위로하고, 잘 해주려는 말이 잘못 된적이 있는가?

2. 선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절)

3.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가?

4. 언어와 인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2절)

5. 말과 혀에 대한 비유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3 - 5절)

6. 잘못된 혀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6절)

7. 내가 말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8.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은? (7,8절)

(8과)

약 3 : 9 - 18. 경건과 언어생활.

1. 내 말로인해 격려 받은 사람이나 실망한 경우가 있는가?

2.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왜 문제될까? (9절)

3. 말의 2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가? (11,12절) 이것들은 내 삶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

4. 13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1절과 관련해)

5. 참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13절)

6. 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드러내야 하는가?

7. 거짓 지혜의 특징, 근원, 결과는? (14-16절)

8.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17,18절)

9. 참된 신앙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과)

약 4 : 1 - 10. 세상과 친구되는 사람들.

1. 본문에서 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1절)

2. 내부의 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2,3절)

4.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4절)

5. 세상과 벗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구되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라.(4절)

6. 성령님과 우리의 순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라.(5, 7절)

7. 마귀는 우리가 다룰 수 없을 만큼 강력한가? (7절)

8.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8절)

9. 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하는가?(9절)

(10과)

약 4 : 11 – 17.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1. 1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가? 왜 성도들도 비방하게 될까? (11절)

2. 남을 비방하는 것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라.(12절)

3. 우리는 아무런 판단도 하면 안되는가?

4. 13절과 같은 생각이 왜 잘못인가? (14절)

5.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6. 17절은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7. 17절을 4장의 결론으로 보고, 4장에 나타나는 죄는 어떤 것인지 요약하라.

8. 4장에서 하나님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요약해보자.

(11과)

약 5 : 1 - 11절. 물질에 대한 시험.

1. 본문은 부자를 정죄하는가? 어떤 부자가 문제인가?(3,4절)

2. 올바른 부의 사용법은 무엇인가?(4-6절)

3.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7,8절)

4. 야고보는 왜 여기서 원망하지 마라고 하는가? (9절)

5. 선지자들의 인내를 생각하고, 오늘날 설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절)

6. 인내의 표본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왜 그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가? (11절)

(12과)

약 5 : 12 - 20. 믿음으로 사는 삶.

1. 왜 사람들은 맹세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12절)

2. 이 세상의 삶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13절)

3. 환자에 대한 명령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14절)

4.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 (15절)

5.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16절)

6.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17절)

7.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관계시켜 설명한다면? (19,20절)

8.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록 5.

-초점이 맞춰진 삶 세미나 강의 내용.

본 세미나는 Fuller 신학원의 Robert Clinton 교수의 "영적 지도자 세우기"라는 책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성장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실제로 사역하는 시간은 40대에서 60대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여기저기를 동분서주하다보면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간파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어느 한 두가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나 역할에 집중해서 20년 정도 집중하면 열매도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고, 거기에 협력한다면 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야나 방향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과거의 삶에 묶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속에 일어난 사건,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안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는 40대를 전후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세미나이다. 너무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 속에서 살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기에, 돌아볼만한 과거가 없다. 또한 그들은 인격의 변화보다는 기술과 실력을 기르려는데 집중한다. 또한 70대가 넘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세미나의 의도가 성림교회 성도들의 나이에 적합하기에 아주 적절한 세

미나 라고 생각한다.

제 1단계 – 과거 평가 : 당신의 인생 여정표 만들기.

질문 1. 나는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일생동안 발전시켜 나가신다. 그분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재능 두 가지 모두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일상의 삶의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큰 그림을 놓쳐버리기 쉽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표에서 부터 교훈들과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과 나 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비젼을 발견할 수 있다.

방법 :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인생 여정표를 만든다. –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사건들,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연대순으로 정열해 보는 것이다(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ex)

비오는 날 이사 갈 때.	국어 선생님과의 만남.

– 간단하게 써도 자신은 알 수 있다.

–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간단히 옮길 수 있고, 다시 정리할 수도 있다.

–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과거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통하여 발견된다. 우리의 소명은 언제나 그분이 하시는 일 안에서 그분께 참여하는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 특별히 회심의 순간, 삶의 중요한 순간들, 고난의 때, 중요한 사람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초기단계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발견한 교훈들.

(포스트잇을 사용한 인생 여정표.)

– 만들어진 인생 여정표를 보고 해석을 해보자. 지금까지의 삶속에서 성실성 점검의 부분이 있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 점검 부분이 있었는가? 신적 만남의 순간들(어떤 사람이나 사건과의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만한 그런 만남), 믿음의 도전, 고난을 통한 준비, 삶의 위기, 고립의 순간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위의 인생 여정표를 돌아보며 묵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강사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자신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고, 특정한 성격과 재능의 사람이 되게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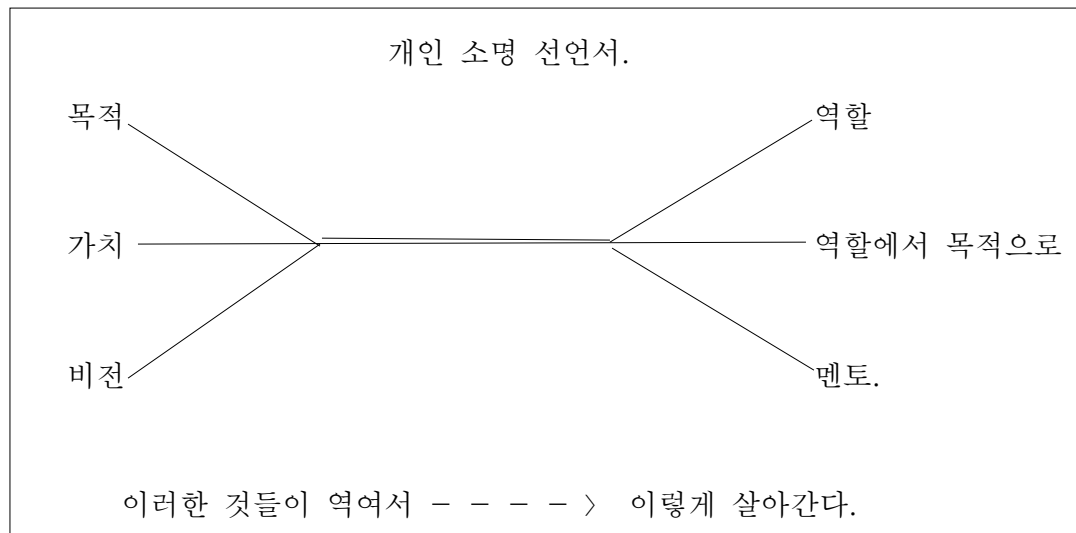
제 2 단계 – 미래 발견 :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붙잡기.

질문 2.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교훈들은 단지 당신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들이다. 비

젼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망을 그림과 같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개인 소명서 작성하기.

: 개인 소명 선언서는 하나님이 부르시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되라고 하신(Being), 그리고 이루라고 하신(Doing) 것이 무엇인지가 통합되어 있다.

효과적인 소명 선언서를 만들어내려면, 성경적 존재목적, 내 삶에 있어서의 가치, 비전을 따로 따로 생각해 보고, 나중에 세 가닥으로 역인 밧줄처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가) 성경적 목적 :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지나온 나의 삶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온 성경말씀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다. 내가 붙들고 살아온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들은 나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말씀은 예배에 대한 것이며, 섬김에 대한 것, 선교에 대한 것등 다양한 말씀이 각자에게 부딪혀 왔다.

- 목적 선언은 기독교적 기대 사항들이 들어있는 장황한 실천 목록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간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

나) 삶과 사역에 있어서의 가치들 :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도록 하신 모습. - 핵심 가치는 언제나 나의 행동 가운데서 발견된다. 우리의 핵심 가치들은 우리의 독특한 모양새, 즉 하나님이 삶에 대한 각자의 관점과 접근 방법을 다르게 지어 놓으신 독특한 방식들이다.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다) 비전 :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의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계획하신 것. -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독특한 헌신을 통하여 완수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기: 비전은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평화와 기쁨을 준다. 그러나 야망은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나의 꿈이다. 그러기에 초조함을 가져오고, 지나친 열심을 가져온다.

우리의 인생 여정표에서 섭리의 순간들을 묵상할 때 비전은 잘 발견되어 진다.

- 이러한 소명 선언서를 우리의 삶에 실행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1. 삶의 역할 확인하기 : 대부분의 세미나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소명 선언서를 삶의 역할 속에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 각자는 중요한 삶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는 것은 바로 삶의 문제들 안에서이다. 대부분의 Leadership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성품 문제에서 발생한다. - 나의 소명에 어울리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역할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학생, 친구, 형제 자매, 예배자 등등)

#2. 일과 사역 역할들에 초점 맞추기 : 일과 사역 역할들은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고 개인 소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다. 지금 사역의 현 단계에서 나만의 특별한 형성 과정과 은사에 가장 적합한 역할, 즉 내가 나의 소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이끄는 것은? (전도자, 행정가, 교사, 상담자, 팀 리더, 기업가, 개발자, 코치, 작가, 예술가, 소그룹 지도자 등등)

#3. 일년 후의 결과 : 위의 두 단계를 통해, 1년 뒤 당신이 수행하는 역할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기록해 보라.

#4. 월간 목표 정하기 : 월간 목표들은 당신의 1년 결심들을 성취하기 위해, 매달 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계획해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제3 단계 – 당신의 소명 실행하기 :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질문 3. 내가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멘토링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부여하신 그만의 독특한 기여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 멘토링에 대한 다음 네 가지 속설이 있다.

#1. 멘토는 한 사람만 필요하다.

#2. 멘토는 나이나 경험이 많아야 한다.

#3. 나는 멘토가 될 수 없다.

#4. 나는 멘토가 필요없다.

멘토링의 정의 : “멘토링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나눔으로써 그를 계발하는 관계적 경험이다.”[335]

– 멘토링에는 다음의 아홉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위에 있는 것은 강한 멘토링의 유형이며, 밑으로 내려갈 수록 느슨한 유형의 멘토링이 된다.

#1. 제자훈련 사역자 – 새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한 지식과 기술과 기초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사람. 새신자의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2. 영적 안내자 – 보다 큰 영성과 관계있는 지식 및 기술을 나누어 주는

[335] *초점이 맞춰진 삶 수련회.* CRM Korea, p. 42.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멘토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책임관계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3. 코치 - 어떤 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전달할 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4. 상담자 - 의사 결정 또는 과도기 등의 중요한 시기에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5. 교사 - 지식과 의사 소통 능력을 제공하며 사역에 대한 안목과 사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6. 후원자 - 신뢰성과 함께 기관 내에서 지위상 또는 영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그 기관 안에서 멘토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7. 동시대인 모델 - 지도자에게 삶과 서역에서의 기술과 가치와 교훈 등을 간접적으로 나누어 주는 모범이 되는 지도자이다.

#8. 역사적 모델 - 책이나 전기, 자서전 등을 통하여 모델의 역할을 하는 역사상의 인물로서 모범과 사역 교훈, 삶의 가치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섭리적 만남 - 중요하고도 계획되지 않은 때에 새로운 깨달음이나 분별력을 주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 멘토링의 세 가지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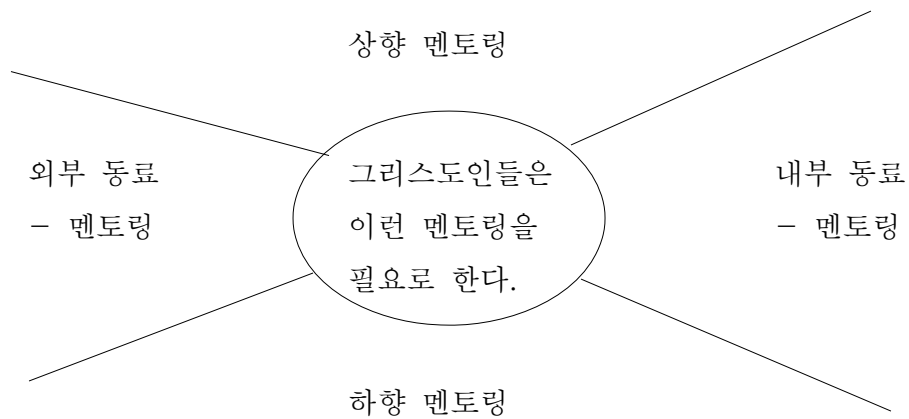
#1. 상향 멘토링 - 상향 멘토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재력을 확대하도록 한다. 상향 멘토는 보다 큰 그림을 보게 하고 현 상황이 그 그림과 맞는지를 확인한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는 멘토리보다 앞서 있다. 그들은 가치있는 조언을 하여 멘토리가 성장하도록 한다.

#2. 동료 멘토링 - 동료 멘토링은 한 사람의 일상의 준거 집단의 내부와 외부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나온다.

(가)내부 동료 멘토링 - 멘토는 같은 직장이나 사역 환경에 있는 동료들로 영적 성숙도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호 성장과 책임의식을, 조직 내부의 환경적 통찰을,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정을 제공한다.

(나)외부 동료 멘토링 - 멘토는 일상의 일터나 사역 환경의 밖에 있

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내부 동료 멘토와 같다. 이들은 또한 비슷한 발전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우리들이 행동하고 통찰을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하도록 도전을 준다.

#3. 하향 멘토링 – 성도들은 제자들을 찾고, 선택하고, 그리고 양육해야 한다. 하향 멘토링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뜻한다. 하향 멘토들은 책임의식, 도전, 통찰, 중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하향 멘토링은 또한 제자들이 정체되고 그들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조화를 이루게 되는 경향을 막아준다.

이 세미나를 마치고, 자신의 개인 소명서를 작성했다.
몇 명의 개인 소명서를 소개한다.

개인 소명 선언서.

윤 혁진.

성경적 목적.

: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평강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핵심 가치.

: 봉사 – 나는 지금도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고 하면, 어느 때라도 달려간다 (양로원이나 교도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 음악 – 음악을 좋아하며, 연주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 가정 – 가정은 나의 안식처이며,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다.

비전.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양로원과 교도소 봉사를 계속 할 것이며, 지금 하고 있는 색소폰 동우회를 20명까지 끌어올려, 계속 연주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 외에 교회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영적, 재정적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다.

개인 소명 선언서.

박 충빈.

목적 :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기위해 노력하며, 단순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찾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가치 :

가정 –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배 –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관계 –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계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야 한다.

아버지 –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비전 선언문 :

나는 성경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신실하고 거룩한 것들이 내 삶속에 가득차게 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그날 그날 잘 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질을 모아 큰 집을 사서, 가난한 노인들 5명을 우리 가정에서 돌보는 일을 할 것이다.

강남순. *현대 여성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94.

김광식. *토착화와 해석학.* 서울:기독교서회. 1991.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95.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 Vol. 2.* 서울:기독교문사. 1970.

김원식. *한국 기독교 백년 허와 실.* 서울:풀핏목회. 1991.

김재은. *성인 교육론.* 서울:성광출판사. 1990.

김정준. *구약성서의 이해.* 서울:평민사. 1979.

_______. *구약신학의 이해.* 서울:한국신학대학교. 1973.

_______. *이스라엘의 신앙과 신학.* 서울:성문학사.. 1970.

문희석. *최근 예언서 연구.* 서울:기독교서회. 1989.

_______. *하나님의 구속사.* 서울:보이스사. 1973.

_______. *구약성서 배경사 1. 2.* 서울:기독교서회. 1973-1975.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대구:분도출판사. 1979.

송기득. *인간.*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4.

안병무. *역사의 해석.* 서울:기독교서회. 1982.

안상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기독교서회. 1992.

안종철. *열린 목회와 예수 공동체.* 서울:쿰란출판사. 1997.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5.

오인탁 외. *기독교 교육론.* 서울:기독교서회. 1993.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기독교서회. 1993.

_______. *풍류도와 한국신학.* 서울:전망사. 1992.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76.

임양택. *생명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쿰란출판사. 1998.

장일선. *이스라엘 포로기 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90.

장태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3.

전호진. *선교학.*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정재식. *종교와 사회 변동.*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82.

전경연 외. *신약 신학.* 서울:기독교서회. 1963.

전경연. *루터 신학의 제문제.* 서울:복음주의신학총서. 1986.

정인찬. *성서 대백과.* 서울:기독지혜사. 1980.

크리스챤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공동체신학의 모색.* 서울:전망사. 1992.

한국기독교학회 편. *교회와 코이노이아.* 서울:기독교서회. 1993.

한완상 외.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기독교서회. 1992.

Ambler, Rex. *Global Theology.* Trinity Press. 1990.

Archer, Gleason L. *구약총론,* 김정우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신학사전,* 신성종 역. 서울:엠마오, 1986.

Baum, Gregory. *Religion and Alienation : A Theological Reading of Sociology.* New York : Paulist Press. 1975.

Berkhof, Louis. *Christ and the Powers.* Scottdale, PA : Herald Press, 1962.

Bestsworth, Roger G. *Social Ethics.* Westminster, John Knox, 1990.

Boesak, Allan Aubrey.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김민수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7.

Boff, Leonardo. *교회와 카리스마.* 김쾌상 역, 서울:일월서각, 1994.

________. *Trinity and Society.* Orbis Books, 1988.

________.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요셉출판사. 1987.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1.

________. *Ethics.* trans. Neville Horton Smith, New York : Touchstone. 1955.

Bonino, Jos Miguez. *Toward a Christian Political Ethic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3.

Botterweck, G. Johannes and Helmer Ringgren,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John T. Willis. 5 vols. 1970. William B. Eerdmans, 1983.

Braaten, Carl E. *No Other Gospel.* Fortress Press. 1992.

________. ed., *Our Naming of God.* Forterss Press. 1989.

________. *역사와 해석학.* 채위 역. 서울:기독교서회. 1969.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서울:컨콜디아사, 1984.

Bromiley, Geoffrey W. others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A-D.* Grand Rapids, Michigan : William B. Eerdemans Publishing Co., 1989.

Brueggemann, Walter. *The Prophetic Imagination.* Fortress Press, 1978.

Brunner, Emil. *Justice and Freedom in Society. 정의와 자유.* 전택부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7.

Burkhart, John E. *Worship.* Westminster Press. 1982.

Carroll, Jackson W. *As one with Authority.* Westminster, John Knox, 1991.

Cassidy, Richard J. *예수, 정치, 사회.* 한완상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3.

________. *John's Gospel in New Perspective.* Orbis Books, 1992.

Clinebell, Howard J. *Ecotherapy* : Healing Ourselves, Healing the Earth.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6.

________. *현대 목회 상담학.* 박근원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1.

________.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기독교서회,, 1984.

Cobb, John B. Jr. *종교다원주의와 오직 예수.* 강성도 역, 서울:조명문화사, 1992.

Cobb, John B. Jr. and David Ray Griffin. *과정신학.* 류기종 역, 서울:도서출판 열림, 1993.

Cone, James H. *God of the Oppressed.* Harper San Francisco, 1975.

Costas, Orlando E. *성문 밖의 그리스도.*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0.

Cramer, Raymond L.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정동섭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1.

Duchrow, Ulrich. *하나님의 경제와 민중 운동,* 강원돈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0.

Dussel, Enrique. *Ethics and Community.* trans. Robert R. Barr.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s, 1993.

Elias John L. *의식화와 탈학교화.* 은준관, 김태원 역, 서울:기독교서회, 1984.

Ellul, Jacques. *기술의 역사.* 박광덕 역. 한울사, 1996.

Fiorenza, Elizabeth S. *크리스챤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 김영애 역, 서울:태조. 1993.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New York : Pantheon, 1980.

Fox, Matthew. *The Reinvention of Work.* New York : Harper Collins. 1994.

Fowler, James W.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 서울:기독교서회, 1986.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nuum. 1993.

________. *실천 교육학.* 김쾌상 역, 서울:일월서각, 1986.

Fromm, Erich. *Escape from Freedom.* An Owl Book, 1994.

Gibbs, Mark and T. Ralph Morto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1.

________. *평신도의 해방.* 이계준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0.

Giddens, Anthony.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임영일, 박노영 역, 서울:한길사, 1987.

Gollwitzer, Helmut. *자본주의 혁명.* 윤응진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2.

Gonzalez, Justo L. *Liberating Pulpit.* Abingdon Press, 1994.

________. *종교 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은성출판사, 1992.

Goppelt, Leonhard.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1.* trans. John Alsup. William B. Eerdmans, 1983.

Gottward, Norman K. *The Bible and liberation.* Orbis Books, 1993.

________. *Hebrew Bible in its Social World and in Ours.* Scholar Press, 1993.

Griffin, David R. *포스트모던 하나님, 포스트모던 기독교.* 강성도 역, 서울:조명문화사, 1995.

Griffths, Micahel.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권영석 역, 서울: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Groatto, J. Severino. *Biblical Hermeneutics.* Orbis Books, 1987.

Groome, H. Thomas.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Harper Collins, 1980.

Harris, Thomas A. *I'm OK-You're OK.* New York:Avon Books, 1973.

Hasel, Gerhard F. *Old Testament Theology: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William B. Eerdmans, 1991.

________. *신약 신학의 동향,* 장상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0.

Hick, John and Paul F. Knitter. eds. *The Myth of Christan Uniqueness.* Orbis Books, 1987.

Hoekendijk, Johnnes, C. *The Church Inside Out.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8.

Hoppe, Leslie J.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섭 역, 서울:나눔사, 1992.

Huber, Wolfgang. *교회,* 이신근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0.

Jememias, Joachim. *예수의 비유,* 허혁 역, 대구:분도출판사, 1974.

________.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Fortress, 1969.

Jones, Ilion T.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ashville. NY : Abingdon Press, 1929.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trans. William Whiston. Hendrickson, 1987.

Jung. Carl. G. *무의식 분석,* 설영환 역, 서울: 선영출판사, 1992.

Kittel, Gerhard. et al., de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Geoffrey W. Bromiley. 10 vols. 1964. Rpt. William. B. Eerdmans, 1976.

Knowles, Malcolm. S. *The History of the Adult Educ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 Robert E. Kriegger Publishing Co., 1977.

________. *Adult Learning Process : Pedagogy and Andragogy.* Religious Education 72(2), 1977.

________. *Informal Adult Education.* New York : Association Press, 1950.

Kraemer, Hendrik. *A Theology of the Laity.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4.

Küng, Hans. *Theologie-Wohin?* ed. David Tracy. *현대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재순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9.

________. Was ist Kirche?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대구:분도출판사, 1978.

________. *Die Kirche. 교회.* 정지련 역, 서울:한들출판사, 2007.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ity. 2 vols.* Harper San Francisco. 1975.

Linthicum. Robert C. *Empowering the Poor.* MARC. 1991.

Loder, James E. *The Transforming Moment : Understanding Convictional*

Experiences. 삶이 변형되는 순간. 이기준. 김성민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8.

Loetscher, Leffert A.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3.

Min Pyong Gap. *Asian Americans.* 미국속의 한국인, Sage Publications, 1995.

Moltmann, Jürge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4.

________. *Was ist heute Theologie?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차옥승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9.

Nicholas. Ron. et. al. *Good Things Comes in Small Groups : The Dynamics of Good Group Life.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한국대학출판사, 1994.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병섭 역, 서울:현대사상사, 1972.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Harper & Row, 1951.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이기준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3.

Osborn, Richard and Erich Fromm. *Psyco-Analysis and Materialism. 심리분석과 유물론*. 김기태 역, 서울:선영사, 1989.

Palmer, Richard E. *Hermeneutics. 해석학.* 이한규 역, 서울:문예출판사, 1993.

Piepke, Joachim George. *Die Kirche auf dem Weg zum Menshen : Die Volk-Gottes-Ekklesiogogie in der Kirche Brasiliens. 브라질 바닥 공동체.* 강원돈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0.

Pike, James A. *A Time for Christian Candor*. New York : Harper & Row. 1964.

Rad, Gerhard vo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폰 라드 논문집.* 김정준 역, 서울:기독교서회, 1978.

Ronbinson, John T. *A Harmony of the Gospels for Students of the Life of Christ : Based on the Broadus Harmony in the Revised Version. 복음서 대조서.* 도한호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8.

Rorgers, Carl 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 서울:집문당, 1991.

________. *A Way of Being.*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________.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51.

Russell, Letty M. *Human Liberation in a Feminist Perspective - A Theology. 여성해방의 신학.* 안상임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Slocum, Robert, E. *Maximize your Ministry-How you as a lay person can impact your world for Jesus Christ. 평신도 목회의 극대화.* 서병택, 서병채 역, 서울:평신도목회자연구소, 2003.

Tillich, Paul.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흔들리는 터전.* 김천배 역, 서울:기독교서회, 1992.

________. *Perspectives on 19th and 20th Century Protestant Theology.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9.

________. *Theology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Vicedom, Georg F. *Missio Dei : Einführung in eine Theologie der Mission.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 역, 서울:기독교서회, 1980.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Wissenschaft als Beruf/ Politik als Beruf/ Soziologische Grundbergriffe.* 김현욱 역.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직업으로서의 학문/직업으로서의 정치/사회학 근본개념.* 서울:동서문화사, 2010.

Wickett, R.E.Y, *Models of Adult Religious Education Practice.* Alabama, Birmingham :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1.

Wind, James P. et al.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Contemporary Clergy Ethics. 현대 성직자 윤리.* 김성민, 정지련 역, 서울:정암문화사, 1992.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 Fortress Press. 1992.

________. *Unmasking the Power.* Fortress Press. 1986.